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21-01

연구보고 07-R1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민경석(세종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신정민(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이소화(숙명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안혜원(숙명여자대학교 석사과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7-21-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7-21-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덕여대, 이화여대, 델라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 게이오대학, 남스톡홀름대학
07-21-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델라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 게이오대학, 남스톡홀름대학
07-21-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델라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 게이오대학, 남스톡홀름대학
07-21-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슬로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은정 연구위원	민경석(세종대학교, 전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게이오 대학교 (일본)	Hideki Watanabe 교수	Shigeki Matsuda (다이이치세메 경제연구소) 배지혜 (게이오 대학) Yasuaki Aota(게이오 대학) Masayuki Ozawa(게이오대학)
	델라웨어 대학교 (미국)	Bahira Sherif Trask 교수	Melina McConatha Rosle (델라웨어대학) Bethany Willis Hepp (델라웨어대학)
	뒤스브르크에센대학교 (독일)	Gudrun Quenzel 박사	Michaela Janotta (뒤스브르크에센대학) Janina Herrmann (뒤스브르크에센대학)
	남스톡홀름대학교 (스웨덴)	최연혁 교수	Peter Strandbrink (남스톡홀름 대학)
	오슬로 대학교 (노르웨이)	박노자(Tikonov) 교수	고미숙(연구공간 수유+너머) 나임윤경(연세대학교) 권인숙(명지대학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협동연구과제임.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이 갖는 특징과 문제점을 밝히고 바람직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형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4개국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의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2007년도 주요연구 내용은 청소년들의 주요 사회화주체와의 관계, 즉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친구관계의 특징을 비교하는 데 있음.

2. 연구결과

- 한국의 부모들은 나름대로 자녀교육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사회가 다원화되고 좋은 교육, 좋은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강조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수험경쟁 때문에 학년이 높아갈 수록 부모들의 불안은 깊어지고 이것이 가정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한 가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음. 결국 부모들의 불안심리는 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갈등상황을 빚어냄. 한국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정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도 이러한 부모자녀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됨. 반면, 독일과 미국의 면접조사결과 이들 나라의 청소년들은 비교적 부모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사와의 관계(친밀도, 만족도), 학교에서의 의사소통, 학교생활만족도 등을 총괄해서 학교내 자본 또는 자산(또는 그 결과)이라고 할 때, 고교 수준에서는 전문계고-일반계고-특수목적고라는 서열과 성적별 서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전문계고등학교의 자원부족과 특수목적고의 자원풍족이라는 대칭구조가 나타났으며, 특수목적고를 제외하고는 고교생은 중학생보다 자원이 결핍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성적별로도 나타남. 그러나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교 내 자본이 부족하다는 것임. 서양의 경우에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가르치는 직업으로서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정서적 지지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사실로부터 학력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교사에 대해 정서적 지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친구관계, 또는 친구들과의 생활공간, 교제의 장 등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들은 매우 단조로운 특징을 보임. 학교 이외에는 PC방-노래방-음식점이 주된 한국 청소년들의 친구교제의 장으로 전반적으로 남녀별, 남녀학교별, 학교별, 성적별,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패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청소년들의 생활공간 및 친구관계형성을 위한 활동공간의 단조로움, 일원적 특성이 드러남. 특히 동아리 활동의 저조함이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남.
- 한국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 교사, 친구관계라는 세 가지 관계성의 특징으로부터 사회화 주체와의 관계, 또는 한국 청소년들이 놓여있는 사회 환경의 빈곤함이 드러남.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등 3 관계는 물론 전반적으로 학업성취중심주의, 극심한 입시경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로 인한 시간적 제약은 세 가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즉, 일단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친구와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동아리 활동과

같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친구관계를 유지할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받고 있음. 이러한 생활시간은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해 구조화된 것으로 공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정책제언

- 학교폭력 방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몇몇 면접조사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내 관계성 회복을 위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함. 친구관계를 포함한 학교 내 관계성 회복을 위한 학교 및 교사 지침서의 번역 또는 제작 배포 등 소프트웨어 지원도 활성화 되어야 함.
-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교사에 대해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교사들에게는 정체성 혼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 교사들이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 더 전념하고 또 교사들에게 그러한 전문성을 기대하도록 의식을 전환하며,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직업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함.
-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등 3자간의 관계를 빈곤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입시위주의 교육에 있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학교교육과정에 중심적인 쟁점으로 다루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활동 지원정책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 하에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함.
- 연구결과 3자간의 관계, 또는 사회화과정에 있어서의 사회자본은 학업 성취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학교급별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으므로 전문계 고등학교나 연계성이 결여된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추진경위	4
3. 보고서의 구성	5
II. 이론적 고찰	
1. 부모와 또래집단 비교	11
2. 또래집단의 영향	12
1) 또래집단과 청소년기 심리발달	12
2) 학교적응 및 학습효과에 대한 또래의 영향	14
3) 이성교제	15
4) 친구관계의 국제비교	17
3. 교사와의 관계	18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및 연구문제	23
2. 연구방법	24
1) 문헌연구	24
2) 설문조사	25
3) 면접조사	31
IV. 연구결과	
1. 부모자녀관계	35
1) 부모의 기대-경쟁논리의 내면화-부모자녀갈등	36
2) 의존관계형성의 한국적 메카니즘	42
3) 자녀교육과 사회자본	46
4) 가정생활만족도와 부모자녀관계	49
5) 종합	51

2.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52
1) 교사와의 친밀도	52
2) 교사에 대한 만족도	58
3) 학교내 커뮤니케이션	59
4) 학교생활만족도	64
5) 사회화 주체로서의 교사의 정체성	66
6) 종합	73
3. 친구관계	75
1) 친구수	75
2) 미디어와 친구관계	78
3) 이성교제와 이성친구	80
4) 친구밀도와 친구관계	82
5) 친구관계 형성의 특징	88
6) 친구관계와 생활공간	92
7) 종합	96
4. 부모-교사-친구관계의 특징	97

V. 요약·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101
2. 정책제언	104
1) 부모-교사-학생 간 네트워크	104
2) 교사들의 사회심리적 동기부여	105
3) 동아리 활동 활성화	107
4) 학교급별 격차 해소	107

참고문헌	109
------------	-----

VI. 부록

1. 한국어 질문지	129
2. 일본어 질문지	144
3. 영어 질문지	158
4. 스웨덴어 질문지	172

표 목 차

<표 III-1> 각 국가별 설문조사개요	25
<표 III-2> 한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30
<표 III-3> 각국 면접조사의 개요	31
<표 IV-1> 가정생활만족도	50
<표 IV-2>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교사 유무	53
<표 IV-3> 싫어하는 교사 유무	55
<표 IV-4> 교사와의 친밀도	57
<표 IV-5> 교사에 대한 만족도	59
<표 IV-6> 교장·교감과의 대화	60
<표 IV-7> 교사에게 의견을 말함	61
<표 IV-8> 학생회를 통한 건의	63
<표 IV-9> 학교생활 만족도	64
<표 IV-10>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간 상관(한국) ..	65
<표 IV-11>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간 상관(일본: 동경)	65
<표 IV-12>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간 상관(미국: 대도시)	66
<표 IV-13>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간 상관(스웨덴: 스톡홀름)	66
<표 IV-14> 친한 친구수	77
<표 IV-15> 온라인 상의 친구수	79
<표 IV-16> 이성친구 비율	81
<표 IV-17> 친한 친구 간 관계를 묻는 질문	83
<표 IV-18> 온라인 상의 친구수, 친한 친구수, 친구관계밀도 간상관	84
<표 IV-19> 온라인 상의 친구수, 친한 친구수, 친구관계밀도 간 상관 (일본 : 동경)	84

<표 IV-20> 온라인 상의 친구수, 친한 친구수, 친구관계밀도 간 상관 (미국 : 대도시)	84
<표 IV-21> 온라인 상의 친구수, 친한 친구수, 친구관계밀도 간 상관 (스웨덴 : 스톡홀름)	85
<표 IV-22> 친구관계 밀도의 빈도	85
<표 IV-23> 친구관계 밀도의 빈도(각국비교)	86
<표 IV-24> 친구관계의 밀도	87
<표 IV-25> 4명의 친한 친구 간에 관계되는 사항(복수응답, 비율) ..	89
<표 IV-26> 4명의 친한 친구 간에 관계되는 사항(한국, 성별, 복수응답, 비율)	90
<표 IV-27> 4명의 친한 친구 간에 관계되는 사항(한국, 남녀학교별 복수응답, 비율)	90
<표 IV-28> 4명의 친한 친구 간에 관계되는 사항(한국, 학교급별, 복 수응답, 비율)	91
<표 IV-29> 4명의 친한 친구 간에 관계되는 사항(한국, 성적별, 복수 응답, 비율)	91
<표 IV-30> 4명의 친한 친구 간에 관계되는 사항(한국, 지역별, 복수 응답, 비율)	91
<표 IV-31> 4명의 친한 친구와 함께 보내는 장소(복수응답, 비율) ..	93
<표 IV-32> 4명의 친한 친구가 함께 보내는 장소(한국, 성별, 복수응답, 비율)	94
<표 IV-33> 4명의 친한 친구가 함께 보내는 장소(한국, 남녀학교별 복수응답, 비율)	94
<표 IV-34> 4명의 친한 친구가 함께 보내는 장소(한국, 학교급별, 복 수응답, 비율)	95
<표 IV-35> 4명의 친한 친구가 함께 보내는 장소(한국, 성적별, 복수 응답, 비율)	95
<표 IV-36> 4명의 친한 친구가 함께 보내는 장소(서울, 지역별, 복수 응답, 비율)	96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추진경위
3. 보고서의 구성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협동연구과제이다.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이 갖는 특징과 문제점을 밝히고 바람직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3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한국과 외국의 청소년들이 각각의 사회문화 환경 안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한 사람의 시민이 되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의 특징을 밝히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06년 1차년도 연구는 제1차 사회화 기관인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 5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및 가족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 자녀관계, 부모 및 자녀의 가치관과 태도,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방식 등이다. 조사결과, 첫째, 한국의 경우 양친 부모의 비율이 기타 4개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웨덴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긍정적이고 친밀한 의사소통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청소년들 대부분은 방과 후 보충수업과 학원 등 학업관련 활동 때문에 귀가 시간이 늦은 반면, 서구 국가 청소년들은 귀가 시간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조사결과로부터 한국 청소년들이 처한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2007년에는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로 영역을 확대하여 각국의 청소년들이 주요 사회화 주체인 부모, 친구, 교사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다시 말해 2007년도 연구는 제1차 사회화 기관인 가족과 제2차 사회화 기관인 학교와 또래집단이 각각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 연구의 추진경위

(1) 국제학술대회, 연구세미나, 연구포럼

지난 4월 2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주관으로 2006년도에 수집된 5개국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국제학술대회에는 2006년 국내외 협동연구진 및 2007년도 국외협동연구진, 그리고 한국사회학회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 주제는 각국의 자녀사회화 방식 비교와 청소년기 사회화와 관련된 성·계층·인종문제의 고찰이었다.

그밖에 2007년도에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질적 연구 세미나를 2차례 개최하였으며, 한국, 일본, 미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포럼을 2차례 개최하였다.

2007년 11월에는 국외 협동연구기관인 일본의 게이오대학이 주관하는 다문화시민의식 국제심포지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일본게이오대학 공동주최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한일비교」라는 세션을 마련하여 2007년 한국과 일본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2007년 12월에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담론의 역사적 기원과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세미나를 1회 개최하였다.

(2) 설문조사를 위한 협동연구

2007년도 조사는 2006년과 마찬가지로 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하였

으나, 독일조사는 까다로운 학교섭외절차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고,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주관하였으며, 일본조사는 게이오대학, 스웨덴조사 남스톡홀름대학이 주관하여 실시하였고, 미국 조사는 조사 아웃소싱 회사인 IRS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각국의 조사가 끝난 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총괄하여 4개국 조사자료를 구축하였다. 1차 분석자료는 본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며 2008년도 보고서에서는 2006년과 2007년의 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국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특징과 패턴을 비교제시 할 것이다.

(3) 면접조사를 위한 협동연구

2006년에는 설문조사만 실시하였으며, 2007년에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2008년에는 면접조사만 시행할 계획이다. 2007년 한국 면접조사는 학생,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생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는 국내협동연구기관(2개 대학)이 실시하였다. 일본조사는 일본 게이오대학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독일조사는 뒤스부르크-에센대학 사회학 연구소, 미국조사는 델라웨어 대학, 스웨덴조사는 남스톡홀름대학(리서치 포럼)이 실시하였고, 각 조사팀들이 각자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별도의 세부과제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보고서의 구성

2007년도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보고서는 총괄보고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이외에 4권의 세부과제보고서로 구성되었다. 각 세부과제보고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청소년기 사회화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이다.

각 세부과제보고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이 연구는 2007년에 실시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 5개국 대상 면접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과 일본 조사는 부모,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독일, 스웨덴 조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한국의 경우는 학생, 부모, 교사 등 대상별로 분석한 논문과 학교별 격차와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다룬 논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국의 경우는 각국 면접조사결과를 분석한 4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총괄보고서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에 반영되었다.

(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이 자료집은 2007년에 실시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자료 중 한국 청소년 10명과 각국 청소년 5명 등 총 30명(일본의 경우는 2개의 사례는 부모면접 사례)의 각국 청소년들과의 면접조사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3)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이 보고서는 2006년에 실시한 5개국 설문조사데이터를 이용한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내 사회화과정의 추가 분석보고서이다. 총 8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으며, 이 중 5편은 2006년 5개국 비교조사자료를 활용한 논문이며, 나머지 3편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논문 1편, 미국과 독일 청소년에 대한 문헌분석 논문 2편이다.

(4) 청소년기 사회화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방향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의 계몽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에 걸친 시기 동안 청소년에 대한 사회상 또는 청소년의 사회화와 관련하여 형성된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해당 시기의 신문, 잡지 기사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사회가 구축해 온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식, 청소년 교육의 이념들 안에 감춰진 성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청소년만들기, 국민만들기, 여자 또는 남자만들기 등과 관련된 담론들을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부모와 또래집단 비교
2. 또래집단의 영향
3. 교사와의 관계

II. 이론적 고찰

1. 부모와 또래집단 비교

청소년들은 성장함에 따라 자신들과 성인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Coleman & Hendry, 2006). 부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의 지시에 따를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또래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상대적으로 평등하며 상하관계가 적은 수평적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의 지도와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수평적 관계인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서 협동·타협·의사 교환하는 능력과 사회성을 배양하게 된다. 본격적인 사회적 관계를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또래에 의한 사회화는 평등한 대인관계를 통하여 유행을 배우고, 시야를 넓히며, 성인의 권위로부터 독립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연구자들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유행, 여가활동에 미치는 또래의 영향이 중요하지만, 학업이나 진로설정 등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하는 등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Ochiltree(1990)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나 흥미로운 일에 대해서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친구보다는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주장이다. 김혜수·이미리(2006)도 청소년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비교한 결과, 청소년기에는 부모애착이 감소하는 반면, 친구애착이 증가한다는 애착이론의 가정이 지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세희 외(2006)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요인과 또래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추적 조사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의 주요 집단인 가족과 교우 집단의 영향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라, 또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부모와 교우집단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almonari(1989)도 가족과 교우 집단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는데, 사회화영역에 따라 부모, 또래집단 또는 둘 모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Claes(1998)는 이탈리아, 캐나다, 벨기에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교우 집단을 비교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캐나다에서는 교우 집단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벨기에에서는 양쪽 끝의 중간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비교하였다.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 대한 부모/또래 집단의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 따라 의미 있는 타자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양상을 살필 수 있으므로 매우 흥미롭다고 하겠다. 이에서 언급한 연구들을 볼 때,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에서 가족과 교우 집단의 영향력은 성별, 연령,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서 가족과 교우 집단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할 때에, 성별과 연령, 그리고 문화적 환경 및 다양한 제반 변수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또래집단의 영향

1) 또래집단과 청소년기 심리발달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또래 및 친구관계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친구 및 또래집단의 영향이 아동기에 비해 더욱 커진다. 아동기에는 부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청소년기가 됨에 따라 부모에의 의존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심리·감정적으로 부모보다는 친구들에게 더 밀착·의존하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결과 친구에의 의존 및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된다. 친구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관계를 배워 나가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가치를 느끼고, 대인관계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익히게 된다(조성남 외, 2002). 따라서 이러한 또래와의 교류와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사회

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생애를 8단계로 나누고, 인간의 발달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에릭슨은, 전 생애 발달 단계상 청년기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로 보았다. 그는 ‘자아정체감 : 청년과 위기(Identity : Youth & Crisis)’라는 저서에서 11세부터 22세에 해당하는 청년기를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란’의 시기라고 설명하였다. 피아제의 발달단계 중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청년들은 발달된 인지능력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 답을 찾기 위해 고뇌한다고 한다. 청년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즉 부모, 친구, 국가 등과 같은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 ‘...로서의 자기’를 파악하며, 여러 면모의 다양한 자기를 통합해 나아갈 때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청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좌절할 경우 ‘역할혼란’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질풍과 노도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에릭슨은 반드시 질풍과 노도의 시기를 통해야만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에릭슨은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청년기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잠시 보류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탐색하고 역할실험을 해보는 심리적 유예기간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허혜경 외, 2002: 27-28).

청소년들은 추상적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가능해진 형식적 조작능력으로 ‘나’에 대해 정의를 내리거나 나의 능력, 나의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 정신건강과 성격의 중요한 측면이면서 동시에 발달과업이기도 하다. 자아개념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고, 환경적으로는 자신의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해 그 사회의 준거에 의해서 자신을 비추어보며, 혹은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해 평가되어지는 자신에 대한 지각을 통해 형성된다.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이나 견해를 말하는 자아존중감과 달리 인지적 측면이 강하게 반영되는데, 자아개념은 자

신의 수행을 또래와 비교하는 초기 아동기 때부터 시작된다. 청소년기에는 인지능력의 발달로 자신을 기술하거나 판단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동과 큰 차이를 보이고,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고려하게 되며,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외모, 능력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개념의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미 있는 타인’인데, 아동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타인’은 부모이지만,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부모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또래집단의 피드백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래와의 교류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또래들은 청소년들이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들은 친구/또래집단에 비쳐진 자신의 상(像)을 재검토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또래간 적극적이고 원만한 관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자아상은 청소년 시기 뿐 아니라 그 이후, 즉 성인이 된 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친구나 또래집단의 역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학교적응 및 학습효과에 대한 또래의 영향

학교적응이란 추상적 사고를 기조로 만들어진 개념이며, 그렇게 때문에 학교적응은 단일차원이라기보다는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것은 연구자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라(2000)에 따르면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생들이 학교의 총체적인 영향 속에서(학생, 교사, 학급생활 등의 관계)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의에 따라 학교적응이라는 개념이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이라는 하위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Carlson 등(1999)은 학교생활 지수나 적응지수가 곧 학교 적응의 증거라고 보았으며, 학교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출석률, 학업수행, 훈육문제, 상담 교사의 기록 등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용래(1993)는 학교환경 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 적응으로, 김지혜(1998)는 수업참여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문제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한 개념정의에 차이가 나고, 학교적응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래집단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콜맨(Coleman, 1990)의 보고서 이후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학교에서의 다른 요인보다도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래집단구성의 특성이었다. 시웰 등(Sewell, et al, 1969)의 연구 그리고 하우스저(Hausser, 1980) 등의 연구에서도 다른 의미 있는 타자 중 또래집단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IEA가 실시한 제2차 국제수학평가 자료를 이용한 짐머와 토마(Zimmer & Toma, 2000)의 국가간 수학성적에 미치는 또래효과 분석에서도 국가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또래효과는 의미 있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또래관계에 보다 강조점을 맞추어 또래관계 형성이 기타 학교 적응 구성 요소인, 학업수행 학교규칙 준수, 학교수업 적응과 학업성취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이러한 연구방법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또래 및 친구들과 맺는 수평적인 관계가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화 및 적응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3) 이성교제

또래집단의 영향은 동성끼리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성교제를 통해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기술을 익히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조

망을 습득하게 된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청소년들에게 있어 이성교제는 이제 더 이상 특수집단의 경험양식이라고 할 수 없다. 집단 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로 청소년들의 50%이상이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한상철, 2004). 또한 염순교(2003)에 따르면 청소년 2,3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7.3%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에서 이성교제의 시기는 중2 혹은 중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최근에 올수록 점차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이성과 사귀기 시작했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밝히고 있다(한상철, 2004). 따라서 성경험 및 성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그 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하게 되는 배경과 현황, 그리고 실제 성경험 및 성행동의 실태를 분석하는 일은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성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역할(gender role)을 습득하고 형성해 나간다. 성역할이란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남자 혹은 여자로 특징지어 질 수 있는 행동, 태도, 가치, 특성의 기대치를 의미한다(김경미·양혜영, 2005). 우리 사회에서는 독립성, 지배성, 진취성 등을 통해 남성성이 구현된다고 생각되어지는 반면, 양육성, 의존성, 수용성 등은 여성성의 특징이라고 여겨져 왔다(김경미·양혜영, 2005).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 개념은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데 이러한 전달기제 중 하나가 이성교제라고 할 수 있다. 이성교제의 첫 단계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과연 어떠한 이성이 (성적) 매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얼마큼 매력 있는 이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매력 있는 대상을 고르고, 매력 있는 대상이 되고자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여성성’과 ‘남성성’은 중요한 준거기준이 되며, 청소년들은 이 같은 준거기준에 자신의 모습을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성 상대 고르기에서 중요한 준거로서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결단력 있는 태도를, 남성은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중시하게

되는데 이 같은 통념은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한 이성교제를 통해서 ‘성역할’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박미라(2006)에 따르면 이성교제가 진행됨에 따라 여학생의 경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이성교제과정에서 여학생 자신이 사회통념 상 ‘아름답고 매력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엄귀영(2006)의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 비용의 상당부분을 남학생이 부담하고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를 당연시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행동 패턴도 ‘남자가 재정을 맡아야 한다’는 사회적 언설을 청소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남녀 청소년들이 이성교제과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성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성역할(gender roles)를 사회화 해가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친구관계의 국제비교

일본 내각부에서는 5년마다 『세계 청년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 조사는 본 연구의 비교대상국과 같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으로 본 연구의 참조조사로서 의의가 크다. 단, 일본 내각부 조사는 18세 ~ 24세를 대상으로 하고 본 연구의 조사대상과는 연령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비교상의 난점이 있기는 하다.

2004년 『세계 청년의식조사』 중 친국관계에 대한 조사결과만을 살펴보면, 먼저 친한 친구의 유무를 「동성의 친한 친구」, 「이성의 친한 친구」, 「애인」, 「없음」의 항목으로 물어본 결과, 독일에서는 「동성의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반대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아 독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친한 친구가 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성의 친한 친구는 미국과 스웨덴이 높고, 애인은 독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를 사귀게 된 동기를 비교해 보면, 모든 나라에서 「학교」에서 친구를

사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순위는 일본과 미국이 「직장」이고 한국과 독일은 「학교 이외의 클럽」, 스웨덴은 「동향인」이었다.

반면, 친구관계의 만족도를 보면, 모든 나라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이상이었으며, 독일은 94.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모든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또래집단이 의미있는 타자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3. 교사와의 관계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는 교사와 또래관계를 맺어주는 사회관계의 장인 동시에, 학업성취라는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는 곳이다(이경아·정현희, 1999). ‘학교’라는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맺는 관계 중에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학교가 ‘학업성취’라는 목적을 가지고 형성되는 사회집단인 만큼 그 안에서 청소년(학생)들의 성적과 인성을 평가하는 교사의 역할은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최근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학생의 교사에 대한 믿음과 관계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숙정, 2006)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의 능력과 인성에 대해 신뢰를 갖고,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고취시키고, 학업성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봉(1984)은 담임교사에 대한 인간관계의 변화형태에 따라서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는 단순히 교과 내용을 매개로 하는 학습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유대와 관련을 갖게 되며, 교사가 아동을 어떻게 대하고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흥미, 동기는 달라진다고 하였다. 비록 한덕봉(1984)의 연구대상이 ‘아동’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교사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종흡·홍정표(1999)도 교사와

청소년기에 이른 학생 간의 인간관계가 신뢰적이고 민주적일 경우 학습효과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박진희(1986)도 학습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볼 때 아동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교사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공감적인 이해와 따뜻한 애정으로 대하면, 그들은 교사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학업성취 욕구를 신장시켜 궁극적으로 학업성적을 증진시키게 된다고 한다. 교사-청소년 간의 긍정적인 신뢰 관계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심리발달 및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교사들에 대한 태도, 교사-학생 간의 의사소통구조 등을 조사하고, 이러한 교사-학생 간 관계가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및 연구문제
2. 연구방법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및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다룰 내용은 각국 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로 이러한 각각의 관계성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관계에 대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와 그 영향 요인, 자녀교육에 대한 계층별 사회자본의 차이, 가정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유형은 무엇이며, 그러한 기대는 어떤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가?
- (2)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부모자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한국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자본은 계층별로 차이가 있는가?
- (4) 청소년들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별, 성적별,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교사-학생관계에 대해서는 교사와의 친밀도, 학교내 의사소통정도, 교사 및 학교생활만족도, 사회화주체로서의 교사의 정체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사와의 친밀도는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별, 성적별,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
- (2) 학교내 의사소통정도는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별, 성적별,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
- (3) 교사에 대한 만족도 및 학교생활만족도는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별, 성적별,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
- (4) 한국 교사들은 사회화 주체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친구관계의 양적 질적 특성, 친구관계 밀도, 친구관계 형성의 특징, 친구간 공유생활공간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친구수 등 친구관계의 양적 특성은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별, 성적별,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
- (2) 친구관계 밀도 등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은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별, 성적별,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
- (3) 친구관계 형성의 특징은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별, 성적별,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 ?
- (4) 친구간에 공유하는 생활공간은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별, 성적별,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007년 연구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서 진행하였다. 2006년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2007년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설문조사가 매년 독립적인 조사로 이루어져 동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어 2007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설문지 작성과 면접조사를 위한 국내외 조사관련 문헌 및 자료, (학교)교육과 또래집단에 관련된 각국의 문헌, 공식통계자료, 국제비교조사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 등 다각적인 문헌연구를 추진하였다.

둘째, 부모자녀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관련 국내외 문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1) 각국 설문조사 개요

비교대상국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으로 2006년도와 같이 5개국으로 설정하였으나, 독일조사는 학교섭외 실패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설문조사는 14~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은 전국단위조사로 목표표본수 3,000명, 기타 각국의 조사의 경우는, 일본은 동경, 미국과 스웨덴은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표본수 1,000명을 목표로 조사하였으나 <표 I-1>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별로 최종 수집된 표본수는 차이가 난다.

<표 III-1> 각 국가별 설문조사개요

국가명	표본수	표집범위(단위)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시기
한 국	3,449	전국(학교)	집단면접조사	14~17세	6월~7월
일 본	526	동경(가구)	방문유치법	15~18세	9월~11월
미 국	909	대도시(학교)	집단면접조사	14~17세	8월~9월
스웨덴	392	대도시(학교)	집단면접조사	14~17세	9월~10월

(2) 표집방법

① 한국조사

한국조사의 경우, 2006년도 조사에서 채택한 표집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사용된 표본추출방법은 층화이단계추출법이다.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는 학교,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SSU)는 학급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서는 한 학급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표본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추출은 복합표본설계인 층화2단계추출법에 따라서 추출되기 때문에 표본크기의 결정은 복합표본설계의 설계효과(design effect)를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설계효과를 반영하여 표본크기를 산정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실시한 청소년발달지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활용한 2006년도 조사의 표본설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006년도

표본설계는 2005년도에 실시된 청소년발달지표 조사의 표본추출 과정이 본 연구의 경우와 거의 같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본크기는 모비율 추정에 대한 전국 통계의 오차의 한계를 3% 내외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결정되었다.

표본설계에서 사용된 층화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학교 조사의 경우, 지역(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과 학교 유형(남, 여, 남녀공학)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12개 층을 구성하였으며, 고등학교 조사의 표본설계에서는 지역(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과 학교유형(일반계, 실업계)을 고려하여 층화하였다. 1차적으로 지역(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을 고려하여 나누고, 2차로 각 지역에서 학교 유형(일반계, 실업계)에 따라 구분하여 모집단을 8개의 층으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표본학교 수 배분은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학생수 제곱근 비례배정, 학생수 비례배정, 서울 지역 우선 배정 후 비례배정 등의 방법을 적용한 후 비교해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 지역에 우선적으로 중학교는 20개, 고등학교는 22개 학교를 배정한 후,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비례배분하는 방안을 사용하였다. 일본의 경우 수도권, 스웨덴의 경우 수도권인 스톡홀름, 미국의 경우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할 경우 서울지역 표본만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대한 신뢰성 높은 통계작성이 요구된다. 서울 지역에 우선적으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22개 학교를 배분하면 모비율 추정에서 서울 지역의 추정결과의 오차한계를 5%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과 표집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가중치는 ㉠ 설계 가중치,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사후층화에 대한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산정하였다. 중학교 조사의 사후층화 조정은 지역 구분(4)과 성별 구분(2)에 대해서 8개 사후층을, 고등학교 조사의 사후층화 조정은 지역 구분(4), 학교 유형(일반계, 실업계), 성별 구분(2)에 대해서 16개 사후층을 구성하여 조정하였다.

② 일본조사

일본조사는 동경도내(도서부 제외) 거주하는 1988년 4월부터 199년 3월 까지의 출생자, 즉 만 15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본 추출은 주민기본대장(住民基本台帳)으로부터 층화이단무작위추출법(層化二段無作為抽出法)을 이용하였다. 주민기본대장은 각 자치단체가 주민표(住民票)를 세대별로 편성하여 작성한 대장(台帳)에 거주자의 이름, 성별, 연령을 기재한 것이다. 일본에서 주민기본대장은, 주민의 거주 관계에 대한공증, 선거인명부의 등록, 그 외 주민에 관한 사무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된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 지역의 각 자치단체에 학술 조사를 목적으로 대장의 열람 허가를 신청한 후에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층화(層化)는 도내(都内)의 시구정촌(市區町村)의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한 3층(層)으로 나누었다. 인구 규모에 따라서 각 층에 있어서의 조사 지점수를 할당하고 각 층 내의 자치단체에 대해 조사 지점수를 배분하였다. 총 67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표본수는 총 800이다. 이것을 지점수로 나누어 1지점당 12명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각 지점에서는 별도로 예비 표본을 준비해 두었다.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8명), 대상자의 주소불명(5명), 실제 면접한 결과 고교생이 아닌 경우(8명) 등 총 21명은 이 예비 표본에서 사용되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방문유치법(訪問留置法)이다. 이 방법은 우선 조사원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의 취지와 응답 방법을 설명한 후, 조사표를 배포한 다음, 대상자가 자택에서 조사표를 기입한 후, 조사원이 새롭게 지정한 날에 대상자의 집을 재방문하여 대상자가 기입한 조사표를 받아 오는 방식이다.

③ 미국조사

미국조사는 대도시의 학교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우 수도를 대상으로 하나는 것보다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비교에 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한국, 일본, 스웨덴,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수도를 중심으로 비교했을 때 문화적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기 때문이다. 물론 대도시와의 비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해석 시 이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조사지역은 다음과 같이 9개 지역이며, 9개 지역에서 각각 1개교씩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Charlotte, NC
- Indianapolis, IN
- Nashville, TN
- Austin, TX
- Los Angeles, CA
- Tampa, FL
- Minneapolis, MN
- New York, NY
- Chicago, IL

④ 스웨덴조사

스웨덴의 설문조사는 중등학교 및 고등학교를 직접 면접원이 학교장을 접촉하여 설문조사에 응해줄 수 있는지 의사를 확인한 후 진행되었다. 스톡홀름에 있는 학교를 위주로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학교장의 전화번호와 메일주소를 통해 접촉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를 위해 접촉된 학교는 스톡홀름시에 위치한 28개 고등학교와 중학교 10개교였으나, 이 중에서 설문협조를 허락한 학교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빈번한 조사의뢰로 인한 시간손실 등이 거절사유였다. 특히 스톡홀름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중·고등학교는 한결같이 상위 교육기관, 각계 연구원 및 매스컴 등의 빈번한 설문 의뢰로 인한 시간부족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또한 설문내용에 부모 및 가족 구성원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부모들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

설문을 진행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절차상 난관에 봉착하였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 허락된 학교에 설문지를 발송한 후 회수된 설문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Täby Enskilda Gymnasium, 150부 발송 미회수
- Huddinge Gymnasium, 300부 발송 83부 회수
- Tullinge Gymnasium, 50부 발송 25부 회수
- Spånga Gymnasium/grundskola, 200부 발송 126부 회수
- Gubbängsskolan 250부 발송 105부 회수

스톡홀름에서 발송 및 회수율이 낮아 스웨덴 중부지방에 있는 트라노스(Tranås)시의 고등학교인 Holaveds Gymnasiet에 100부를 추가로 발송해서 70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 트라노스에 있는 홀라베스 고등학교는 스웨덴 면접원이 졸업한 학교로 교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로 협조를 요청해 허락을 얻어 회수하였다. .

- 따라서 스웨덴의 설문조사는 스톡홀름에서 950부 발송 후 2008년 1월 27일 까지 회수된 339부와 트라노스에서 발송된 100부 중 70부 총 회수된 총수는 409부이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학교 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Täby Enskilda gymnasium: 스톡홀름시 북부의 상류층 지역
- Huddinge Gymnasium 스톡홀름시 남부의 중간계층 지역
- Tullinge gymnasium 스톡홀름시 남부의 중간계층 지역
- Spånga gymnasium/grundskola 스톡홀름시 서부의 중상층 지역
- Gubbängsskolan 스톡홀름시 동남부의 중상층 지역
- Holaveds Gymnasiet, 트라노스 지방은 스웨덴 남부의 중소도시로 중간계층 지역

따라서 이 설문조사에 참가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인 수준은 전국의 평균보다 약간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톡홀름은 평균소득에

있어 전국수준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각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각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자. 먼저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각각, 한국이 52.5%, 47.5%(서울, 52.7%:47.3%), 일본(동경)이 51.7%. 48.3%, 미국(대도시)이 56.0%, 43.2%, 스웨덴(스톡홀름)이 50.0%, 50.0%이다. 출생연도는 1989년에서 1994년생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령대는 한국과 일본의 학제에 따라서 볼 때, 중·고등학생에 해당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방소재 특수목적 고등학교 1개교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 전체 자료를 학교급별로 분석할 때에는 특수목적고를 별도로 다루었는데, 표본수가 30으로 작기 때문에 전체에서 빠지더라도 별 영향이 없으며,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III-2> 한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한국(전체)		한국(서울)		일본(동경)		미국(대도시)		스웨덴(스톡홀름)	
		인원수(명)	%	인원수(명)	%	인원수(명)	%	인원수(명)	%	인원수(명)	%
성별	남	1,811	52.5	366	52.7	272	51.7	509	56.0	194	50.0
	여	1,638	47.5	328	47.3	254	48.3	393	43.2	194	50.0
학교 급별	중학생	1,659	48.1	313	45.1	257	49.0	902	100	388	100
	고등학생	1,790	51.9	381	54.9	268	51.0				
출생년 별	~1989년생	86	2.5	1	.1	-	-	91	10.0	42	10.7
	1990년생	626	18.2	143	20.6	93	17.7	269	29.6	56	14.3
	1991년생	900	26.1	195	28.1	144	27.4	169	18.6	26	6.6
	1992년생	646	18.7	110	15.9	124	23.6	121	13.3	49	12.5
	1993년생	563	16.3	140	20.1	130	24.7	118	13.0	74	18.9
	1994년생	568	16.5	98	14.1	35	6.7	104	11.4	137	34.9
	1995년생~	59	1.7	8	1.1	-	-	1	.1	2	.5
지역별	대도시	1638	47.5	694	100	525	100	902	100	388	100
	중소도시	1341	38.9	-	-	-	-	-	-	-	-
	읍면 지역	470	13.6	-	-	-	-	-	-	-	-
전체		3,449	100.0	694	100	525	100	902	100	388	100

※ 한국의 경우, 고등학생 중 30명은 지방소재 특수목적고 재학생임(1개교)

3)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중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일본은 부모와 교사도 면접대상에 포함되었다.

한국조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서울 지역거주 부모 36명, 교사 8명과 수도권(서울중심)거주 학생 5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차 조사는 20명의 학생과 4명의 교사, 그리고 1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결국 한국조사는 총 76명의 학생과 37명의 부모, 1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조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2명의 중고생과 5명의 부모, 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조사는 델라웨어 지역 26명의 중등학교학생, 독일조사는 전국 16명의 중등학교학생, 스웨덴조사는 수도인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총 19명의 중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총 73명의 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각국의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나 각국의 연구자들이 연구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한 내용들도 있다. 이는 각국 연구로부터 나타나는 의미 있고 상이한 결과들을 분석하여 2008년도 면접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항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이다. 한국과 스웨덴 조사는 완전히 동일한 질문지를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미국조사는 미디어 활용에 관한 내용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일본과 독일 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되,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에서 사용한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각국의 연구방법은 2007년도 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각 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표 III-3〉 각국 면접조사의 개요

국가명	표본수	표집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시기	
한국 (1차)	부모	36	서울중심	면접조사	초중고학부모	5월~8월
	교사	11(+학생 3)	서울	면접조사	중등학교교사	5월~8월
	학생	56	전국(서울중심)	면접조사	중고생	5월~8월

한국 (2차)	부모	1	전국	면접조사	중학생부모	9월~10월
	교사	4	전국	면접조사	중고등학교교사	9월~10월
	학생	20	전국	면접조사	중고생	9월~10월
일본	부모	5	수도권	면접조사	중고등학생부모	8~10월
	교사	3	수도권	면접조사	중고등학교교사	8~10월
	학생	12	수도권	면접조사	중고생	8~10월
미국(학생)		26	텔라웨어	면접조사	중고생	6월~8월
스웨덴(학생)		19	스톡홀름	면접조사	중고생	9월~11월
독일(학생)		16	전국	면접조사	중고생	8월~10월

IV. 연구결과

1. 부모자녀관계
2.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3. 친구관계
4. 부모-교사-친구관계의 특징

IV. 연구결과

1. 부모자녀관계

2006년 5개국 조사결과, 가족구조 비교에서는 5개국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 친아버지, 친어머니 모두와 함께 사는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그 비율이 기타 4개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자가정 비율은 한국이 가장 낮았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혼, 재혼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이슈화 되고 있지만, 서구 유럽의 가족구조와 비교하면 아직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차이는 각국의 부모자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이 이와 같이 ‘친 아버지·친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중심인 반면 독일, 스웨덴, 미국을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일본은 한국과 거의 같았다(김현철·김은정 외, 2006). 따라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모자녀관계의 차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2006년 5개국 비교조사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결과이다. 5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비교해 보면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사대상국 모두 공통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긍정적이고 친밀한 의사소통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국 모두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 자녀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접촉이 많고, 관계의 질이 높기 때문에 어머니와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는 동시에 갈등과 불화도 빈번하게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스웨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부모와의 친밀함의 정도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2006년 조사 자료를 추가 분석한 보고서(2006년 세부과제 보고서「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에서 스웨덴 부모의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돋보였으나, 스웨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2007년 세부과제 보고서「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는 높은 이혼율로 인해 가족구성원 간 관계가 소원한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상황은 더 복잡하며, 그러한 복잡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면접조사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찾아줄 것이다. 본 장에서는 2007년도에 한국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결과에 설문조사 결과를 더하여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의 구체성을 밝힐 것이며, 부분적으로 다른 나라 부모-자녀관계와도 비교할 것이다.

1) 부모의 기대·경쟁논리의 내면화·부모-자녀갈등

한국의 부모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부모의 바람과 청소년의 실천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의 학업과 공부에 치중하고 있거나 적어도 학교 성적을 중시 여김으로써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이 바라거나 희망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들은 공부 외적 요인이나 관심이 많아서 학업에 열중하기를 바라는 부모와의 갈등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아이들 사이에서는 공부에 임하는 태도나 이탈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나, 부모가 아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일정하게 공부나 생활태도에 있다.

부모 중 다른 요인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모도 있으나 결국은 성적이나 학습태도에 귀착된다.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아울러 아이들의 일상에 있어서의 생활양식이나 태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부모는 그 변화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바로 한국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간 세대격차를 증폭시키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세대간 갈등은 보편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차이는 한국 부모들의 가치가 너무나 단순하다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부모-자녀간 가치관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학부모에게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부모들은 대부분 공부에 대한 기대치가 컸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습관

이나 절도 있는 생활태도를 중시하고 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학습태도보다는 성적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입시에 대한 준비로 대학입시가 초두의 관심사로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진 반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바람은 비교적 포괄적인 형태로 나타났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부모가 생활습관을 키워주는 데에 노력하는 경향이 고학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학년이 높아지고 고등학생이 되면 눈앞에 다가온 입시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고 대학입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또한 자녀가 공부를 잘 할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악바리 근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약아서 자기 것을 잘 챙기기를 희망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인성중심의 교육에 대한 강조나 자녀의 취미나 적성을 고려한 행복한 삶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단 학교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며 이는 성적에서뿐만 아니라 교우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대된다. 친구에게도 너무 잘해주는 자녀는 그러다가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부모들은 자녀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좋은 태도에 대해서도 마냥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그러나 다수의 부모가 경쟁사회의 논리를 내면화한 가운데 자녀에 대한 기대치나 바람을 드러낸 반면, 소수의 학부모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는 아이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자라고 예의도 바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대부분의 부모가 경쟁사회의 논리를 수용하고 자녀가 그 제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희망하는 한편, 경쟁적인 한국 사회의 모습이나 학교제도와 운영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첫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맘껏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들을 줄을 세워서 그 속에서 우열만을 가리는 풍토가 아니라 아이 하나하나가 지닌 장점을 파악하고 그 아이의 개별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북돋아주는 교육 여건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교육은 전 과목 위주로 되어 있어서 만능인을 양산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고, 사실 불가능한 것을 교육제도나 부모가 요구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달달 외는 방식으로 학교 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힘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 과목을 잘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한 부모는 지적하였다. 자녀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 풍토에 대해 비판적인 그 어머니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니고 있는 재능 중에 개발할 여지가 있는 특성을 잘 발굴해서 키워줄 수 있는 교육제도를 찾아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기로 했다는 한 부모의 의미 있는 항변도 들을 수 있었다.

셋째, 학교 교과서의 내용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아이들 수준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의존해서 이를 해결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수준을 제대로 맞춰서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유기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인이 과외교사를 하기 때문에 중등과정의 교과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자녀를 가르치기도 하는 이 부모는 교과서의 내용이나 수준을 정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교과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기재들이 개발되어서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책임 있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국의 부모들은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 큰 문제는 없다고 대

답하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부모들은 한명만 빼고 11명이 의사소통이 활발하며 자녀가 숨김없이 다 얘기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반면, 중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소원해지고 있다거나 비밀이 많이 생겼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초등학생들의 부모는 대부분 자녀가 부모에게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단 한 사례만이 그렇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중에 딸이 태어났고 특히 시댁에서 남아를 선호했기 때문에 자신이 구박을 받았다고 한다. 남아선호로 인한 불만을 딸에게 다 풀다보니 서로 사이가 나빠진 것 같다는 설명이다.

또한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고 숨기기도 하면서 서먹서먹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다는 지적들도 있었다. 특히 중학생이 되면서 과거에는 애교도 떨고 하던 딸이 이제는 애정표현을 안 하고 무뎠해지는 것에 대해서 딸을 둔 아빠들이 서운해 하는 사례들도 있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사춘기의 딸들은 아버지를 향해 말수가 적어지고 친밀한 관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거리가 생겨서 의도적으로 대화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와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소곤거리는 등 대화가 지속됨으로써 아버지의 서운함을 가중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중·고등학생 딸의 아버지로부터의 거리두기’ 현상은 바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일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 또한 엿보인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부모가 보기에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비밀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대들거나 저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부모들은 이에 대해 사춘기여서 아이들이 저항적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공부에 힘든 모습 때문에 대부분 참으면서 지켜본다고 한다. 공부에

시달리면서 정서적으로도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짜증도 늘고 대들기도 하고 저항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보습학원에 다니거나 과외수업을 받기 때문에 아이가 바빠지는데다가 주말에는 식구들보다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생기면서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다보니 자연 부모와의 대화시간도 줄어들고 밖에서 생긴 일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서, 비밀이 늘고 부모가 친구나 학교에 대해 물으면 짜증을 내기도 한다. 또 부모들도 일에 바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은 것이 소원해지는 원인이라고도 설명하고 있다.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의 아빠보다 매일 더 늦게 들어간다는 엄마나 밤에 일을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므로 아이와 함께 활동을 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한부모 아빠의 사례나 모두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이어서 사근사근 얘기하지 않으므로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딸을 둔 부모는 딸이어서 비밀이 많다보니 잘 안 통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경우는 아들이거나 딸이어서 관계가 좋다는 식의 주석을 아무도 붙이지 않았다.

초등학교 부모들은 아이의 생활습관 잡아주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학교에 들어오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뚜렷해지고 시간을 보내는 패턴이 바뀌어서 그 부분에서 부모와의 마찰이나 갈등이 초래하기도 한다. 부모가 얘기한 자녀와의 구체적인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헤어스타일, 명품 밝히기, 스타에 대한 과도한 관심, 이성문제, 컴퓨터 게임 중독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가 학교에서 정해 둔 두발 규정에 대한 불만으로 머리를 기르고자 할 때 부모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라고 강요하면서 자녀와 마찰이 생긴 경우이다. 중학생인 아들은 염색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머리 길이나 모양에 대해서도 규제를 두는 것을 이해하

지 못하겠다고 투덜대곤 한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해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는 자기 헤어스타일이 싫고 애들이 모두 같은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학교가 싫다고 불만이 많다고 한다. 결국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편이어서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둘째, 아이가 커 가면서 메이크업 옷이나 가방과 신발 등을 명품으로 밝히기 시작하면서 가정 형편이 안 되는 어머니는 나무라거나 규제를 하는 경우이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고등학생 딸은 주위 친구들이 다 갖고 있는 거라고 투덜대면서 명품을 사줄 것을 요구할 때 어머니는 못 해주는 처지가 힘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야단을 치기 때문에 최근에 매일 부딪치는 갈등 현안이 되어서 자녀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셋째, 중학생인 딸이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스타에 푹 빠져서 팬클럽에 들고는 스타 얘기만 하고 온통 신경을 그쪽에 쓰고 있는 경우이다. 학교 공부도 소홀히 하더니 나중에는 친구관계도 나빠지고 집에 와서도 신경질이 늘었다고 한다. 온 식구가 힘들어져서 결국 이사를 하고 학교를 다른 곳으로 전학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넷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이성문제가 발생하면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고 아이가 너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서 통제를 가하게 되면 저항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성교제를 하는 동안 자녀는 온통 신경이 이성 친구에게 가 있어서 자연 공부에 소홀하게 되고 귀가 시간도 늦어지므로 부모와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아이에게 이성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주위 친구들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녀에게 친구관계나 이성 관계에 대한 정보를 조심스럽게 구하려고 노력한다는 부모들도 있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다섯째, 자녀가 한번 컴퓨터 게임을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해서 부모는 잔소리를 하게 되고 집에서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니까 부모를 속이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야단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모가 보기에는 게임을 적당히 조금만 하고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이가 시간 분배를 적절히 하지 못하니 야단을 치게 되고 매일 다투게 된다는 것이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2) 의존관계형성의 한국적 메카니즘

한국 부모들은 경쟁사회의 속성이나 원칙을 내면화시키고 있으며, 자녀 사회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생활습관이나 공부습관을 잘 형성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제재를 가하고 때로는 동기부여를 하는 등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자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과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경쟁사회에서의 공부 논리는 결코 성공에 대한 환상에 의해서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더 뒤쳐질 수 있다는 미래의 실패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대한 심리적 기제 또한 동일선상에서 작동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은 최고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중간 정도 아이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이라도 가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전문대학이라도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고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므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다수의 한국부모들은 자신의 지원과 노력이 자녀를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고 있다. 즉, 자녀의 성공 여부가 상당부분 부모의 노력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자녀가 학업에 열중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의 부모들은 물질적 측면에서 자녀의 의존을 당연시 하고 있다.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고 싶다고 해도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양에 있어서는 계층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용돈을 지불하고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계층을 망라한 공통적인 현상이다. 부모들은 또한 아이가 공부에 몰두하는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집안일이나 심부름도 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녀의 가사에의 참여는 가족 형편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한부모 가정에서나 맞벌이 가족에서는 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식사 챙기거나 설거지 등에 자녀의 도움을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반면, 대개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심부름조차 시키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존을 당연시하는 비대칭적 구조를 띠고 있음으로써 자녀의 독립심이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바람이나 희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실정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더라도 최소한의 심부름 정도였다. 오히려 맞벌이 가족의 경우 아이가 집에 와서 스스로 자기 밥을 챙겨먹는 것을 대견해하고,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잘 일어나는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에게 시키는 심부름의 내용은 분리수거 하는 것을 돕기, 방학 동안에 설거지시키기 정도이며, 또 심부름을 시킬 때는 심부름 값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챙기고 자신이 먹는 것을 같이 준비하고 치우는 것을 항상 돕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들이 그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공부하는 때가 정해져 있어서 그때 잘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고 때를 놓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중학생 딸을 무슨 유치원 아이 수준으로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줄 정도로 자녀의 의존성을 당연시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모도 있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아이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의존성은 나이가 들어도 지속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자녀 중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는 단 한 사례도 없었다. 부모들은 공부가 중요하니까 아르바이트는 대학에 가서나 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청소년 자녀에게 용돈을 대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아이 친구들 중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자신의 아이는 공부에 방해가 되니 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신이 어릴 적에 비해 아이들은 너무 풍요한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자녀가 이에 대해 당연시하고 오히려 더 못해주는 것에 대해 불만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이처럼 대부분의 가족에서 자녀에게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신이 자녀에게 제대로 못해준다고 느끼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느낌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처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자녀에게는 그렇게 못해주는데 대해서 커다란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은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자녀를 학원에 못 보내는 3명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33명은 모두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키고 있었다. 한 달에 초등학교생에게 2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부모도 “나는 과외비에 별로 안 쓰는데..”라고 토를 달 정도로 부모들의 사교육 열기는 대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생이 영어, 국어, 철학, 한자 등을 배우면서 월 100만원을 투자하는 사례들이 있는가 하면, 중·고등학교생의 경우에는 매월 2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사례도 3명이나 있었다. 모든 사례를 종합해 보면 3명 중 1명꼴로 매월 8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교육비에 돈을 투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층간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남지역에서도 유명 학원가가 즐비한 곳에 사는 부모들은 사교육비가 당연한 지출로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액수를 투자하면서도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너도 나도 학원에 가거나 그룹 과외를 하는 현실에도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친구 사귀기조차 힘든 현실에 있다. 따라서 그런 처지에 있는 부모들은 친구들과 사이에서 아이의 기를 살리지 못하는 것도 걱정이라고 한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학연수를 시키기도 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너무 어릴 때는 자녀를 외국에 보내고 싶지 않으며 대학에 간 이후에나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는 조기 어학연수가 필수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아주 안전한 조건으로 외국에 연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경우도 있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그러나 실제 연수를 보낸 경험이 있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자녀가 외국에서 연수한 경험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두 사례는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경우이다. 또한 어학연수 후에 기대했던 것만큼 공부나 어학 실력이 늘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별로 보지 못했거나 실패였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그러나 다수는 어학연수로 외국에 보내는 것이나 기러기가족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초등학교부터 연수를 보내야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풍토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외국에 가서도 잘 못할 수밖에 없는데 비싼 돈 들여서 보낸다는 거나 가족끼리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들기고 하였다. 특히 기러기가족의 경우 가족들이 치러야 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이유로 대부분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3) 자녀교육과 사회자본

한국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교육열은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어머니의 능력 자체가 자녀교육을 위한 문화자본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부모의 사회적 자본이나 연결망에 있어서는 계층별로나 거주 지역별로 확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남 거주 중상류층 어머니들은 비슷한 계층이면서 열의를 지닌 어머니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계층 의식을 확인하는 기제로 삼기도 한다. 유사한 계층의 어머니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들만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보다 못한 계층 집단을 배제시킴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자본을 통한 존재의식을 확인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자녀교육과 정보 수집에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취업주부들은 자녀 교육을 등한시하는 사람들로 인식되기도 한다. 정보 수집을 위해 자주 모여서 자녀교육을 논의하는 학부모들은 가정주부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미화시킴과 동시에 교육열을 통한 모성의 발현을 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맞벌이 어머니들은 자녀 학교 방문을 하기 힘든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맡기고 있었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정보수집 노력과 이에 대한 집착은 맞벌이 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여성의 커리어 쌓기 노력이 더 한층 가해지고 있는 변화된 현실과는 역행하는 현상이다.

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것이 당연시되고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경쟁적인 분위기에 쫓아가지 못하거나 지원을 못하는 부모가 느끼는 소외감은 매우 크다. 자녀를 방치해두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가 친구 없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을 부모가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학업과 관련되어서 과열된 경쟁분위기 속에서 가장 크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집단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과 저소득층 맞벌이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부모들이 자녀의 일상이나 학업에 개입을 하려고 해도 정보가 없으면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힘들다. 부모들은 다른 학부모, 친구 모임, 학원 강좌들이나 아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예상과 달리,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중·고등학교의 부모들보다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정보 얻기에 더 적극성을 띠고 있다. 중학교 이상에서는 학원이나 과외팀이 필요한 그 순간에 긴박하게 정보를 구하는 반면, 일단 학원을 정하고 나면 부모가 개입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어머니회에서 활동을 하는 부모들 중심으로 학교에서 모여서 부수적으로 정보를 나누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아이의 진로와 생활에 있어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어머니들끼리의 친목이나 팀 구성은 초등학교에서 더 잘되어 있는 편이었다. 아래의 사례에 소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일박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정보전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기도 한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또한 자녀의 친구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자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해서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경향도 있었다. 특히 학기 초에 반이 바뀔 때는 많은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매번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다. 또한 아이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직접 특강을 들으러 다니는 적극적인 어머니도 한 사례 있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그러나 엄마들이 매일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때로는 정보가 많아서 골치이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면 오히려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엄마들이 주대가 있어서 자기 자식한테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지원을 해야 할 텐데, 남이 좋다고 하는 데는 무턱대고 다 보내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휩쓸리면 한도 끝도 없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자신이 사는 동네에 비해 자신의 생활수준이 상위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정보를 구함으로써, 지역 효과보다는 계층 요인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이와 같이 정보수집이나 정보 교환에 적극성을 띠는 어머니들이 상당수 있는 반면, 한부모 가족이나 맞벌이 가족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대부분 공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학부모를 만나지도 못하고 따로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아이에게 의존하게 된다. 학원에 대해서도 다른 친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어디가 좋다고 하는지 스스로 알아오게 한 다음, 그 제한된 정보에 준해서 아이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

사실상 어머니들 사이에서의 정보교류는 활발하지만, 아버지들은 학부모 간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가 다수였다. 심지어는 아이가 현재 중학생이지만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한번 애 학교에 방문한 이후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변명이나 하듯 인터뷰에 응한 아버지들은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아버지들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어머니들은 아이의 학교에서 임원활동을 하기도 하고 급식당번, 교통정리, 녹색 어머니회 등에서 활동을 하므로 학교 선생님을 만나거나 다른 학부모를 만날 기회가 더러는 있다. 하지만 일하는 어머니들은 다른 부모를 만나서 정보를 주고받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지 않고 무난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담임선생님과 교류가 없어도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4) 가정생활만족도와 부모자녀관계

지금까지 부모들에 대한 면접조사결과를 통해서 한국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경쟁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가운데 빚어지는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부모자녀관계는 가정생활만족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단일 문항 4점 척도(매우 불만족=1, 불만족스러운 편=2, 만족스러운 편=3, 매우 만족=4)로 구성된 가정생활만족도를 국가별, 집단별로 비교해 보았다.

먼저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서울), 일본(동경), 미국(대도시), 스웨덴(스톡홀름) 청소년의 가정생활만족도의 평균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왔으며, 사후검정결과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수준에서는 스웨덴이 다른 세 나라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수준에서는 한국과 미국간의 차이도 나타났다. 즉, 스웨덴의 경우 가정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한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은 일본과는 차이가 없으나, 미국, 스웨덴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자료만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녀별, 남녀학교별,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 및 성적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생활만족도는 중학생보다 고교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생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교효과가 큰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고교생이 되면서 부모자녀관계의 갈등상황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면접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성적 최상위가 중위가보다 낮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을 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도 성적이 부모자녀관계에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우 학업성취가 청소년들의 가정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세 나라의 경우 성적별로 가정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나, 미국과 스웨덴은 성적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점을 통해서 볼 때, 수험경쟁이 심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공통점을 생각할 때, 수험경쟁이 심한 나라에서 학업성취가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5개국 면접조사결과를 통해서 보더라도 미국과 독일 자료의 분석결과 이들 나라의 청소년들은 반드시 부모와 대립 또는 갈등의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독일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는 대립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였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3장 참조).

〈표 IV-1〉 가정생활만족도

구 분	국가(조사지역)	N	평 균	표준편차	t값/F값
국가별	한국(서울)	1211	3.08	.790	9.699*
	일본(동경)	526	3.16	.768	
	미국(대도시)	872	3.18	.889	
	스웨덴(스톡홀름)	331	3.35	.812	
한국(전국)	전체	3,406	3.11	.773	-
성별	남학생	1,786	3.10	.788	-.983
	여학생	1,620	3.12	.756	
남녀학교별	남학교	452	3.10	.798	.520
	여학교	415	3.07	.751	
	남녀공학	2,540	3.11	.773	
학교급별	중학교	1,644	3.17	.794	11.196**
	일반계고	1,267	3.08	.745	
	전문계고	466	2.95	.750	
	특목고	30	3.17	.747	
성적별	상	284	3.12	.801	10.184**
	중상	780	3.17	.762	
	중	1,075	3.16	.728	
	중하	876	3.07	.779	
	하	336	2.88	.872	
지역별	대도시	1,611	3.11	.780	.697
	중소도시	1,328	3.12	.758	
	읍면지역	467	3.07	.793	

* p < 0.05 ** p < 0.01

※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자료로 서울지역자료만 사용하였으며,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급별, 성적별, 지역별 비교는 한국의 전국자료만 사용하였음.

5) 종합

한국의 부모들은 나름대로 자녀교육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가 다원화되고 좋은 교육, 좋은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강조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험경쟁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더욱이 학년이 높아갈 수록 부모들의 불안은 깊어지고 이것이 가정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한 가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부모들의 불안심리는 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갈등상황을 빚어내게 된다. 한국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정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도 이러한 부모자녀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부모의 헌신성, 이것이 한국적 수험경쟁사회에서 한국 부모들이 선택한 자녀교육의 방도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헌신성은 오히려 갈등상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2006년 조사결과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헌신성은 오히려 한국이 가장 낮았다(김현철·김은정, 2006). 결국 부모들이 투여하는 헌신적인 노력은 갈등의 재료가 될 지언정 자녀들에게는 그다지 헌신적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오히려 부모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자녀들의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부모들의 노력, 또는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자본에는 분명 계층별 격차가 드러났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교육열의 냉각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이른바 우승열패식 경쟁구도는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런 경쟁구도가 가정생활만족도, 부모자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극심한 학력경쟁이 1차적 관계인 부모자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처럼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가 상호보완적이기 보다는 대립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자녀관계가 친구관계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관계성에 강조되는 것은 ‘학력경쟁’, ‘학업성취’라는 변수이다.

2.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1) 교사와의 친밀도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사들과 얼마나 친할까? 좋아하는 선생님은 얼마나 있으며, 싫어하는 선생님은 얼마나 있을까? 교사는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 등을 총괄하여 교사와의 친밀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교사가 있는지 그리고 싫어하는 교사가 있는지 여부는 단순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 질문은 집단별 교사의 친밀한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먼저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2%,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9.1%였다. 학교에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학생은 10명 중 6명인 셈이며, 10명 중 4명은 학교에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다는 말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결과는 전문계고의 경우이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수치가 한국 학교에서의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말해준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남학교나 남녀공학보다는 여학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여학생들이 교사와 더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교별로 보자면, 일반계고등학교와 특목고는 중학교보다 높지만,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점, 성적이 좋을수록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점으로부터 학업성취에 따라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와의 친밀도가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단,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지역의 경우, 특히 소인수 학교의 경우, 교사와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읍면지역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성이라는 사회자본이 더 풍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낼 수 있다.

한국(대서울), 일본(동경), 미국(대도시), 스웨덴(스톡홀름) 청소년을 비교해 보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 58.3%, 일본 68.7%, 미국 92.1%, 스웨덴 83.6%로 미국이 가장 높고, 한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일본 보다 미국, 스웨덴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2>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교사 유무

(%)

구 분	국가(조사지역)	N	있다	없다	χ^2 값
국가별	한국(서울)	1,212	58.3	39.7	326.152**
	일본(동경)	521	68.7	30.5	
	미국(대도시)	897	92.1	7.9	
	스웨덴(스톡홀름)	366	83.6	16.4	
한국(전국)	전체	3,424	60.6	39.4	-
성별	남학생	1,797	57.6	42.4	14.309**
	여학생	1,627	63.9	36.1	
남녀학교별	남학교	448	61.2	38.8	5.774+
	여학교	421	65.8	34.2	
	남녀공학	2,553	59.7	40.3	
학교급별	중학교	1,651	61.8	38.2	53.446**
	일반계고	1,272	63.3	36.7	
	전문계고	470	47.2	52.8	
	특목고	30	93.3	6.7	
성적별	상	287	67.2	32.8	53.740**
	중상	784	68.5	31.5	
	중	1,080	59.0	41.0	
	중하	879	57.5	42.5	
	하	339	47.8	52.2	
지역별	대도시	1,622	61.2	38.8	.551
	중소도시	1,332	59.8	40.2	
	읍면지역	470	60.9	39.1	
국가별	한국	2,037	60.3	39.7	298.918**
	일본	341	69.5	30.5	
	미국	897	92.1	7.9	

+ p < 0.1 ** p < 0.01

※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자료로 서울지역자료만 사용하였으며,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급별, 성적별, 지역별 비교는 한국의 전국자료만 사용하였음.

그렇다면, 싫어하는 교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는 어떨까? 먼저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싫어하는 교사의 유무는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별, 성적별, 지역별 등 모든 변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남학교와 남녀공학보다는 여학교에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목고 역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성적별로는 상위 성적과 하위 성적의 학생이 중위 성적 학생보다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읍면지역이 더 높았다.

결국 좋아하는 교사가 있다는 것과 싫어하는 교사가 있다는 것은 서로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들은 좋아하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싫어하는 교사가 있는 비율도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도 그렇다. 여학생과 특목고 학생들은 교사에 대해 좋거나 싫거나 하는 감정이 분명한 나타난다. 이것은 교사들에 대한 기대가 크거나 또는 친밀할수록 오히려 싫어하는 교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개연성을 보여준다. 상위 성적과 하위 성적의 학생들이 중간 성적 학생들보다 싫어하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점도 유사한 경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읍면지역 학교 학생들이 싫어하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교사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싫어하는 교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는 좋아하는 교사가 더 많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싫어하는 교사가 더 많은 경향을 보여,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사와의 관계성 측면의 사회자본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서울), 일본(동경), 미국(대도시), 스웨덴(스톡홀름) 청소년을 비교해 보면, 싫어하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이 74.8%로 가장 높고, 일본이 77.6%, 미국이 72.4%, 스웨덴이 76.4%로 나타났다. 좋아하는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는 달리 싫어하는 교사의 유무에는 국가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 싫어하는 교사 유무

(%)

구 분	국가(조사지역)	N	있다	없다	χ^2 값
국가별	한국(서울)	1,131	74.8	25.2	5.269
	일본(동경)	523	77.6	22.4	
	미국(대도시)	852	72.4	27.6	
	스웨덴(스톡홀름)	360	76.4	23.6	
한국(전국)	전체	3,205	75.7	24.3	-
성별	남학생	1,656	70.0	30.0	60.076**
	여학생	1,549	81.8	18.2	
남녀학교별	남학교	420	73.8	26.2	10.637*
	여학교	403	82.1	17.9	
	남녀공학	2,382	74.9	25.1	
학교급별	중학교	1,530	72.7	27.3	16.032**
	일반계고	1,208	78.4	21.6	
	전문계고	439	77.7	22.3	
	특목고	29	89.7	10.3	
성적별	상	275	80.0	20.0	8.170+
	중상	733	76.0	24.0	
	중	996	73.2	26.8	
	중하	829	76.1	23.9	
	하	319	79.0	21.0	
지역별	대도시	1,517	76.2	23.8	5.151+
	중소도시	1,247	73.9	26.1	
	읍면지역	441	79.1	20.9	
국가별	한국	1,904	75.7	24.3	6.183*
	일본	344	78.8	21.2	
	미국	852	72.4	27.6	

+ p < 0.1 * p < 0.05 ** p < 0.01

※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자료로 서울지역자료만 사용하였으며,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급별, 성적별, 지역별 비교는 한국의 전국자료만 사용하였음.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이유에서 교사들을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것일까? 교사를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를 각각 복수응답으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 좋아하는 이유는 ‘수업이 재미있거나 유모가 있어서’(57.8%), ‘학생들을 잘 이해해 주기 때문에’(57.8%),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기 때문에’(52.3%), ‘친절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48.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싫어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차별하기 때문에’(52.6%), ‘학생들을 무시하기 때문에’(47.9%), ‘수업이 재미없고, 유머가 없기 때문에’(46.3%), ‘화를 잘 내고 무섭기 때문에’(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교사의 태도 때문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태도가 교사의 실력이나 능력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몇 가지 집단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 ‘실력이 있기 때문에’가 60.7%로 높은 응답율을 보인 점이다. 전반적으로는 태도가 더 중요시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을수록 교사의 실력을 좋아하는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의 학생들이 교사의 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결과이다. 다만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의 ‘실력’이라는 요인이 특히 중요시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다른 하나는 중학생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수업의 재미와 유머’가 중요한 이유가 되며,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잘 이해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집단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동시에 학생들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점은 미국과 스웨덴 청소년의 경우, 교사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각 항목 선택 비율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만족도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한국과 일본과 달리 ‘실력이 있기 때문에’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은 교사의 역할에 대해 정서측면의 기대가 큰 반면, 미국과 스웨덴은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지적인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수험경쟁이 더 심한 두 나라의 경우, 교사에 대한 역할기대는 지적인 측면보다도 정서적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독일의 면접조사결과에서도 독일청소년들은 교사의 가장 중요

한 역할은 가르치는 것이며, 민주적 소통이나 가치의 전달과 같은 기대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과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교사와의 친밀도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교사의 유모나 그 이유를 통해서 봤다면, 이번에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친밀도를 알아보자. 여기서 10개의 항목(4점 척도)은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과 편안하게 이야기 한다’,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을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한다’,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좋아(존경)한다’,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다정한 친구로 느껴지는 때가 있다’, ‘나는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하게 생각 한다’,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자상하고 친절하여 가까이대하기가 편하다’,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하고도 대화할 때가 있다’, ‘나는 나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이다. 위 10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Cronbach's Alpha= .908).

먼저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면, 교사와의 친밀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학교별로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높으며, 고등학교내에서는 전문계고가 낮고, 특수목적고는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적이 좋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위의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사와의 친밀도 역시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와의 친밀도를 한국(대서울), 일본(동경), 미국(대도시), 스웨덴(스톡홀름)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이 교사와의 친밀도가 가장 낮고, 미국이 가장 높으며 스웨덴과 일본은 그 중간에 위치한다.

〈표 IV-4〉 교사와의 친밀도

구 분	국가(조사지역)	N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국가별	한국(서울)	1,184	2.22	.637	94.864**
	일본(동경)	515	2.40	.675	
	미국(대도시)	829	2.70	.622	
	스웨덴(스톡홀름)	321	2.38	.517	

한국(전국)	전체	3,341	2.26	.625	—
성별	남학생	1,746	2.27	.649	.996**
	여학생	1,595	2.25	.597	
남녀학교별	남학교	440	2.22	.671	1.714
	여학교	410	2.23	.604	
	남녀공학	2,492	2.27	.620	
학교급별	중학교	1,606	2.31	.631	17.871**
	일반계고	1,253	2.23	.611	
	전문계고	452	2.12	.611	
	특목고	30	2.74	.571	
성적별	상	284	2.41	.714	18.667**
	중상	768	2.36	.564	
	중	1,051	2.26	.623	
	중하	852	2.17	.602	
	하	334	2.10	.679	
지역별	대도시	1,578	2.24	.624	3.853
	중소도시	1,307	2.29	.621	
	읍면지역	457	2.21	.632	

** p < 0.01

※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자료로 서울지역자료만 사용하였으며,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급별, 성적별, 지역별 비교는 한국의 전국자료만 사용하였음.

2) 교사에 대한 만족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 외에 교사와의 친밀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학교별로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높으며, 고등학교내에서는 전문계고가 낮고, 특수목적고는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적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국(서울), 일본(동경), 미국(대도시), 스웨덴(스톡홀름)을 비교해 보면, 교사와의 친밀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가장 낮고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만족도에서도 일본과 스웨덴은 중간에 위치한다. 결국 교사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한국이 가장 낮으며, 이것은 교사와의 친밀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되며, 이점에서 다른 친밀도 항목과 마찬가지로 한국 청소년들의

교사만족도 또는 친밀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 교사에 대한 만족도

구 분	국가(조사지역)	N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국가별	한국(서울)	1,212	2.49	.828	52.160**
	일본(동경)	525	2.65	.860	
	미국(대도시)	871	2.93	.769	
	스웨덴(스톡홀름)	332	2.79	.759	
한국(전국)	전체	3,407	2.52	.820	-
성별	남학생	1,787	2.51	.845	-.764**
	여학생	1,620	2.53	.793	
남녀학교별	남학교	452	2.51	.870	.031
	여학교	415	2.51	.784	
	남녀공학	2,541	2.52	.817	
학교급별	중학교	1,646	2.60	.833	15.569**
	일반계고	1,266	2.47	.798	
	전문계고	465	2.34	.803	
	특목고	30	2.87	.681	
성적별	상	284	2.62	.863	15.048**
	중상	781	2.62	.789	
	중	1,077	2.55	.781	
	중하	875	2.44	.827	
	하	336	2.25	.896	
지역별	대도시	1,612	2.50	.819	5.499
	중소도시	1,327	2.56	.809	
	읍면지역	469	2.42	.850	

** p < 0.01

※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자료로 서울지역자료만 사용하였으며,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급별, 성적별, 지역별 비교는 한국의 전국자료만 사용하였음.

3) 학교내 커뮤니케이션

학교내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권위적인 관계의 정도는 학교내 커뮤니케이션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꾸로 학교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는지를 통해서 학교내 권위적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학교내 커뮤니케이션의 정도를 알

아 보았다. 첫째, 교장·교감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는지이다. 교장·교감과의 대화의 기회는 일반적으로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장·교감과의 대화가 빈번히 일어나는 학교라면, 아마도 전반적인 학교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사에게 학교에 대한 건의를 직접하는가이다. 이 또한 학교내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가늠케 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셋째, 학생회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건의를 하는가이다. 이 또한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IV-6> 교장·교감과의 대화

(%)

구 분	국가(조사지역)	N	그렇지 않다	그렇다	χ^2 값
국가별	한국(서울)	1,198	86.5	13.5	80.313**
	일본(동경)	525	73.1	26.9	
	미국(대도시)	889	86.1	13.9	
	스웨덴(스톡홀름)	311	94.2	5.8	
한국(전국)	전체	3,374	84.1	15.9	—
성별	남학생	1,762	85.3	14.7	3.889**
	여학생	1,612	82.8	17.2	
남녀학교별	남학교	443	86.7	13.3	2.527
	여학교	416	83.9	16.1	
	남녀공학	2,515	83.7	16.3	
학교급별	중학교	1,626	84.6	15.4	7.446
	일반계고	1,263	83.7	16.3	
	전문계고	456	84.9	15.1	
	특목고	30	66.7	33.3	
성적별	상	286	74.8	25.2	36.023**
	중상	774	80.6	19.4	
	중	1,063	85.7	14.3	
	중하	863	87.5	12.5	
	하	335	86.3	13.7	
지역별	대도시	1,593	85.5	14.5	13.524**
	중소도시	1,316	84.4	15.6	
	읍면지역	464	78.4	21.6	

** p < 0.01

※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자료로 서울지역자료만 사용하였으며,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급별, 성적별, 지역별 비교는 한국의 전국자료만 사용하였음.

교장·교감과의 대화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한국 학생의 84.1%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가 56.3%로 많았다. 그 만큼 교장·교감과의 대화는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 학교별로는 특목고가,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는 읍면지역이 교장·교감과 대화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러한 집단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교장·교감과의 대화의 빈도는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전반적인 학교 내 커뮤니케이션의 정도를 가늠하게 해 준다.

그러나 한국(서울), 일본(동경), 미국(대도시), 스웨덴(스톡홀름)을 비교해 본 결과, 교장·교감과의 대화 경험은 스웨덴이 가장 낮고 일본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외국의 경우에도 교장·교감과의 대화경험은 적을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일을 건의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 이러한 경험 역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24.4%만이 교사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일을 건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여학교보다는 남학교나 남녀공학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중에서는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보다 특목고가 교사를 통해서 건의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교사를 통해서 학교 일에 대해 건의한 경험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일을 건의한 경험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이 24.8%, 일본이 36.2%, 미국이 33.5%, 스웨덴이 34.5%로 한국이 가장 적고 일본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7> 교사에게 의견을 말함

(%)

구 분	국가(조사지역)	N	그렇지 않다	그렇다	χ^2 값
국가별	한국(서울)	1,208	75.2	24.8	33.128**
	일본(동경)	525	63.8	36.2	
	미국(대도시)	878	66.5	33.5	
	스웨덴(스톡홀름)	345	65.5	34.5	

한국(전국)		전체	3,404	75.6	24.4	—
성별	남학생	1,779	72.8	27.2	14.800**	
	여학생	1,625	78.5	21.5		
남녀학교별	남학교	451	72.3	27.7	9.343*	
	여학교	420	81.0	19.0		
	남녀공학	2,533	75.3	24.7		
학교급별	중학교	1,639	72.6	27.4	14.973**	
	일반계고	1,276	78.3	21.7		
	전문계고	459	78.4	21.6		
	특목고	30	76.7	23.3		
성적별	상	287	65.5	34.5	35.734**	
	중상	782	71.4	28.6		
	중	1,078	77.0	23.0		
	중하	872	80.2	19.8		
	하	335	78.2	21.8		
지역별	대도시	1,612	74.9	25.1	.777	
	중소도시	1,333	75.9	24.1		
	읍면지역	460	76.7	23.3		

* $p < 0.05$ ** $p < 0.01$

※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자료로 서울지역자료만 사용하였으며,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급별, 성적별, 지역별 비교는 한국의 전국자료만 사용하였음.

한국 학생들의 경우 학생회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일을 건의한 경험은 교사를 통한 경험보다도 더 적게 나타났다. 학생회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일을 건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2%에 불과하다. 집단별로 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보다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학생회를 통해 건의한 경험이 더 많았다. 학교별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았으나, 특목고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보다 크게 높아 36.7%나 됐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다. 특목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회를 통한 학교 또는 교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학생회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일을 건의한 경험은 한국(서울)이 15.9%, 일본(동경)이 9.2%, 미국(대도시)이 22.8%, 스웨덴(스톡홀름)이 39.2%로 스웨덴이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일본에 비해 미국과 스웨덴이 학생회를 통해 건의한 경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미국과 스웨덴은 교사 또는 학생회를 통해서 건의한 경험이 한국보다 높게 나왔고, 일본은 교사를 통해서 건의한 경험이 가장 많으나 학생회를 통한 건의는 가장 낮게 나오는 특이점을 보였다. 면접조사결과 일본 학생들은 눈에 띄는 행동, 특히 리더역에 대한 기피현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학생회를 통해 건의한 경험의 저조함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8> 학생회를 통한 건의

(%)

구 분	국가(조사지역)	N	그렇지 않다	그렇다	χ^2 값
국가별	한국(서울)	1,209	84.0	16.0	136.903**
	일본(동경)	526	80.9	8.1	
	미국(대도시)	877	77.2	22.8	
	스웨덴(스톡홀름)	347	60.8	39.2	
한국(전국)	전체	3,403	84.8	15.2	-
성별	남학생	1,777	81.6	18.4	29.142**
	여학생	1,626	88.3	11.7	
남녀학교별	남학교	451	84.7	15.3	.195
	여학교	420	85.5	14.5	
	남녀공학	2,533	84.6	15.4	
학교급별	중학교	1,639	84.1	15.9	12.911**
	일반계고	1,276	86.1	13.9	
	전문계고	459	85.0	15.0	
	특목고	30	63.3	36.7	
성적별	상	287	74.2	25.8	35.966**
	중상	781	82.8	17.2	
	중	1,078	86.3	13.7	
	중하	874	87.1	12.9	
	하	335	88.4	11.6	
지역별	대도시	1,613	84.2	15.8	4.691*
	중소도시	1,331	86.3	13.7	
	읍면지역	460	82.4	17.6	

* p < 0.05 ** p < 0.01

※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자료로 서울지역자료만 사용하였으며,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급별, 성적별, 지역별 비교는 한국의 전국자료만 사용하였음.

4) 학교생활만족도

지금까지 살펴 본 교사와의 친밀도와 학교내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교별로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높으며, 고등학교내에서는 전문계고가 낮고, 특수목적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도는 교사와의 친밀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학교생활만족도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과 일본보다 미국과 스웨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 미국과 스웨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은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V-9> 학교생활 만족도

구 분	국가(조사지역)	N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국가별	한국(서울)	1,213	2.78	.818	21.941**
	일본(동경)	525	2.83	.915	
	미국(대도시)	874	3.04	.780	
	스웨덴(스톡홀름)	334	3.04	.766	
한국(전국)	전체	3,408	2.75	.794	-
성별	남학생	1,789	2.73	.833	-1.489**
	여학생	1,619	2.77	.747	
남녀학교별	남학교	452	2.70	.838	1.059
	여학교	415	2.78	.696	
	남녀공학	2,541	2.75	.801	
학교급별	중학교	1,645	2.83	.803	21.892**
	일반계고	1,267	2.70	.754	
	전문계고	466	2.55	.815	
	특목고	30	3.23	.774	
성적별	상	284	2.89	.852	29.952**
	중상	780	2.89	.740	
	중	1,077	2.74	.767	
	중하	875	2.72	.770	
	하	338	2.36	.883	

지역별	대도시	1,613	2.74	.814	.196
	중소도시	1,326	2.76	.775	
	읍면지역	469	2.73	.777	
국가별	한국	2,030	2.76	.815	37.712**
	일본	345	2.77	.920	
	미국	874	3.04	.780	

** p < 0.01

※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자료로 서울지역자료만 사용하였으며,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급별, 성적별, 지역별 비교는 한국의 전국자료만 사용하였음.

이상의 결과는 학교생활만족도에 교사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을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 각각에 대한 만족도간 상관계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생활만족도는 친구관계 만족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이 있지만, 특히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 교사들의 비중이 얼마나 큰를 보여준다.

<표 IV-10>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간 상관(한국)

	학교생활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1	-	-
친구관계만족도	.407**(.447**)	1	-
교사에 대한 만족도	.480**(.493**)	.169**(.195**)	1

** p < 0.01

주 ; ()안은 서울의 경우

<표 IV-11>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간 상관(일본: 동경)

	학교생활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1	-	-
친구관계만족도	.507**	1	-
교사에 대한 만족도	.495**	.239**	1

** p < 0.01

<표 IV-12>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간 상관(미국: 대도시)

	학교생활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1	-	-
친구관계만족도	.406**	1	-
교사에 대한 만족도	.481**	.331**	1

** p < 0.01

<표 IV-13>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간 상관(스웨덴:스톡홀름)

	학교생활만족도	친구관계만족도	교사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1	-	-
친구관계만족도	.460**	1	-
교사에 대한 만족도	.516**	.328**	1

** p < 0.01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에 대한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각국 비교를 통해서 보면, 각국 청소년 모두 학교생활만족도는 친구관계만족도 보다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사회화 주체로서의 교사의 정체성

여기서는 한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로부터 교사들이 사회화 주체로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교사들이 학부모와 학생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일본과 독일 면접조사 결과로부터 사회화 주체로서의 교사의 지위가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한국 교사들의 정체성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소명의식의 약화이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관해 질문한 결과 기존 통념이라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일을 천직(天職)으로 생각하는 소명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그보다는 소박하게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피력하긴 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 상황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났다.

먼저 교사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해본 결과, 대부분의 교사가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변명과 더불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건대 현재 교사의 역할이 도구화되고 있다는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당위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4장 참조).

또한 교사의 이상형 변화도 눈에 띄었다.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여전히 강력하게 느끼면서, 학생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교사”를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대상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향한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4장 참조).

직업으로서의 교직에 대한 만족감도 관찰되었다. 교사의 소명감이나 사명 의식과는 별도로 교사 임용과정의 어려움을 뚫고 교사가 되었다는데 대한 자긍심(pride)을 표현하거나, “안정된 직장(decent job)”으로서 최근의 교사직 인기를 반영하여 직업으로서의 교사에 비교적 만족스러움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4장 참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의 정체성 안에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에 대한 회의와 교직으로서 안정성에 대한 만족감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현저히 높아지면서 직업으로서의 교사는 타인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으로 화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젊은 여성교사들의 경우, ‘결혼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자 후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레 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분위기를 전하는 교사도 있었다. 다만 타인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진 교사를 보면서 학생들이 교사를 자신의 “역할모델”로 설정하는지 자체는 불분명하다.

반면, 교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회의를 보이는 교사들도 많았다. 교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교사는 전문직인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을 들어 회의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났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각종 회의, 성적관리 등 다양한 잡무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이 자주 등장하였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4장 참조).

교사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함에 있어 사회화의 주체자(agency) 기능에 대해서는 일단 회의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회화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거니와,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교사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교사로서 교실에서 학생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은 스스로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훌륭한 교사인지에 대한 평가는 상대 학생들로부터 가능한 것인데,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훌륭한 교사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자기비판과 더불어, 동일한 수업을 서너 차례 반복하다 보면 타성에 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대한 반성, 선행학습으로 인해 이제는 교사가 교실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자조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4장 참조).

교사의 무력감도 자주 관찰되었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하에서,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현실 앞에서, 교사들은 자신들이 허위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자괴감과 현실의 부정적 요소를 교정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선생님 말씀이 학생들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와 같은 추상적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교사 중엔 매우 솔직하게 ‘나는 학생들에

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교사의 위상이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토로하였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4장 참조).

교사에 무관심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요즘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관심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음이 교사의 진술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교사에 대한 무관심은 반항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적 상황으로서, 교사로 대변되는 성인 세대 전체를 향한 불신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왔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4장 참조).

교사의 영향력 한계에 대한 회의도 보였다. 교사가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는 초등학교 정도일 것이라는 폭탄선언도 나왔다. 물론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1차 사회화가 끝나면 2차 사회가 이어지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탈사회화와 재사회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교사들이 판단하기에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사회화의 중심적 기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도 않거니와, 교사의 존재가 자신들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교직은 선망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교실에서 만나는 교사는 학생들의 미래 역할모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준거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4장 참조).

교사의 좌절도 관찰되는 대목이다. 사회화의 주체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더하여 현실에서 교사들을 압박하는 요인 가운데는 교사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곧 능력을 인정받은 교사는 거액의 연봉에다 과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학원가로 흡수되는 현실 앞에서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는 교사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매우 치명적인 듯 하다. 이 현실에 대한 분노를 정당하게 분출할 기회조차 차단되어 있기에 교사들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더욱 초라해짐을 경험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4장 참조).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교사가 선의의 피해자로 부상하는 가운데 심한 좌절을 경험했던 한 교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교사가 경험한 사례는 향후 정보통신환경이 확대되면서 각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 사례에서, 이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off-line을 넘어 on-line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on-line에서의 교사 학생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성 보장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은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특히 여초 현상이 심각한 교사 조직에서 여교사-남학생 관계의 바람직한 구도 정립 또한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4장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보람을 느끼는 경험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다만 이 경험이 교사로서의 긍지나 자부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제 다시는 그런 보람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는 자괴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공존한다.

이상의 사례로부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인 즉, 가르친 학생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겪었거나 역시 작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발전을 도모한 경우이다. 특히 교사 본연의 자리에서 학습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학생을 지도했던 열정이 보답을 받았을 때, 부모로부터도 소외된 학생들이나 학업 부진 학생들에게 정성을 기울임으로써 정서적 치유와 더불어 학업성취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학생들을 향한 열정이 교직 이수 기간이 늘어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쳐 계속 감소 내지 완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진정한 역할이 학생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면, 교사

의 자아 보람을 넘어 사회화 기능이 입시 교육 기능에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학부모 관계로 인한 긴장도 자주 언급된다. 사회화의 주체자로서 교사 역할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학부모 특히 엄마의 통제력 강화가 자리하고 있다. 교사들은 과거 교권에 해당되는 영역에 적극 개입하는 ‘극성 엄마’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학부모로 인한 긴장과 갈등이 커지면서 교사들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가을 TV에서 [강남 엄마 따라잡기]란 드라마가 주목을 끌고 있던 당시였기에, 드라마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교사로서 학부모와의 관계를 질문해본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공통적으로 교사-학생 관계보다 교사-학부모 관계가 더욱 어렵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4장 참조).

최근 학부모의 교육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학부모의 교육 현장 개입이 보다 노골화되고 있음이 눈에 띈다.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배경으로는 학부모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점, 더불어 학부모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점, 학부모들이 자녀 성적을 막강한 파워로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다.

학부모 유형을 이분화하자면 자녀교육에 매우 열성적인 경우와 지나치게 방임적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한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열성 엄마’나 ‘방임 엄마’ 모두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은 역설이다. 교사들 입장에서도 교사-학부모 관계에서 교사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파워를 행사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엄마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현실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교사들은 ‘열성 엄마’든 ‘방임 엄마’든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된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4장 참조).

한편,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삼각관계 속엔 다양한 갈등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학생이 성적이 좋은 경우 성격도 무난하여 별다른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교 성적을 통해 무소불위의 과위를 행사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가장 갈등이 적은 경우는 학생이 공부를 잘 할 때이다.

학업 성적이 부진한 경우는 엄마가 지나치게 아이를 방임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학생 스스로가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란 속담은 특별히 교사의 입장에서선 금과옥조로 삼아도 좋을 만큼 많은 진실을 담고 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4장 참조).

“촌지”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교사들이 많았다. 교사에게 “촌지”는 여전히 미묘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교사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다루는 묘안을 마련해가고 있는 듯 하다. 다만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열의 내용과 정도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서는 교사 입장에서 분명한 비판의식을 견지하고 있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4장 참조).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교사 입장에서는 학교에서의 사회화 못지 않게 가정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사회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교사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가르치기엔 너무 늦은 “기본적 사항”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발달과업이 정당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4장 참조).

이상에서 사회화의 주체자로서 교사 역할의 의미와 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사명감 및 소명의식의 쇠퇴를 경험하면서 교사로서의 정

체성과 관련해서는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로서의 사명감과는 별도로 직업으로서의 교사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었다. 직업 만족의 배경으로는 교사 입문 과정의 치열한 경쟁, 교사 직업의 안정성, 직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등이 열거되었다.

셋째, 한국사회 특유의 교육열 및 사교육 시장의 팽창으로 인한 교사-학부모 관계의 갈등이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갈등 정도 또한 심화되고 있음이 생생히 드러났다.

넷째, 교실 붕괴로 인한 교사의 고유 기능에 대한 자괴감이 증가하고 있고, 교사 집단 내 세대 간 갈등 및 충돌의 일단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 개개인의 배경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도출해본다면, 세대별로 교사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상당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음이 밝혀졌다. 기성세대 교사의 경우는 여전히 교사의 사명감 약화를 아쉬워하고 있었으나 신세대 교사의 경우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사상을 보다 강조한다.

다섯째,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곳일수록 학부모의 교육열 또한 낮아져 자녀들을 방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교사의 헌신적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사회화 주체로서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반면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은 곳일수록 교사와 학부모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학부모가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의 권위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하여,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위상 정립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종합

교사와의 관계(친밀도, 만족도), 학교에서의 의사소통, 학교생활만족도 등을 총괄해서 학교내 자본 또는 자산(또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원에는 고교 수준에서는 전문계고-일반계고-특수목적고라는 서열과 성적별 서열이 확연히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자원부족과 특수목적고의 자원풍족이라는 구조가 나타났다. 이 점은 한국 학생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5장 참조). 면접조사에서 비교된 자립형 사립고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격차는 설문조사 결과 이상의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성적별로도 나타났다. 즉 성적이 좋을 수록 학교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자원결핍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4개국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한국 청소년들은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체로 한국, 일본 대 미국, 스웨덴의 대조가 눈에 띄나, 한국 청소년은 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교사들의 무력감은 교사들의 사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환경요인으로서도 크게 작용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나라에서 학교생활만족도가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무력감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일본의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는 큰 문제를 안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물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비교에는 문제가 있다. 다만, 일부 청소년대상 면접조사결과에 교사에 대한 위상이 비취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교사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거나 감정적 지지를 요구받지도 않는다. 이것은 독일교사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봉준다. 이로부터 독일교사들의 정체성의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의 교사들보다는 덜 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은 달리말해 교사에 대한 기대가 직업인으로서의 기대라는 일면적 잣대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특히 한국의 교사들은,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서적 지지자로서 더 기대된다. 아마도 가르치는 기술에 대한 기대가 적은 것은 사교육시장의 발달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앞서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이다. 수험경쟁이 극심하고, 또 사교육시장이 발달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교사에 대해 가르치는 전문인으로서가 아닌 정서적 지지자로서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두 나라의 교사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회의를 더 많이 품고 있다. 결국 학력경쟁의 영향력이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를 피폐화시키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3.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에 이어 친구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친구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국가별 차이가 있는지, 친구관계에 있어서 양적 질적 차이가 있는지, 친구관계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자녀간 의식 차이는 있는지,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지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친구관계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친구수

한국의 청소년들은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을까? 친구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2007년 조사에서는 먼저 가장 친한 친구 4명을 고르게 한 후 4명의 친구 각각에 대해 친구관계를 물은 후, 4명 이외의 친한 친구수를 1명에서 15명이상까지의 선택지 중 고르게 하였다. 엄밀히 말해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부터는 정확한 친구수를 계산할 수 없다. 다만, 집단별 비교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친한 친구수의 전체평균은 13.3명이다. 남녀별로는 남학생이 14.3명, 여학생이 12.2명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친한 친구수가 더 많을 것을 알 수 있다. 친한 친구수는 남녀학교별로는 남학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남녀공학, 여학교 순으로 여기서도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가 공학여부에 따른 학교별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친한 친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친한 친구가 가장 많으며,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가 친구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학교특성이 친구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적과의 관련성도 드러난다. 즉, 성적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수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친구수가 더 많았으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가 친구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역별로 친구관계의 폭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친구관계의 폭은 학업성취와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친구관계의 폭은 지역과 학업성취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친한 친구수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서울) 13.3명, 일본(동경) 14.3명, 미국 12.4명, 스웨덴(스톡홀름) 16.7명으로 스웨덴이 가장 많고 미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스웨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친구수가 많지만, 다른 나라들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다만, 이러한 양적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친한 친구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국가간 비교에서 의미있는 것은 친구수가 일본과 스웨덴의 경우 성적과 무관하며, 한국과 미국은 성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성적이 좋을수록 친구가 많은 반면 미국은 성적이 낮을수록 친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미국의 경우는 최하위 성적인 경우에 친구수가 많을 뿐 다른 성적별 그룹간 차이는 없었다. 반면, 한국은 크게 상하 그룹간의 차이로 나타나, 결국 한국의 경우에만 성적이 전반적으로 친구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친구관계 형성에 성적이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성적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5장 참조). 이러한 점으로부터 단언하기는 힘들으나 학업성취가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뿐이라는 가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IV-14> 친한 친구수

구 분	국가(조사지역)	N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국가별	한국(서울)	1,104	13.3	5.10	61.955**
	일본(동경)	512	14.3	4.89	
	미국(대도시)	854	12.4	5.52	
	스웨덴(스톡홀름)	357	16.7	4.56	
한국(전국)	전체	3,112	13.3	5.18	-
성별	남학생	1,599	14.3	5.17	11.870**
	여학생	1,513	12.2	4.95	
남녀학교별	남학교	391	14.5	5.13	17.532**
	여학교	393	12.4	5.14	
	남녀공학	2,327	13.2	5.16	
학교급별	중학교	1,524	13.8	5.11	15.050**
	일반계고	1,133	13.0	5.17	
	전문계고	429	12.1	5.16	
	특목고	26	12.9	5.57	
성적별	상	265	14.2	5.16	2.949*
	중상	730	13.4	5.12	
	중	978	13.2	5.05	
	중하	794	13.2	5.27	
	하	298	12.9	5.48	
지역별	대도시	1,478	13.6	5.14	11.334**
	중소도시	1,206	13.2	5.09	
	읍면지역	428	12.3	5.43	

* p < 0.05 ** p < 0.01

※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자료로 서울지역자료만 사용하였으며,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급별, 성적별, 지역별 비교는 한국의 전국자료만 사용하였음.

2) 미디어와 친구관계

한국 청소년의 경우 미디어의 사용은 친구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06년 조사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외국 청소년들에 비해 핸드폰 문자 사용이 현격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철·김은정 외, 2006). 2007년 설문 조사에서는 온라인 상으로만 만나는 친구의 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 역시 친구수와 같은 방식으로 물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추정할 수 없으나 온라인 상 친구수를 집단별로 비교하는 데는 유용하다. 단, 질문에서는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만 만나는 친구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이 친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친구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상의 친구 중에는 과거에 사귀던 친구 중 어떠한 이유에서 서로 만날 기회가 없어진 친구의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는 면접조사 사례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한국 청소년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약간 넘는 51.6%가 온라인 상의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적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미디어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해 준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서울)이 49.3%, 일본(동경)이 21.8%, 미국(대도시)이 42.6%, 스웨덴(스톡홀름)이 68.5%로 친구수가 제일 많은 스웨덴이 온라인상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왔다. 한국과 미국은 스웨덴보다는 적지만 일본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국의 면접조사결과 온라인상의 관계는 오프라인과 별개의 관계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보인다.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만 만나는 친구수는 각국 모두 7~8명 정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미디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만나기 어렵거나 친구관계를 유지하거나 만나지 않고도 친구로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국 면접조사에서 기숙형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과거의 친구들과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온라인 상 친구의 유무를 한국 학생들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남녀별, 남녀 학교별, 지역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특목고의 경우가 20.0%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반계 고등학교가 49.8%, 중학교가 52.0%였으며, 전문계 고등학교가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최상위 성적군을 제외하고는 성적이 낮을수록 온라인 상의 친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가설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상 친구수가 학업성취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것은 미디어 사용정도가 학업성취와의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상의 친구가 있다고 한 응답자의 온라인 상의 친구수는 평균 7.4명으로 나타났다(국가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한국 7.73명, 일본 7.05명, 미국 6.75명, 스웨덴 7.67명으로 대략 7~8명 정도 온라인상 친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온라인 상의 친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학교별로는 남녀공학이 가장 많고, 여학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의 친구는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많고,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낮고, 특목고는 2.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상 친구수는 학교간 차이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읍면지역보다 도시, 특히 대도시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온라인 상의 친구수

구 분	국가(조사지역)	N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국가별	한국(서울)	592	7.73	5.504	2.885**
	일본(수동경)	114	7.05	5.391	
	미국(대도시)	380	6.75	5.516	
	스웨덴(스톡홀름)	255	7.67	5.466	
한국(전국)	전체	1,742	7.40	5.430	-
성별	남학생	910	7.97	5.504	4.638**
	여학생	832	6.77	5.280	
남녀학교별	남학교	222	7.03	5.342	3.858**
	여학교	216	6.58	5.328	
	남녀공학	1,304	7.60	5.449	
학교급별	중학교	849	7.77	5.436	4.756**
	일반계고	620	6.93	5.387	

	전문계고	267	7.42	5.446	
	특목고	6	2.17	1.169	
성적별	상	154	7.95	5.453	1.612
	중상	375	7.39	5.520	
	중	530	7.00	5.323	
	중하	470	7.48	5.375	
	하	185	7.95	5.618	
지역별	대도시	804	7.76	5.551	3.346**
	중소도시	695	7.12	5.332	
	읍면지역	243	7.00	5.248	

** p < 0.01

※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자료로 서울지역자료만 사용하였으며,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급별, 성적별, 지역별 비교는 한국의 전국자료만 사용하였음.

각국의 면접조사결과 미디어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며, 부정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사회세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상의 친구관계는 오프라인 친구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 면접조사결과로부터는 온라인 상의 관계는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7장 참조).

3) 이성교제와 이성친구

그렇다면, 친한 친구 중 이성친구는 얼마나 될까? 2007년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4명의 친구 중 이성친구가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다. 따라서 이성친구의 비율(r)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r = k / N$$

(단, k는 4명의 친구 중 이성의 친구수, N은 1~4의 범위를 갖는 친한 친구수)

따라서 1.00은 4명까지 선택한 친구 모두가 이성의 친구인 경우이고, 0.00인 경우는 모두 동성의 친구인 경우가 된다. <표 IV-11>에 제시된 평균값은 r의 평균값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이 성별, 남녀학교별, 성적별로는 차이가 없으나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이성친구의 비율이 높으며, 읍면지역보다는 도시 특히 대도시가 이성친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은 4명의 친한 친구중 이성친구 비율이 매우 낮으며, 미국과 스웨덴은 절반 이상이 이성친구일 정도로 그 비율이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국과 스웨덴은 이성친구를 비록 이성교제가 매우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과 스웨덴의 면접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6장, 제9장 참조). 반면, 한국은 이성교제는 부모와의 갈등의 소지가 되며, 이러한 분위기가 낮은 이성친구 비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부모들의 경우 이성교제는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세부과제 보고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 비교」 제2장, 제3장 참조),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경우 이성간 교제에 대한 보수적 의식이 여전히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6> 이성친구 비율

구 분	국가(조사지역)	N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국가별	한국(서울)	1,228	.09	.234	2305.194**
	일본(동경)	520	.05	.147	
	미국(대도시)	901	.75	.254	
	스웨덴(스톡홀름)	388	.86	.248	
한국(전국)	전체	3,293	.05	.136	-
성별	남학생	1,691	.05	.136	-133
	여학생	1,603	.05	.137	
남녀학교별	남학교	421	.05	.144	.390
	여학교	417	.04	.108	
	남녀공학	2,456	.05	.139	
학교급별	중학교	1,623	.04	.125	8.129**
	일반계고	1,192	.06	.143	

	전문계고	450	.06	.150	
	특목고	28	.12	.169	
성적별	상	280	.06	.176	.998
	중상	765	.05	.140	
	중	1,030	.05	.131	
	중하	846	.05	.130	
	하	321	.05	.125	
지역별	대도시	1,561	.06	.153	6.570**
	중소도시	1,284	.04	.127	
	읍면지역	448	.03	.091	

** p < 0.01

※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자료로 서울지역자료만 사용하였으며,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급별, 성적별, 지역별 비교는 한국의 전국자료만 사용하였음.

4) 친구밀도와 친구관계

친구수가 친구관계의 양적인 특성을 말해준다면, 친구관계의 질을 설명할 변수로서는 친구관계의 밀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밀도(density)란 네트워크 이론상의 밀도로 본 조사에서는 친구관계의 밀도변수를 4명의 친구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표 IV-17 참조).

친한 친구가 4명인 경우는 최대 6개의 관계가 성립된다. 질문 문항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관계는 세 가지 종류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즉, ‘잘 모르는 사이’, ‘알고 지내는 사이’, ‘친한 사이’등 세 가지 관계이다. 이것은 달리 관계의 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친구관계의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각각의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즉, 잘 모르는 사이인 경우에는 ‘0’,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경우에는 ‘0.5’, 친한 사이인 경우에는 ‘1’을 부여하였다.

<표 IV-17> 친한 친구 간 관계를 묻는 질문
「A~D는 서로 어떤 사이입니까?」

	잘 모르는 사이	알고 지내는 사이	친한 사이
(1) A와 B	①	②	③
(2) A와 C	①	②	③
(3) A와 D	①	②	③
(4) B와 C	①	②	③
(5) B와 D	①	②	③
(6) C와 D	①	②	③

친구관계의 밀도는 네트워크 이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하였다(Scott, 2002).

$$density = \frac{k1+k2*0.5}{n(n-1)/2}$$

(0~1)

k1 = 친한 사이인 친구수

k2 = 알고 지내는 사이인 친구수

n = 친한 친구수(0~4)

단, n = 0 또는 n = 1인 경우는 제외함.

밀도값은 0~1의 값을 갖는다. 친한 친구 모두 서로 친한 사이이면 밀도는 '1'이고 되고 모두 모르는 사이이면, 밀도는 '0'이 된다. 네트워크 이론에서 이론적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밀도가 높고 낮은 집단이 갖는 특성에 관한 것이다. 즉, 밀도가 높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그라노베터(1973)의 연구에 따르면, 밀도가 높은 집단은 폐쇄적인 집단으로 설명되며, 밀도가 낮은 집단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반면, 밀도가 높은 집단은 상호간의 지지가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런데 2007년도 조사에서 조사된 4명간의 친구관계를 놓고 밀도가 높을 경우 폐쇄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우리가 따른다. <표 IV-18>에서 알 수 있듯이 친한 친구수나 온라인상의 친구수와 친구관계밀도의 상관은 없거나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친

구관계밀도는 친구수와는 무관한 변수인 셈이다. 또한 반대로 친구관계 밀도가 높다고 해서 친구수가 적다든가하는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점은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모두 공통된 특징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밀도가 높은 집단이 더 폐쇄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폐쇄적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친구수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하지만, 4명의 관계만으로도 폐쇄성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친구관계의 밀도는 사회적 지지 기반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밀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기반이 더 강하다는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표 IV-18> 온라인 상의 친구수, 친한 친구수, 친구관계밀도 간 상관

	온라인상 친구수	친한 친구수	친구관계 밀도
온라인상 친구수	1	-	-
친한 친구수	.238**(.268**)	1	-
친구관계 밀도	.031(.089**)	.099**(.114**)	1

** p < 0.01

주 : ()는 한국(서울)의 경우

<표 IV-19> 온라인 상의 친구수, 친한 친구수, 친구관계밀도 간 상관(일본 : 동경)

	온라인상 친구수	친한 친구수	친구관계 밀도
온라인상 친구수	1	-	-
친한 친구수	.041	1	-
친구관계 밀도	-.006	.043	1

** p < 0.01

<표 IV-20> 온라인 상의 친구수, 친한 친구수, 친구관계밀도 간 상관(미국 : 대도시)

	온라인상 친구수	친한 친구수	친구관계 밀도
온라인상 친구수	1	-	-
친한 친구수	.193**	1	-
친구관계 밀도	-.025	.029	1

** p < 0.01

<표 IV-21> 온라인 상의 친구수, 친한 친구수, 친구관계밀도 간 상관
(스웨덴 : 스톡홀름)

	온라인상 친구수	친한 친구수	친구관계 밀도
온라인상 친구수	1	-	-
친한 친구수	.169**	1	-
친구관계 밀도	-.134*	.101	1

** p < 0.01

<표 IV-22>은 한국 청소년들의 밀도값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30.3%가 밀도가 '1'인 친구관계에 있다. 즉, 3명 중 거의 한 명이 친구관계 밀도가 '1'이다. 또한 .50 이상인 경우는 66.9%이다.

<표 IV-22> 친구관계 밀도의 빈도

밀도	빈도	%
.00	465	13.5
.08	38	1.1
.17	101	2.9
.25	153	4.5
.33	227	6.6
.42	156	4.5
.50	457	13.3
.58	168	4.9
.67	189	5.5
.75	231	6.7
.83	148	4.3
.92	72	2.1
1.00	1,044	30.3
합계	3,449	100.0

친구관계 밀도의 빈도분포를 한국(대도시), 일본(동경), 미국(대도시), 스웨덴(스톡홀름)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밀도가 .50 이상인 경우가 각각 62.3%, 73.0%, 61.9%, 43.7%로 일본이 가장 많고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분포를 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두드러지게 낮다. 또한 밀도가 1인 사례수를 보면, 한국 27.6%, 일본 30.9%, 미국 11.0%, 스웨덴 2.7%로 이 경우는 한국과 일본

에 비해 미국과 스웨덴이 낮고 특히 스웨덴이 현저히 낮을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3> 친구관계 밀도의 빈도(각국비교)

밀도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00	183	14.9	53	10.3	79	10.2	91	23.4
.08	11	.9	3	.6	14	1.8	7	1.8
.17	54	4.4	9	1.8	25	3.2	10	2.6
.25	62	5.0	17	3.3	41	5.3	25	6.4
.33	89	7.2	35	6.8	77	9.9	29	7.5
.42	63	5.1	21	4.1	59	7.6	8	2.1
.50	153	12.5	80	15.6	122	15.7	49	12.6
.58	74	6.0	28	5.4	94	12.1	21	5.4
.67	74	6.0	30	5.8	67	8.6	25	6.4
.75	64	5.2	35	6.8	57	7.3	23	5.9
.83	47	3.8	47	5.6	34	4.4	14	3.6
.92	15	1.2	15	2.9	22	2.8	9	2.3
1.00	339	27.6	159	30.9	85	11.0	78	20.1
합계	1228	100.0	514	100.0	776	100.0	389	100.0

이번에는 한국 청소년들의 친구관계 밀도를 집단별로 비교해 보자. 한국 청소년들의 친구관계 밀도 평균값은 .60이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으며, 또한 남녀학교별로는 남녀공학이 가장 높고, 여학교가 가장 낮게 나왔다. 이것 또한 성별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추측된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일반계와 특목고가 낮다. 성적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체로 성적이 낮을수록 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보다는 읍면지역의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밀도 역시 전반적으로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학업성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 예를 들면, 특목고 또는 전문계고에 대한 일반계고, 성적 상위그룹, 도시의 청소년들이 친구관계 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이론에서의 논쟁에서처럼 이러한 집단이 보다 덜 폐쇄적이라고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사회심리적 지지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에 학업성취가 밀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 즉 학업성취 중심의 생활이 사회적 지지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밀도의 차이가 갖는 의미는 다른 친구관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표 IV-24〉 친구관계의 밀도

구 분	국가(조사지역)	N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국가별	한국(서울)	1,228	.56	.355	17.675**
	일본동경	514	.63	.332	
	미국(대도시)	776	.52	.289	
	스웨덴(스톡홀름)	389	.49	.367	
한국(전국)	전체	3,449	.60	.353	-
성별	남학생	1,811	.59	.368	-9.972**
	여학생	1,638	.60	.335	
남녀학교별	남학교	455	.55	.362	9.871**
	여학교	426	.55	.327	
	남녀공학	2,568	.61	.355	
학교급별	중학교	1,659	.64	.333	24.635**
	일반계고	1,289	.53	.360	
	전문계고	471	.62	.376	
	특목고	30	.49	.344	
성적별	상	290	.58	.345	.538
	중상	789	.60	.339	
	중	1,087	.61	.357	
	중하	887	.59	.353	
	하	343	.58	.382	
지역별	대도시	1,638	.58	.352	30.847**
	중소도시	1,341	.58	.353	
	읍면지역	470	.71	.336	

** p < 0.01

※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자료로 서울지역자료만 사용하였으며, 성별, 남녀학교별, 학교급별, 성적별, 지역별 비교는 한국의 전국자료만 사용하였음.

5) 친구관계 형성의 특징

위에서 살펴본 친구관계의 밀도는 분명히 친구관계의 질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장 친한 친구관계의 특징을 말해주는 변수이다. 그러나 이들 가장 친한 친구사이의 질을 설명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2007년도 조사에서 친구관계의 밀도계산을 위한 질문 이외에 4명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서로 어떠한 연계점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표 IV-15>의 평균치(r)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되었다.

$$r = k / N$$

(단, k 는 4명의 친구 중 각 항목 해당 친구수, N 은 1~4의 범위를 갖는 친한 친구수)

따라서 1.00이면 4명까지 선택한 친구 모두가 학교친구인 경우이며, 0.00이면 4명의 친구가 모두 학교친구가 아닌 경우이고, 0.50인 경우는 그 중 50%가 학교친구인 경우이다.

<표 IV-25>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청소년의 경우 가장 친한 친구의 70%, 즉 대략 4명 중 3명은 학교친구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절반에 못미치는 45%의 친구가 같은 반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원친구이거나 동아리친구인 경우는 11%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인터넷 등 미디어와의 연계비율은 18% 정도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청소년들이 친구관계가 학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동아리활동을 통한 친구관계의 형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일본과 미국은 같은 학교 친구 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지만, 동아리에서 형성되는 친구관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서울)이 9%인데 비해, 일본은 34%, 미국은 22%, 스웨덴은 18%로 나타나, 일본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통해 친구관계를 맺는 비율이 가장 높고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5> 4명의 친한 친구 간에 관계되는 사항(복수응답, 비율)

	한국(전체)	한국(서울)	일본(동경)	미국(대도시)	스웨덴 (스톡홀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같은 학교	.70	.65	.90	.74	.54
같은 반	.45	.38	.47	.40	.46
같은 동아리	.11	.09	.34	.22	.18
같은 학원	.11	.12	.07	.11	.22
같은 종교	.07	.07	.00	.39	.38
인터넷(블로그 등)	.18	.14	.02	.45	.52
기타	.13	.15	.10	.19	.32

한국 학생의 경우 남녀별로 보면, 남녀별로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단 인터넷과 친구의 관련성은 여학생(12.2%)보다는 남학생(22.7%)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학교별로도 여학교(9.2%)가 남학교(18.8%)와 남녀공학(19.0%)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80.3%)이 고등학생보다 학교친구로 구성되는 비율이 높으며, 고등학교 중에서는 전문계고(56.4%)가 일반계고(60.6%)와 특목고(65.0%)보다 학교친구로 구성되는 비율이 낮았다. 또한 기타 사항이 친구와 관련되는 비율을 보면, 중학교는 6.4%로 낮은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 18.1%, 전문계 고등학교 23.7%, 특목고 16.7%로 전반적으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다양한 친구관계를 형성하며,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친구의 비율이 낮은 반면, 기타 사항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밖 친구의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동아리 친구비율은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고등학교에서의 입시압박이 동아리 활동의 위축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사실은 중학생이 학원친구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특목고가 학원친구 구성이 높으며, 전문계 고등학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원이 친구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고등학교에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IV-26> 4명의 친한 친구 간에 관계되는 사항(한국, 성별, 복수응답, 비율)

	남학생	여학생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같은 학교	.70(1,804/.412)	.69(1,636/.399)
같은 반	.46(1,804/.412)	.45(1,638/.377)
같은 동아리	.12(1,810/.260)	.10(1,638/.223)
같은 학원	.12(1,807/.244)	.09(1,637/.193)
같은 종교	.07(1,810/.188)	.08(1,638/.209)
인터넷(블로그 등)	.23(1,807/.373)	.12(1,638/.293)
기타	.10(1,810/.247)	.17(1,637/.337)

<표 IV-27> 4명의 친한 친구 간에 관계되는 사항(한국, 남녀학교별, 복수응답, 비율)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같은 학교	.64(454/.416)	.66(425/.399)	.71(2,561/.404)
같은 반	.39(454/.412)	.41(426/.383)	.47(2,562/.394)
같은 동아리	.13(454/.264)	.09(426/.213)	.11(2,568/.244)
같은 학원	.13(454/.235)	.10(425/.195)	.10(2,565/.223)
같은 종교	.07(454/.197)	.08(426/.207)	.07(2,568/.197)
인터넷(블로그 등)	.19(454/.341)	.09(426/.242)	.19(2,565/.354)
기타	.14(454/.271)	.19(426/.303)	.12(2,566/.296)

성적별로 보면, 성적이 낮을 수록 학교친구의 구성비율이 더 낮아진다. 같은 반 친구비율도 낮아진다. 학원친구구성비율도 더 낮아지며, 동아리친구 비율도 낮아진다. 다만, 기타사항에 관련된 비율만이 성적이 낮을 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성적이 낮을 수록 학교전반적인 활동참여 및 학교를 통한 친구관계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보여준다.

<표 IV-28> 4명의 친한 친구 간에 관계되는 사항(한국, 학교급별, 복수응답, 비율)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목고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같은 학교	.80(1,653/.360)	.61(1,287/.431)	.56(470/.397)	.65(30/.308)
같은 반	.50(1,654/.382)	.39(1,288/.407)	.44(470/.391)	.47(30/.297)
같은 동아리	.12(1,659/.256)	.10(1,288/.233)	.09(471/.226)	.11(30/.175)
같은 학원	.14(1,656/.250)	.09(1,287/.202)	.04(471/.134)	.12(30/.227)
같은 종교	.09(1,659/.225)	.07(1,288/.179)	.04(471/.137)	.08(30/.182)
인터넷블로그 등	.22(1,657/.372)	.13(1,288/.300)	.15(470/.327)	.03(30/.109)
기타	.06(1,659/.203)	.18(1,288/.337)	.24(470/.381)	.17(30/.216)

<표 IV-29> 4명의 친한 친구 간에 관계되는 사항(한국, 성적별, 복수응답, 비율)

	상	중상	중	중하	하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같은 학교	.72(289/.394)	.72(788/.377)	.69(1,081/.410)	.67(886/.418)	.68(342/.418)
같은 반	.47(289/.407)	.47(788/.384)	.45(1,083/.403)	.46(886/.397)	.40(343/.390)
같은 동아리	.16(289/.304)	.12(789/.238)	.12(1,087/.262)	.09(887/.217)	.09(343/.203)
같은 학원	.16(289/.256)	.14(788/.238)	.11(1,083/.225)	.08(887/.207)	.05(343/.150)
같은 종교	.10(289/.234)	.08(789/.214)	.07(1,087/.193)	.06(887/.172)	.09(343/.214)
인터넷블로그 등	.21(289/.364)	.19(787/.341)	.19(1,085/.350)	.15(887/.318)	.18(343/.361)
기타	.13(287/.271)	.12(789/.252)	.14(1,087/.293)	.14(887/.332)	.14(343/.311)

<표 IV-30> 4명의 친한 친구 간에 관계되는 사항(한국, 지역별, 복수응답, 비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같은 학교	.68(1,633/.409)	.68(1,338/.421)	.79(468/.337)
같은 반	.43(1,634/.392)	.46(1,340/.415)	.48(468/.349)
같은 동아리	.11(1,637/.240)	.10(1,341/.237)	.14(470/.270)
같은 학원	.11(1,636/.220)	.11(1,337/.232)	.08(470/.194)
같은 종교	.07(1,637/.206)	.07(1,341/.187)	.08(470/.204)
인터넷(블로그 등)	.17(1,636/.335)	.17(1,340/.333)	.23(469/.384)
기타	.14(1,637/.300)	.13(1,341/.299)	.10(469/.262)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보다 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 대도시가 학교 및 같은 반 친구로 구성되는 비율이 낮아진다. 그 만큼 읍면지역이 공간적으로 한정된 영역에서 친구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타사항관련 비율

이 읍면지역보다 도시가 높게 나타나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반면,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동아리친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 친구관계와 생활공간

친구들과 어떤 곳에서 함께 보내는가에 대한 비교는 한국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를 특징을 드러내는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다. 앞에서 거명한 4명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주로 어디서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r = k / N$$

(단, k는 4명의 친구 중 각 항목 해당 친구수, N은 1~4의 범위를 갖는 친한 친구수)

한국 청소년들이 친한 친구들과 주로 보내는 장소는 주로 학교(74.7%)이며, 그 밖에 PC방(30%), 노래방(30%), 음식점(29%), 오락실(16%), 도서관(16%), 공원(16%), 쇼핑센터(15%), 학원(13%), 동아리(8%) 등이다. 친구들과는 주로 학교에서 생활을 하며, 나머지 공간에서의 만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학교 외의 만남의 공간은 주로 PC방 등 상업적 공간들이다. 동아리는 역시 8%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 일본, 미국 모두 학교에서 함께 보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기타 장소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학원에서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 미국, 스웨덴은 한국에 비해 매우 낮다. 둘째, 동아리에서 보낸다는 비율은 한국이 현저하게 낮고(6%), 일본이 가장 높으며(32%), 미국(24%)도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 스웨덴은 2%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 청소년들의 이러한 수치에 적절한 해석을 가하기 힘들다. 다만, 스웨덴 청소년들의 경우는 기타가 54%로 매우 높게 나왔는데, 면접조사 결과에 따

르면, 스웨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아 친구들과 집에서 저녁까지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상대적 비중이 집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더라도 동아리에서는 친구관계가 형성되는 의미를 덜 지닐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음식점, 쇼핑몰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한국은 PC방과 노래방이 주된 사교의 장이 되고 있으며, 일본은 노래방, 오락실, 쇼핑몰, 음식점이 주된 사교의 장이며, 미국은 쇼핑몰과 음식점과 함께 공원이나 기타장소가 높은 비율로 선택되어 미국 청소년들이 친구사교의 공간이 더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쇼핑몰과 공원, 그리고 기타 장소가 높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이 사교의 공간이 가장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1〉 4명의 친한 친구와 함께 보내는 장소(복수응답, 비율)

	한국(전체)	한국(서울)	일본(동경)	미국(대도시)	스웨덴(스톡홀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학교	.75	.67	.86	.71	.61
학원	.13	.15	.06	.06	.08
교회 등 종교기관	.06	.06	.00	.15	.04
동아리	.08	.06	.32	.24	.02
PC방	.30	.32	.02	.09	.10
노래방	.30	.31	.24	.03	.27
오락실	.16	.12	.25	.10	.16
쇼핑센터/백화점	.15	.18	.28	.48	.45
음식점	.29	.30	.36	.46	.23
도서관	.16	.16	.06	.14	.12
공원	.16	.19	.17	.41	.26
기타	.10	.13	.11	.48	.54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은 학교 이외에 PC방(45%)과 노래방(24%)에서 친구들과 주로 만나고, 여학생은 학교 이외에 음식점(39%), 노래방(35%), 쇼핑몰(19%)에서 친구를 만난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학교별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남학교와 여학교는 남녀학생간의 경향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남녀공학의

경우는 전체의 평균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표 IV-32> 4명의 친한 친구가 함께 보내는 장소(한국, 성별, 복수응답, 비율)

	남학생	여학생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학교	.75(1,803/.393)	.75(1,636/.381)
학원	.15(1,805/.262)	.11(1,637/.213)
교회 등 종교기관	.06(1,809/.177)	.06(1,638/.176)
동아리	.08(1,809/.214)	.07(1,638/.196)
PC방	.45(1,805/.432)	.14(1,638/.309)
노래방	.24(1,808/.389)	.36(1,636/.461)
오락실	.18(1,807/.339)	.14(1,637/.293)
쇼핑센터/백화점	.07(1,809/.219)	.24(1,635/.386)
음식점	.20(1,807/.353)	.39(1,635/.458)
도서관	.14(1,807/.295)	.19(1,638/.335)
공원	.13(1,807/.289)	.19(1,636/.387)
기타	.08(1,809/.228)	.12(1,636/.268)

<표 IV-33> 4명의 친한 친구가 함께 보내는 장소(한국, 남녀학교별, 복수응답, 비율)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학교	.69(454/.404)	.68(425/.392)	.77(2,560/.382)
학원	.16(454/.262)	.13(425/.224)	.12(2,564/.239)
교회 등 종교기관	.07(454/.192)	.06(426/.161)	.06(2,567/.176)
동아리	.07(454/.191)	.06(426/.197)	.08(2,567/.210)
PC방	.42(454/.408)	.11(426/.261)	.31(2,563/.419)
노래방	.24(454/.372)	.31(425/.401)	.31(2,565/.441)
오락실	.20(454/.340)	.14(425/.274)	.16(2,565/.321)
쇼핑센터/백화점	.09(454/.236)	.26(425/.372)	.15(2,565/.322)
음식점	.21(454/.353)	.41(425/.428)	.29(2,563/.422)
도서관	.15(454/.302)	.17(426/.281)	.16(2,565/.323)
공원	.11(454/.261)	.15(425/.306)	.17(2,564/.357)
기타	.11(454/.240)	.13(425/.259)	.10(2,566/.248)

학교별로 보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 보다 친한 친구와 학교에서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다. PC방에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은 전문계 고등학

생들이며(36%), 특목고 학생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16%). 노래방은 중학교에서보다 고등학교에서 보다 보편적인 사교의 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중학교 22%, 일반계 34%, 전문계 42%, 특목고 35%).

<표 IV-34> 4명의 친한 친구가 함께 보내는 장소(한국, 학교급별, 복수응답, 비율)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목고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학교	.86(1,652/.328)	.65(1,287/.415)	.63(470/.405)	.76(30/.300)
학원	.16(1,656/.270)	.11(1,287/.219)	.05(470/.145)	.17(30/.265)
교회 등 종교기관	.06(1,659/.186)	.06(1,288/.177)	.05(470/.140)	.05(30/.127)
동아리	.08(1,659/.211)	.08(1,288/.203)	.07(470/.201)	.07(30/.154)
PC방	.31(1,657/.407)	.27(1,288/.380)	.37(469/.483)	.16(30/.251)
노래방	.22(1,658/.386)	.35(1,287/.438)	.42(469/.492)	.36(30/.406)
오락실	.13(1,659/.290)	.17(1,287/.320)	.26(469/.388)	.05(30/.153)
쇼핑센터/백화점	.12(1,658/.282)	.17(1,287/.334)	.23(469/.393)	.18(30/.323)
음식점	.21(1,658/.373)	.34(1,287/.436)	.42(467/.463)	.26(30/.350)
도서관	.15(1,658/.299)	.18(1,288/.337)	.15(469/.310)	.16(30/.284)
공원	.16(1,659/.331)	.15(1,287/.342)	.20(467/.371)	.08(30/.170)
기타	.08(1,658/.224)	.11(1,287/.258)	.13(470/.293)	.14(30/.299)

성적별로 보면, 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의 사교의 장은 성적 최하위 집단의 경우 PC방 사용이 눈에 띄게 많은 것(40%) 이외에 전반적인 경향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35> 4명의 친한 친구가 함께 보내는 장소(한국, 성적별, 복수응답, 비율)

	상	중상	중	중하	하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학교	.77(289/.362)	.78(788/.352)	.74(1,080/.388)	.73(886/.389)	.72(342/.454)
학원	.17(289/.272)	.16(788/.255)	.13(1,082/.247)	.10(887/.220)	.07(343/.191)
교회 등 종교기관	.09(289/.219)	.06(789/.183)	.06(1,086/.177)	.05(887/.153)	.07(343/.188)
동아리	.13(289/.276)	.08(789/.194)	.08(1,086/.225)	.06(887/.177)	.05(343/.160)
PC방	.33(289/.415)	.30(787/.391)	.28(1,084/.387)	.29(887/.388)	.41(343/.535)
노래방	.30(287/.381)	.28(788/.416)	.29(1,084/.404)	.30(887/.433)	.35(343/.546)
오락실	.18(289/.327)	.14(787/.300)	.15(1,084/.301)	.18(887/.335)	.19(343/.354)

쇼핑센터/백화점	.15(287/.308)	.15(789/.301)	.16(1,084/.314)	.16(887/.341)	.14(343/.332)
음식점	.28(287/.394)	.29(787/.408)	.29(1,084/.406)	.29(887/.423)	.29(343/.473)
도서관	.21(289/.342)	.17(787/.325)	.16(1,086/.287)	.16(887/.338)	.13(343/.289)
공원	.16(287/.318)	.14(787/.324)	.16(1,084/.309)	.16(887/.363)	.17(343/.415)
기타	.12(287/.280)	.10(788/.245)	.11(1,085/.256)	.10(887/.238)	.09(343/.240)

지역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PC방, 노래방, 음식점 세 곳의 경향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읍면지역보다 도시에서 PC와 노래방에서 친구를 만나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은 차이가 있다.

<표 IV-36> 4명의 친한 친구가 함께 보내는 장소(한국, 지역별, 복수응답, 비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평균(N/표준편차)
학교	.72(1,633/.393)	.75(1,337/.402)	.83(468/.304)
학원	.13(1,635/.241)	.13(1,337/.238)	.12(470/.246)
교회 등 종교기관	.07(1,636/.188)	.06(1,341/.168)	.06(470/.157)
동아리	.07(1,636/.195)	.07(1,341/.209)	.10(470/.232)
PC방	.32(1,635/.404)	.29(1,340/.405)	.27(469/.436)
노래방	.31(1,635/.418)	.29(1,340/.438)	.27(469/.439)
오락실	.16(1,636/.307)	.14(1,340/.307)	.24(469/.374)
쇼핑센터/백화점	.19(1,635/.344)	.13(1,340/.302)	.11(469/.278)
음식점	.31(1,635/.419)	.26(1,340/.416)	.30(467/.415)
도서관	.17(1,635/.318)	.15(1,341/.312)	.18(469/.317)
공원	.18(1,636/.352)	.15(1,340/.338)	.11(467/.298)
기타	.12(1,636/.266)	.08(1,340/.232)	.08(469/.224)

7) 종합

학교 이외에는 PC방-노래방-음식점이 주된 한국 청소년들의 친구교제의 장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남녀별, 남녀학교별, 학교별, 성적별, 지역별로 나타나는 차이는 있을 지은정, 패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공간 및 친구관계형성을 위한 활동공간의 단조로움, 일원적 특성이 드러난다. 동아리 활동의 부재는 일본, 미국과의 비교에서 잘 드러난다.

친구관계의 밀도를 사회적 지지자원으로 파악한다면, 특목고<일반계고=>전문계고 순으로 밀도가 높은 것, 즉 학업성취가 높을 수록 밀도가 낮은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학업에 매달리는 정도에 따라 친구관계의 밀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학업성취중심주의가 친구관계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읍면지역에서 친구관계 밀도가 높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아는 사이여서 서로간에 사회적 거리가 가깝다. 그러나 그만큼 친구관계는 폐쇄적인 경향성을 띤다. 이러한 학교에서는 친구관계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집단따돌림 같은 경우도 긴 시간 동안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

4. 부모-교사-친구관계의 특징

2007년도 조사결과를 통한 한국 청소년들의 부모, 교사, 친구관계라는 세 가지 관계성으로부터 사회화과정의 완전한 조감도를 그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어느 정도 한국 청소년들의 3가지 관계의 특징이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이 세 가지 관계성은 결국은 주된 사회화 주체와의 관계, 또는 한국 청소년들이 놓여있는 사회환경의 특징을 말해준다. 한 마디로 말해 ‘사회화환경’의 빈곤함으로 축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간 갈등관계는 보편적인 것일 수 있으나, 한국 청소년들은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심한 갈등관계를 겪을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사로서의 정체성 혼미상태에 있는 교사들과의 관계의 소원함도 중요한 환경적 특징 중 하나이다.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교사들과의 친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 있어서 매우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가지 관계의 빈곤함 또는 단조로움 또는 일원적 특징은 물론 극심한 입시경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현저하게 늦다는 것이다. 2006년 5개국 조사결과(김현철·김은정, 2006)를 보면,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한국 청소년의 비율은 77.0%나 된다. 일본 66.6%보다 높으며, 미국 19.6%, 독일 3.6%, 스웨덴 22.8%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세 가지 관계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친구와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동아리 활동과 같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친구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회화될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시간은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해 구조화된 것으로 공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원만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정책을 만드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세 가지 관계의 회복을 위해 어떤 지원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데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V. 요약·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V. 요약·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협동연구과제이다.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이 갖는 특징과 문제점을 밝히고 바람직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형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4개국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의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통해 크게 세 가지 관계, 즉,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친구관계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관계의 특징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나름대로 자녀교육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가 다원화되고 좋은 교육, 좋은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강조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험경쟁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더욱이 학년이 높아갈 수록 부모들의 불안은 깊어지고 이것이 가정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한 가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부모들의 불안심리는 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갈등상황을 빚어내게 된다. 한국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정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도 이러한 부모자녀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부모의 헌신성, 이것이 한국적 수험경쟁사회에서 한국 부모들이 선택한 자녀교육의 방도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헌신성은 오히려 갈등상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2006년 조사결과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헌신성은 오히려 한국이 가장 낮았다(김현철·김은정, 2006). 결국 부모들이 투여하는 헌신적인 노력은 갈등의 재료가 될 지언정 자녀들에게는 그다지 헌신적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오히려 부모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자녀들의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교사-학생간의 관계이다. 교사와의 관계(친밀도, 만족도), 학교에서의 의사소통, 학교생활만족도 등을 총괄해서 학교내 자본 또는 자산(또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원에는 고교 수준에서는 전문계고-일반계고-특수목적고라는 서열과 성적별 서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문계고등학교의 자원부족과 특수목적고의 자원풍족이라는 구조가 나타났다. 특수목적고를 제외하고는 고교생은 중학생보다 자원이 결핍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성적별로도 나타났다. 즉 성적이 좋을 수록 학교자원이 풍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소년들을 둘러싼 학교환경은 전반적으로 자원이 결핍된 상황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단지, 도시보다는 읍면지역이 학교에서의 (비경제적인) 자원이 풍부한 듯이 보인다.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읍면지역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소규모 학교의 교사와 학생에 대한 면접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면접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으며, 스스로 사회화의 주체자가 아니라고 자조한다. 이러한 정서가 한국 교사들의 일반적인 정서인듯하다. 그러나 교사의 개입을 통해서 학교내에서의 집단따돌림 문제를 해결한 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사의 역할이나 교사-부모간 협조가 조직적이거나 문화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지극히 개별적이고 드문 일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부모-학생 간 소통과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친구관계이다. 학교 이외에는 PC방-노래방-음식점이 한국 청소년들의 주된 친구교제의 장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남녀별, 남녀학교별, 학교별, 성적별, 지역별로 나타나는 차이는 있을 지은정, 패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공간 및 친구관계형성을 위한 활동공간

의 단조로움, 일원적 특성이 드러난다. 동아리 활동의 부재는 일본, 미국, 스웨덴과의 비교에서 잘 드러난다.

친구관계의 밀도를 사회적 지지자원으로 파악한다면, 특목고<일반계고는 전문계고 순으로 밀도가 높은 것, 즉 학업성취가 높을 수록 밀도가 낮은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학업에 매달리는 정도에 따라 친구관계의 밀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학업성취중심주의가 친구관계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읍면지역의 친구관계 밀도가 높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면접조사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아는 사이여서 서로간에 사회적 거리가 가깝다. 그러나 그만큼 친구관계는 폐쇄적인 경향성을 띤다. 이러한 학교에서는 친구관계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집단따돌림 같은 경우도 긴 시간 동안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

넷째, 한국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 교사, 친구관계라는 세 가지 관계성의 특징은 결국은 주된 사회화 주체와의 관계, 또는 한국 청소년들이 놓여있는 사회환경의 특징을 말해준다. 한 마디로 말해 ‘사회화환경’의 빈곤으로 축약된다.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간 갈등관계는 보편적인 것일 수 있으나, 한국 청소년들은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로서의 정체성 혼미상태에 있는 교사들과의 관계의 소원성도 중요한 환경적 특징 중 하나이다.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 미국 청소년들에 비해 교사들과의 친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 있어서 매우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가지 관계의 빈곤함 또는 단조로움 또는 일원적 특징은 물론 극심한 입시경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현저하게 늦다는 것이다. 2006년 5개국 조사결과(김현철·김은정, 2006)를 보면,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한국 청소년의 비율은 77.0%나 된다. 일본 66.6%보다 높으며, 미국 19.6%, 독일 3.6%, 스웨덴 22.8%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세 가지 관계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단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친구와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동아리 활동과 같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회화될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시간은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해 구조화된 것으로 공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7년 연구는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본 2006년 연구에 이어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관계, 친구관계의 세 가지 관계로 확장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특징을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과 비교하였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 각국의 차이가 드러났지만, 그러한 차이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높은 연구가 필요하다. 2008년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3년간의 연구를 종합하여 비교대상국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의 패턴을 비교하고, 그로부터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2. 정책제언

이 연구의 최종 연도인 2008년에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2007년도 연구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부모-교사-학생 간 네트워크

한국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모-교사-친구관계의 세 가지 관계성이 빈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이를 회복하거나 지원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은 쉽지 않다. 그러나 조직적인 노력, 특히 네트워크의 형성은 적어도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나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올웨우스 학교폭력방지 프로그램의 성과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대응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면접조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몇몇 사례들은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다만, 그러한 사례들이 대부분 교사의 개별적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이다. 올웨우스의 프로그램은 비단 학교폭력 뿐아니라 학교 전반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각국에서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웨우스 프로그램의 원리는 교사와 부모 그리고 학생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극히 단순한 원리이기는 하지만, 학교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3자간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폭력 및 학교부적응 대처 매뉴얼 제작, 배포
- ② 학교 내 폭력 및 학교부적응 대처를 위한 교사·학부모·학생 조직의 구성
- ③ 올웨우스 프로그램 연수 등 교육 실천 사례 연구와 도입
- ④ 학교에서의 학부모 상담 창구 개설

2) 교사들의 사회심리적 동기부여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교사들은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다. 부모들과의 관계도, 학생들과의 관계도 교사들에게는 큰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다. 앞에서 제기한 부모-교사-학생간의 네트워크가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줄 방도가 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 교사들에 대한 사회심리적 동기부여가 특별히 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사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 3자간 네트워크 형성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의 재사회화를 통해서 3자간의 관계에서 더욱 분명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3자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교사의 역할은 개별적인 노력을 보다 조직화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많은 경우 교사의 잡무만 늘어나게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직적이라는 의미는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조직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전담할 교사의 충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과전문가인 교사에게 이러한 주문을 하는 것은 결국 교과 이외의 업무를 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교과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내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담교사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도와줄 인력의 배치는 필수적이다. 또한 그 인력은 3자간의 관계를 조직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이 말은 결국 교사는 교과전문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독일, 스웨덴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교과전문가로서 학생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현재 학생들은 교사에게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기대가 크지만 이것은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불만족과 같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수험경쟁의 치열함으로부터 생성된 역할기대의 왜곡이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교사관에 대한 향수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훈육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역설적이게도 학생과 부모들의 역할기대는 훈육자에 대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부모와 학생들은 가르치는 기술에 대해서는 사교육에 더 큰 기대를 하며, 이것이 더욱 교사를 전통적인 역할에 못 박아두려는 동기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교사-학부모-교사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할 상담교사를 비롯한 전문직 교사의 배치, 확대
- ②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역할 강조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3) 동아리 활동 활성화

3자간의 관계를 빈곤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은 물론 입시위주의 교육에 있다. 이 문제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학교 및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확실한 문화로 정착하기까지 꾸준하고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국과 같이 입시경쟁이 치열한 일본의 경우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이 많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단, 너무나도 저조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지만, 특별활동을 포함해서 다양한 학생활동을 교육의 핵심적 쟁점으로 삼아 온 적이 없는 것이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이 학업성취문제에 경도되어 다양한 활동이 가져오는 생산적 효과에 대해 무관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과정 내에서 활동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며, 그러한 변화가 국가 간 교육경쟁을 약화시키지도 않는다는 증거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입시위주의 풍토에서 어떤 전환점을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활동 정책과 특별활동과의 연계정책을 통한 청소년활동 진작
- ② 각 지역별 동아리 지원센터의 설립
- ③ ‘동아리활동’진작 국민운동(캠페인) 추진

4) 학교급별 격차 해소

연구결과 한국의 경우, 3자간의 관계, 또는 사회화과정에 있어서의 사회자본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전문계고가 가장 빈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계고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3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면, 우선적으로 전문계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생

등 건전한 사회화과정의 경로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먼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대로 특수목적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자원의 풍요로움은 다른 학교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학생들은 학교자원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자본이 풍부한 경우가 많아, 학교자원의 편중화는 학교급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부적응생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에서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정 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다양한 경쟁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승자와 패자가 엄격히 구분되는 시스템이 아닌 다양한 승자가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안학교 학생들이 면접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명확한 패자의 길에는 희망이 없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사회부담이 될 것이다.

향후 다양한 경쟁이 가능하고 승자가 양산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전문계고등학교 및 직업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 ② 대안학교의 초·중·고 단계별 연계체계 구축
- ③ 읍면지역 학교에 대한 역차별 해소(소인수 학교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은 것을 이유로 재정적 지원을 적게 받는 사례 등), 지원확대

참 고 문 헌

- 김고연주, 이지은(2006). “정서적 미디어로서의 핸드폰: 10대 여성들의 일상적 핸드폰 사용을 중심으로,” 『모바일 소녀@디지털 아시아』. 한울 아카데미. 서울.
- 김소희(2004). 학부모 교육열의 내러티브적 접근. 교육학 연구. 제42권 2호. 한국교육학회.
- 김승진(2002). 교사와 학생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정, “학교 사회화: 또래관계/친구관계 및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질적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07-S12.
- 김은진, 홍찬이, 김보영, 신은정, 최수정, 2006, “모바일 소녀들의 수다 떨기,” 『모바일 소녀@디지털 아시아』. 한울 아카데미. 서울.
- 김종길(2002). “사이버 공간과 청소년 성문화,” 『오늘, 청소년의 성을 읽다.』 서울: 지식마당.
- 김현미(2002). “청소년기와 섹슈얼리티,” 『오늘, 청소년의 성을 읽다.』 서울: 지식마당.
- 김현철·김은정 외(2006),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혜정(2005).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뒤베, 프랑스와(1997). “프랑스 청소년의 삶,”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 2』. 또하나의 문화 14호.
- 문호영(2005). 학생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재산·문재우(2006).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내 갈등과 건강보호행동으로서의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인과관계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3권 2호, pp91-109.
- 박중흠·홍점표(1999). 교사·학생간의 친밀한 인간관계가 학습습관·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 91권 118호
- 박진희(1986). 교사의 학생관이 학생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교사 학생관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방다미(2005). 교사-학생간의 인간관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종억(2000). 주요국의 교육행정체도와 교육개혁 동향. 서울: 과학교육사.
- 손승영(2002).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의식 차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국

- 청소년연구. 제11권 2호. 129-152쪽.
- 손승영(2002). “십대의 성의식과 성경험,” 『오늘, 청소년의 성을 읽다.』 서울: 지식마당.
- 심영희(1999). 자식 바라기 어머니의 전통성과 성찰성 : 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삶과 정체성. 심영희, 정진성, 윤정로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서울. 나남. 361-388쪽.
- 안우환·김경식(2005).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열 탐구. 중등교육연구. 제53집 1호.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중등교육연구소.
- 엄기호(2000). 『포르노. All Boys Do It!』 서울: 우리교육.
- 유안진 외(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3호, pp161-180.
- 윤택립(1996).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모성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2) : 79-117.
- 이경아·정현희(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11권 2호, pp213-226.
-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17권 2호, pp383-398.
- 이규환(1994). 선진국의 교육제도. 서울: 배영사.
- 이수하(2004).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이·김현주·이여봉.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교환관계 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1호. 97-132쪽.
- 이완정 외(1998).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학교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6권 4호, pp125-138.
- 임정아·이인수(2006).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아동교육, 제15권 2호, pp37-62.
- 이한(2000). 탈학교의 상상력. 삼인.
- 장일순(2007). 『청소년사회학』. 학문사.
- 주은희(2002). “성매매 세계로의 십대의 유입,” 『오늘, 청소년의 성을 읽다.』 서울: 지식마당.
- 조성숙(1995). 가족의 자녀교육.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 조영래(2001). 전태일 평전(개정판). 서울: 돌베개.
- 조영미(2004).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사-학생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주형철(2006). 교사와 학생간의 인관계가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북 지역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belmann, Nancy, 2003, *Melodrama of Mobility*, Honolulu: Univ. of Hawaii Press.
- Adams, G.R., & Fitch, S.A. (1983). Psychological environments of university departments: Effects on college students, identity status and ego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66-1275.
- Adams, G.R. & Marshall, S. (1996). A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identity: Understanding the person-in-context. *Journal of Adolescence*, 19, 1-14.
- Adams, R., & Laursen, B. (2001). The organization and dynamics of adolescent conflict with parents and frie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97-110.
- Allen, J. P., Porter, M. R., McFarland, F. C., Marsh, P. and McElhaney, K. B.(2005). The Two Faces of Adolescents' Success With Peers: Adolescent Popularity, Social Adaptation, and Deviant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3), 747-760.
- Barney, G. & Anselm, S.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 Barney, G. & Anselm, S.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Mill Valley, CA: The Sociology Press.
- Bernardi, Laura/ Keim, Sylvia/ von der Lippe, Holger (2006): Freunde, Familie und das eigene Leben. Zum Einfluss sozialer Netzwerke auf die Lebens- und Familienplanung junger Erwachsener in Lübeck und Rostock. In: Hollstein, Bettina/ Straus, Florian (eds): *Qualitative Netzwerkanalyse; Konzepte, Methoden, Anwendungen*. Wiesbaden: VS, p. 359-390.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 pt. 2).
- Berndt, T.J. (1982).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erndt, T. J., & Savin-Williams, R. C. (1993). Variations in friendships and peer-group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In P. Tolan, & B. Cohler (Eds.), *Handbook of clinical research and practice with adolescents*. New York: Wiley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2, 162-168.

- Blyth, D. A., Hill, J. P. and Thiel, K. S.(1982). Early adolescents' significant others: Grade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familial and nonfamilial adults and young peop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6), 425-450.
- Brendgen, M., Wanner, B., Morin, A. J. S. and Vitaro, F.(2005). Relations with Parents and with Peers, Temperament, and Trajectories of Depressed Mood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5), 579-594.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B. B., Clasen, D. R., Eicher, S. A. (1986).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21-530.
- Buehler, C.(2006). Parents and Peers in Relation to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109-124.
- Buijzen, M, and Valkenburg, P. (2005). Parental mediation of undesired advertising Effect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9(2), 153-165.
- Burhmaster, D. (1992). The developmental course of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In Boer, F., and Dunn, J. (eds.),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 Hillsdale, NJ: Erlbaum.
- Burhmaster, D., & Furman, W. (1990). Perceptions of sibling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87-1398.
- Caldwell, K. R. W. K.(1997). Friendships, Peer Acceptance, and Group Membership: Relations to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Child Development*, 68(6), 1198-1209.
- Chia, S. C.(2006). How Peers Mediate Media Influence on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 *Journal of Communication*, 56(3), 585-606.
- Cicirelli, V. G. (1995). *Sibling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span*. New York: Plenum Press.
- Clark, M. L. & Ayers, M. (1993). Friendship expectations and friendship evaluations: Reciprocity and gender effects. *Youth and Society*, 34, 299-313.
- Collins, W., Laursen, B., Mortensen, N., Luebeker, C., & Ferreira, M. (1997). Conflict processes and transitions in parent and peer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autonomy and regul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178-198.

- Collins, W.A. (1997).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Inter-personal adaptation to individual change. *Personal Relationships*, 4, 1-14.
- Colarossi, L. G. and Eccles, J. S.(2000). A Prospective Study of Adolescents' Peer Support: Gender Differences and the Influence of Parental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6), 661-678.
- Connerton, P. (1989). How societies remember.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saro, W. (1997). The sociology of childhood. London: Thousand Oaks.
- Crockett, L. & Randall, B. (2006). Linking adolescent family and peer to The quality of young adult romantic relationships:mediating role of conflict tactics. *Journal of Social and Relationships*, 23, 761-780
- Csikszentmihalyi, M., and Larson, R. (1984).Being Adolescent. New York: Basic Books.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 DeKovic, M., Wissink, I. & Meijer, A. (2004). The role of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ur: Comparison of four ethnic groups. *Journal of Adolescence*, 27, 497-514.
- De Reus, L. A., Few, A. L., & Blume, L. B. (2005). Multicultural and critical race feminisms: Theorizing families in the third wave. In V. L. Bengtson, A. C. Acock, K. R. Allen, P. Dilworth-Anderson, & D. M. Klein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y & research* (pp. 447-468). Thousand Oaks, CA: Sage.
- DeWitt(1992). "*In Pursuit of Pregnancy.*" *American Demographics*. 15:48-53.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4, 542-557.
- Dunn, J. (1983).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4, 787-811.
- East, P.L., & Rock, K.S. (1992). Compensatory patterns of support amo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A test using school friends, non-school friends, and sibl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63-172.
- Eccles, J., Early, D., Frasier, K., Belansky, E., & McCarthy, K. (1997). The relation of connection, regulation, and support for autonomy to adolescents' function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63-286.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orton.

- Erwin, P.(1998).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London, New York: Routledge.
- Fend, H. (1990). Ego-strength development and pattern of social relationships. In: H.A. Bosma & A.E. Jacson (Eds.), Coping and self-concept in adolescence. Heidelberg: Springer Verlag.
- Finkenauer, C., Engels, R., Meeus, W. (2002). Keeping secrets from paren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ecrecy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 123-136.
- Finkenauer, C., Frijns, R., Engels, R., & Kerkhof, P. (2005). Perceiving concealment in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Links with parental behavior. *Personal Relationships*, 12, 387-406.
- Finkenauer, C., & Hazam, H. (2000). Disclosure and secrecy in marriage: Do both contribute to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7, 245-263.
- Frones, I. (1995). Among peers. On the meaning of peers in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Oslo: Scandinavian University Press.
- Furstenberg, F. F.(2000). The Sociology of Adolescence and Youth in the 1990s: A Critical Commenta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896-910.
- Gilligan, C. (1982). In a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ossens, L. and Phinney, S. J (1996) Identity, context, and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ce*, 19, 491-496.
- Greenberger, E., Steinberg, L. D. Vaux, A. and McAuliffe, S.(1980). Adolescents who work: Effects of part-time employment on family and peer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3), 189-202.
- Greenberg, M. T., Siegel, J. M. and Leitch, C. J.(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6.
- Grotevant, H. D. (1987). Toward a process model of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 203-222.
- Guerrero, L.K., & Afifi, W.A. (1995). What parents don't know: Topic avoidance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J. Socha, G.H. Stamp, & H. Glen (Eds.), Parents, children and communication: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LEA's communication series (pp. 219-245) Hillsdale, NJ: Earlbaum.

- Halbwachs, M. (1992). *Collective memory*.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ter, S., & Whitesell, N. R. (1996). Multiple pathways to self-reported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761-777.
- Hartup, W.W.(1993).Adolescents and their friends.In Laursen, B. (ed.), *Close friendships in adolescence: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Hellenga, K. (2002). *Social space, the final frontier: Adolescents on the internet*. In J.T.
- Hendry, L.B., Shucksmith, J., Love, J.G., and Glendinning, A.(1993).*Young people's leisure and lifestyle*. New York: Routledge.
- Hengst, H.(1996). Children's culture and children's public(ness) in highly industrialized societies. In W. de Graaf & C. van Nijnatten (Eds.), *Children as citizens. The social and juridical constitution of children's rights* (pp. 11-21). Utrecht: Onderzoeksschool Arbeid,Welzijn, Sociaal Economisch Bestuur.
- Hoffman, L.W. (1991). The influence of family environment on personality: Accounting for sibling differ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187-203.
- Heritage Foundation(2007). Reauthorization of No Child Left Behind: Federal Management or Citizen Ownership of K-12 Education? *Backgrounder*, no.2047., Jun.27., 2007.
- Hollstein, Bettina (2006): *Qualitative Methoden und Netzwerkanalyse – ein Widerspruch?* In: Hollstein, Bettina/ Straus, Florian (eds): *Qualitative Netzwerkanalyse; Konzepte, Methoden, Anwendungen*. Wiesbaden: VS., p. 11-36.
- Höfer, Bettina/ Keupp, Heiner/ Strauss, Florian (2006): *Prozesse sozialer Verortung in Szenen und Organisationen. Ein netzwerkorientierter Blick auf traditionale und reflexiv moderne Engagementformen*. In: Hollstein, Bettina/ Straus, Florian (eds): *Qualitative Netzwerkanalyse; Konzepte, Methoden, Anwendungen*. Wiesbaden: VS, p. 267-294.
- Hughes, M., & Demo, D. H. (1989). Self-perceptions of Black Americans: Self-esteem and personal effica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132-159.
- Hurrelmann, Klaus & Albert, Mathias (2006) (eds): *Jugend 2006*. 15. Shell Jugendstudie. Frankfurt a. M: Fischer.
- Hurrelmann (2005): *Lebensphase Jugend. Eine Einführung in die sozialwissenschaftliche*

- Jugendforschung. 8. Auflage. Weinheim/ München: Juventa.
- Jackson, S. & Rodriguez-Tome, H. (1993). Adolescence: Expanding social worlds. In S. Jackson & H. Rodriguez-Tome (Eds.) *Adolescence and its social worlds* (pp. 1-13). East Sussex: Lawrence Erlbaum.
- Jessor, R. (1993). Successful adolescent development among youth in high-risk settings. *American Psychologist*, 48, 117-126.
- Johnson, C.A. (2004). Choosing people: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information seeking behaviour, *Information Research*, 10(1), Retrieved August 22, 2007, from <http://informationr.net/ir/10-1/paper201.html>
- Jones, D. C.(2001). *Social Comparison and Body Image: Attractiveness Comparisons to Models and Peers Among Adolescent Girls and Boys*. *Sex Roles*, 45, 645-664.
- Johnson, H.D., Brady, E, McNair, R, Congdon, D, Niznik, J, Anderson, S. (2007). Identity as a moderator of gender differences in the emotional closeness of emerging adults' same- and cross-sex friendships, *Adolescence*, 42(165), 1-23.
- Josselson, R. (1987). *Finding herself: Pathways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en*. San Francisco: Jossey-Bass.
- Ialongo, N. S., Vaden-Kieman, N. and Kellam, S.(1998). Early Peer Rejection and Aggression: Longitudinal Relations with Adolescent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10(2), 199-213.
- Kerr, D. C. R., Preuss, L J. and King, C. A.(2006). Suicidal Adolescents' Social Support from Family and Peers: Gender-Specific Associations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34(1)
- Kiesner, J.(2002).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ce: Their Relations with Classroom Problem Behavior and Peer Statu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2(4), 463-478.
- Kon, I. S., Losenkov; V. A., Lissovoy, C. D., Lissovoy, V. D.(1978). Friendship in Adolescence: Values and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1), 143-155.
- Kleiber, D. A., Caldwell, L. L., & Shaw, S. A. (1993). Leisure meanings among adolescents. *Leisure and Society*, 16, 99-114.
- Klein, D.M. & White, J.M. (1996).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ramer, L., & Gottman J. (1992). *Becoming a sibling: "With a little help from my*

-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685-699.
- Kramer, L., & Kowal, A. (2005). Sibling relationship quality from birth to adolescence: The enduring contributions of frien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 503-511.
- Laible, D. J., Carlo, G. and Raffaelli, M.(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45-59.
- Larson, R., & Richards, M. H. (1991). Daily companionship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Changing developmental contexts. *Child Development*, 62, 284-300.
- Larson, R., Richards, M., Moneta, G., Holmbeck, G., & Duckett, E. (1996). Changes in adolescents' 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families from ages 10 to 18: Disengagement and trans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2, 744-754.
- Laursen, B. (1995). Conflict and social interaction in adolescent relationship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5, 55-70.
- Laursen, B. and Williams, V.A.(1997).Perceptions of interdependence and closeness in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romantic partners. In Shulman, S., and Collins, W.A. (eds.),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Developmental perspective*. San Francisco: Jossey-Bass.
- Lempers, J.D., & Clark-Lempers, D.S. (1992). Young,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omparisons of the functional importance of five significant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dolescents*, 21, 53-96.
- Langness, Anja/ Leven, Ingo/ Hurrelmann, Klaus (2006): Jugendliche Lebenswelten: Familie, Schule, Freizeit. In: Hurrelmann, Klaus/ Albert, Mathias (eds): *Jugend 2006*. 15. Shell Jugendstudie. Frankfurt a. M: Fischer, p. 49-102.
- Lansford, J. E., Criss, M. M., Pettit, G. S., Dodge, K. A. and Bates, J. E.(2003). Friendship Quality, Peer Group Affiliation, and Peer Antisocial Behavior as Moderators of the Link Between Nega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2) 161-184.
- Larson, L. E.(1972). The Influence of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The Situation Hypothesis Revisite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1), 67-74.
- Larson, R. W.(1983). Adolescents' Daily Experience with Family and Friends: Contrasting Opportunity Syst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739-750.
- Lee, J.(2006), Tracking achievement gaps and assessing the impact of NCLB on the gaps: an in-depth look into national reading and math outcome trends. Cambridge,

MA: the Civil Rights Project.

- Loy, P. & Norland, S. 1981. Parent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s gender expectations. *Youth and Society*, 13, 175- 87.
- Luster, T., & McAdoo, H. P. (1995). Factors related to self-esteem among African American youths: A secondary analysis of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data.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451-467.
- Maccoby, E., & Martin, J.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 4, pp. 1-101). New York: Wiley.
- Markstrom-Adams, C. (1992). A consideration of intervening factors in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In G. Adams, T. Gullotta, and R. Montemayor (Eds.),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pp. 173-192). Newberry Park, CA: Sage.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ashek, D. & Sherman, M. (2004). Desiring less closeness with intimate others. In D. Mashek & A. Aron (Eds.), *Handbook of Closeness and Intimacy*, 343-35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Margolis, G.J. (1966). Secrecy and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7, 517-522.
- Maxwell, K. A. (2002). Friends: The Role of Peer Influence Across Adolescent Risk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4), 267-277.
- Manke, B., McGuire, S., Reiss, D., Hetherington, E. M., Plomin, R. (1995). Genetic Contributions to Adolescents' Extrafamilial Social Interactions: Teachers, Best Friends, and Peers. *Social Development*, 4(3), 238-256.
- McCoy, J., Bordy, G., & Stoneman Z. (1994). A longitudinal analysis of sibling relationships as mediators of the link between family processes and youths' best friendships. *Family Relations*, 43, 400-408.
- McFarlane, A. H., Bellissimo, A., & Norman, G. R. (1995). The role of family and peers in social self-efficacy: Links to depression in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5, 402-410.
- McHale, S.M., Updegraff, K.A., Tucker, C.J., & Crouter, A.C. (2000). Step in or stay out? Parents' roles in adolescent siblings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 the Family, 62, 746-760.
- Minnett, A.M., Vandell, D.L., & Santrock, J.W. (1983). The effects of sibling status on sibling interaction: Influence of birth order, age spacing, sex of child, and sex of sibling. *Child Development*, 54, 1064-1072.
- Montemayor, R.(1984). Maternal employment and adolescents' relations with parents, siblings, and pe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6), 543-557.
- Mounts, N. S.(2007).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Perceptions of Parental Management of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1), 169-178.
- Moser, M.R., Paternite, C.E., Dixon, W.E. (1996) Late adolescents' feelings toward parents and siblings. *Merrill-Palmer Quarterly*, 42, 537-553.
- Mullis, R., Brailsford, J. and Mullis, A. (2003). Relations between identity formation and family characteristics among young adults, *Journal of Family Issues*, 24, 966-980.
- Muuss, R.E. (1996). *Theories of adolescence*. New York: McGraw Hill.
- Nickerson, A. B. and Nagle, R. J.(2004). The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n Life Satisfaction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 35-60.
- Noakes, M. A. and Rinaldi, C. M.(2006).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Peer Conflic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6), 881-891.
- Noller, P. (1994). Relationships with parents in adolescence: Process and outcome. In R. Montemayor, G. Adams, & T. Gullotta (Eds.),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pp. 33-77). Thousand Oaks, CA: Sage.
- Noller, P., & Callan, V. J. (1990).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nature of their communication with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349-362.
- Oliva, A.,& Arranz, E. (2005). Sibling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 253-270.
- PEN(2007). Open to the Public: How communities, Parents and Students Assess the Impact of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The Realities Left Behind, [web source: www.publicEducation.org].
- Phares, V., Steinberg, A. R. and Thompson J. K.(2004). Gender Differences in Peer and Parental Influences: Body Image Disturbance, Self-Worth,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Pre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5), 421-429.

- Pardini, D. A. Loeber, R. and Stouthamer-Loeber, M.(2005). Developmental Shifts in Parent and Peer Influences on Boys' Beliefs About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3), 299-323.
- Park(2006). The Retreat From Formal Schooling : "*Educational Manager Mothers*" in the Private After-School Market of South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Pepler, D. J. and Craig, W. M.(1998). Assessi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3(4), 176-182.
- Pettit, G. S., Bates, J. E., Dodge, K. A. and Meece, D. W.(1999). The Impact of After-School Peer Contact on Early Adolescent Externalizing Problems Is Moderated by Parental Monitoring, Perceived Neighborhood Safety, and Prior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0 (3), 768-778.
- Perkins, S., & Turiel, E. (2007). To lie or not to lie: To whom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Child Development*, 78, 609-621.
- Piaget, J.-P. (1952).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Richardson, R. (2004) Early adolescence talking points: Question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want to ask their parents. *Family Relations*, 53, 87-94.
- Rienzi, B. (1996). Gender differences regarding peer influence and attitude toward substance abuse. *Journal of Drug Education*, 2, 339-47.
- Rybash, J. M., & Monaghan, B. E. (1999). Episodic and semantic contributions to older adults' autobiographical recall.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26 (1), 85-96.
- Seginer, R. (1998). Adolescents' perceptions of relationships with older siblings in the context of other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ts*, 8, 287-308.
- Ryan, A. M.(2001). The Peer Group as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Young Adolescent Motivation and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72(4),1135-1150.
- SAMI MÄÄTTÄ, HÅKAN STATTIN and JARI-ERIK NURMI (2006). Achievement strategies in peer groups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norm-breaking behavior.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7(4), 273-280.
- Santrock, John W., [1998] 2007, *Adolescence* (11th Edition), McGraw-Hill International

Edition: New York.

- Sharabany, R. (2000). Intimacy in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Issues in linking parents and peers, theory, culture and findings. In Kerns, K., Contreras, J. & Neal-Barnett, A., Family and peers: Linking two social worlds, 227-250. New York: Praeger.
- Shulman, S., Levy-Shiff, R., Kedem, P., & Alon, E. (1997). Intimate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 romantic partners and same-sex friends: Individual and systemic perspectives.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 68, 37-52.
- Sieving, R., Eisenberg, M. E., Petting, S., & Skay, C. (2006).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first sexual intercourse.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8 (1), 13-20.
- Smetana, J., Metzger, A., Gettman, D., & Campione-Barr, N. (2006). Disclosure and secrecy in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77, 201-217.
- Stanton-Salazar, R. & Spina, S. (2005). Adolescent peer networks as a context for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Youth & Society*, 36, 379-417.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 1072-1085.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Feldman & G. Ellio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pencer, Robert, 1988, Yokong: Factory Girl. Seoul: Royal Asiatic Society.*
- Steinberg, Laurence, 2005, Adolescence (Seventh Edition). McGraw Hill: Boston.*
- Steinberg, L., Lamborn, S., Darling, N., Mounts, N. & Dornbusch, S.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754-770.
- Steinberg, L. & Silverberg, S.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Steiner-Adair, C. (1986). The body politic: Normal female adolescent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eating disorde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Psychoanalysis*, 14, 95-114.
- Steinberg & Silverberg(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3:429-460.

- Stiles, A. S. and Raney, T. J.(2004). Relationships Among Personal Space Boundaries, Peer Acceptance, and Peer Reput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7(1), 29-40.
- Stocker, C. (1994). Children's perceptions of relationships with siblings, friends, and mothers: Compensatory processes and links with adjust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447-1459.
- Straus, Florian (2002): Netzwerkanalysen. Gemeindepsychologische Perspektiven für Forschung und Praxis. Wiesbaden: Dt. Univ.-Verlag.
- Strough, J., Berg, C. A. and Meegan, S. P.(2001). Friendship and Gender Differences in Task and Social Interpretations of Peer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Social Development*, 10(1), 1-22.
- Suler, J.(1996).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World Wide Web.
- Tajfel, H. and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and L. W.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Nelson-Hall.
- Tarrant, M.(2002). Adolescent Peer Groups and Social Identity. *Social Development*,11(1), 110-123.
- Tesch, S.A., & Whitbourne, S.K. (1982). Intimacy and identity status in young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041-1051.
- Thompson, L. (1992). Feminist methodology for family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18.
- Thompson, L. & Walker, A.J. (1995). The place of feminism in family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847- 865.
- Tucker, C. J., Barber, B. L., & Eccles, J. S. (2001). Advice about life plans from mothers, fathers, and siblings in always-married and divorced families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729-747.
- U.S.Census Bureau. (2005, October). Computer and internet use in the United States: 2003 [Press release]. Retrieved August 25, 2006, from <http://www.census.gov/prod/2005pubs/p23-208.pdf>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7). Structure: General Information. Retrieved October 8, 2007 from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us/international/usnei/us/edlite-struc-geninfo.html>
- Updegraff, K. A. and Obeidallah, D. A.(1999). Young Adolescents' Patterns of

- Involvement with Siblings and Friends. *Social Development*, 8(1), 52-69.
- Updegraff, K. A., McHale, S. M., Crouter, A. C. and Kupanoff, K.(2001). Parents' Involvement i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A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3), 655-668.
- Updegraff, K. A., Madden-Derdich, D. A., Estrada, A. U., Sales, L. J. and Leonard, S. A.(2002).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with Parents and Friends: Exploring the Connections. *Family Relations*, 51(1), 72-80.
- Updegraff, K. A., Helms, H. M., McHale, S. M., Crouter, A. C., Thayer, S. M. and Sales, L. H.(2004). Who's the Boss? Patterns of Perceived Control in Adolescents' Friend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5), 403-420.
- Urberg, K. A., Degirmencioglu, S. M., & Tolson, M. (1998). Adolescent friendship selection and termination: The role of similar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 703-710.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7). *State and Local Implementation of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Volume I: title I School Choice, Supplemental Educational Services, and Student Achievement*. Washington D.C.: Office of Planning.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7). *State and Local Implementation of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Volume II: Teacher Quality Under NCLB*. Washington D.C.: Office of Planning.
- Valkenburg, P. M., & Peter, J. (2007). Online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well-being: Testing the stimulation versus the displacement hypothesi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69-1182.
- van Manen, M.,& Levering, B. (1996). *Childhood's secrets: Intimacy, privacy, and the self reconsider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Vangelisti, A.L. (1994). Family secrets: Forms, functions, and correlat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113-135.
- Wang, R., Bianchi, S., & Raley, S. (2005). Teenagers' internet use and family rules: A research not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1249-1258.
- Whitbourne, S. K. (1987) Personality development in adulthood and old age: Relationships among identity style, health and well-being. In K.W. Schaie & C. Eisdorfer (Eds.),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7, pp. 189-216). New York: Springer.
- Young, J. F., Berenson, K., Cohen, P. and Garcia J.(2005). The Role of Parent and Peer

- Support in Predicting Adolescent Depression: A Longitudinal Community Stud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4), 407-423.
- Ystgaard, M.(1997).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late adolescenc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2(5), 277-283.
- Wolak, J, Mitchell, K., & Finkelhor, D. (2003). Escaping or connecting? Characteristics of youth who form close online relationships. *Journal of Adolescence*, 26, 105-119.
- Woodward, J.C., & Frank, B.D. (1988). Rural adolescent loneliness and coping strategies. *Adolescence*, 23, 559-565.
- Way, N.(1997). Using Feminist Research Methods to Understand the Friendships of Adolescent Boys. *Journal of Social Issues*, 53(4), 703-723.
- Won, G. Y. M., Yamamura, D. S. and Ikeda, K.(1969). The Relation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Peers to Deviant Behavior of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1), 43-47.
- Wright, P. H., & Keple, T. W. (1981). Friends and parents of a sample of high school juniors: An exploratory study of relationship intensity and interpersonal rewar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59-570.
- Youniss, J., & Smollar, J. (1985). Adolescents'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難波久美子 (2005). 青年にとって仲間とは何か：対人関係における位置づけと友だち・親友との比較から. *発達心理學研究*16(3).
- 田所 承己 (2005). 青少年の友人関係における〈親密さへの?迫〉と携帯電話コミュニケーション. *情報文化學研究*4, 14-21.
- 柴橋祐子 (2004). 青年期の友人関係における「自己表明」と「他者の表明を望む気持ち」の心理的要因. *教育心理學研究*52(1)
- 山岸明子 (2004). 女子青年がもつ現在の対人的枠組みと生育史に記述された母親及び友人との関係の質との関連. *発達心理學研究*15(2)
- 辻大助 (2004). 若者の親子・友人関係とアイデンティティ：16～17歳を対象とした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から (特集家族や地域社会における人間関係に見られる倫理観・価値観の変化). *関西大學社會學部紀要*35(2), 147-159.
- 藤井恭子 (2001). 青年期の友人関係における山アラシ・ジレンマの分析. *教育心理學研究*49(2).

- 榎本淳子 (2001). 青年期の友人関係における欲求と感情・活動との関連. 教育心理學研究49(2).
- 柴橋祐子 (2001). 青年期の友人関係における自己表明と他者の表明を望む?持ち. 發達心理學研究12(2).
- 野田陽子 (1999). 青少年の友人関係とその変化--非行原因に関する総合的研究調査から(2). 青少年問題46(9), 36-41.
- 武内清 (1996). 青年の友人関係,余暇,地域意識. 青少年問題43(3), 36-43.
- 角野善司 (1995). 青年期の友人関係. 青少年問題42(10), 18-23.
- 上野行良・上瀬由美子・松井豊・福富護 (1994). 青年期の交友関係における同調と心理的距離. 教育心理研究42(1).
- 遠藤利彦 (1994). 青年期の心理と友人関係. 青少年問題42(1), 18-24.
- 岡田努 (1993). 現代の大学生における「内省および友人関係のあり方」と「対人恐怖的心性」との関係. 發達心理學研究4(1).
- 武内清 (1991). 青少年の友人関係とテレビゲーム--「青少年の友人関係に関する國際比較調査」から. 青少年問題38(12), 21-29.

VI. 부 록

1. 한국어 질문지
2. 일본어 질문지
3. 영어 질문지
4. 스웨덴어 질문지

1. 한국어 질문지

청소년들의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에 관한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금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의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한 학교생활에 대해 비교 조사하여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에 의거해서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년 9월 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김은정

설문응답에 대한 부탁의 말씀

1. 질문의 번호 순서대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2. 질문에 따라서는 특정한 분만 응답하셔야 합니다. 문항 뒤에 표시된 지시문 (예: → 문(문 2-1) 로 가세요)에 따라서 응답해 주십시오.
3. 부모님에 관한 질문 중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4. 질문에 따라서는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하는 경우와 **한 곳**에만 체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5. 각 문항에 대해서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주시고, ()나 기타 ()의 괄호 안에는 가급적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SQ 1 당신의 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① 남성 ___② 여성

SQ 2 당신은 몇 년생이십니까? 19□□ 년

SQ 3 당신은 몇 학년입니까?

___① 1학년 ___② 2학년 ___③ 3학년

SQ 4 당신의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① 상 ___② 중상 ___③ 중 ___④ 중하 ___⑤ 하

※ 다음은 당신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SQ 5 당신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 표 해 주십시오. 형제자매, 친척, 기타의 경우는 몇 명인지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 | | |
|---------------|------------------|
| ___① 친아버지 | ___⑦ 외할아버지 |
| ___② 친어머니 | ___⑧ 외할머니 |
| ___③ 양아버지(계부) | ___⑨ 남자형제 (명) |
| ___④ 양어머니(계모) | ___⑩ 여자형제 (명) |
| ___⑤ 친할아버지 | ___⑪ 친척 (명) |
| ___⑥ 친할머니 | ___⑫ 기타 (명) |

SQ 6 당신의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를 안 다녔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2,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원 이상	모르겠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SQ 7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한 개만 고르십시오. (양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p>___ ① 경영자 · 간부직원</p> <p>___ ② 회사원(정규직)</p> <p>___ ③ 공무원</p> <p>___ ④ 계약사원 · 위탁사원 · 파견사원</p> <p>___ ⑤ 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 임시직</p> <p>___ ⑥ 자영업 · 자유업 · 가내업종사자</p> <p>___ ⑦ 기타(구체적으로)</p>	<p>___ ⑧ 학생</p> <p>___ ⑨ 집에서 가사일만 하심</p> <p>___ ⑩ 직업 없음</p> <p>___ ⑪ 잘 모르겠음</p>
---	---

▶ 다음의 **(SQ7-1)**은 ① ~ ⑦ 에 응답한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 (SQ7-1)** 그 일은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표는 1개만)
- ___ ① 전문 · 기술계 직업 (의사/변호사/교원/엔지니어/간호사/작가/디자이너 등)
 - ___ ② 관리직 (과장 이상의 관리직/의원 등)
 - ___ ③ 사무 · 영업직 (사무원/영업사원/은행원/일반공무원 등)
 - ___ ④ 판매 · 서비스 계통 직업(가게주인/점원/외판원/미용사/크리닝/급사/접객/청소 등)
 - ___ ⑤ 기능, 노무, 작업직 (공장노동자/전문기술직/건설작업자/운전기사 등)
 - ___ ⑥ 농업, 임업, 어업직 (식목업, 조경업 포함)
 - 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 ⑧ 잘 모르겠다.

SQ8 당신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한 개만 고르십시오. (양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모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p>___ ① 경영자 · 간부직원</p> <p>___ ② 회사원(정규직)</p> <p>___ ③ 공무원</p> <p>___ ④ 계약사원 · 위탁사원 · 파견사원</p> <p>___ ⑤ 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 임시직</p> <p>___ ⑥ 자영업 · 자유업 · 가내업종사자</p> <p>___ ⑦ 기타(구체적으로)</p>	<p>___ ⑧ 학생</p> <p>___ ⑨ 집에서 가사일만 하심</p> <p>___ ⑩ 직업 없음</p> <p>___ ⑪ 잘 모르겠음</p>
---	---

▶ 다음의 **(SQ8-1)**은 ① ~ ⑦ 에 응답한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 (SQ8-1)** 그 일은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표는 1개만)
- ___ ① 전문 · 기술계 직업 (의사/변호사/교원/엔지니어/간호사/작가/디자이너 등)
 - ___ ② 관리직 (과장 이상의 관리직/의원 등)
 - ___ ③ 사무 · 영업직 (사무원/영업사원/은행원/일반공무원 등)
 - ___ ④ 판매 · 서비스 계통 직업(가게주인/점원/외판원/미용사/크리닝/급사/접객/청소 등)
 - ___ ⑤ 기능, 노무, 작업직 (공장노동자/전문기술직/건설작업자/운전기사 등)
 - ___ ⑥ 농업, 임업, 어업직 (식목업, 조경업 포함)
 - 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 ⑧ 잘 모르겠다.

SQ 9 당신의 집은 생활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표는 1개만)

최하층			중			최상층	잘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다음은 친구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 표 해주세요.

먼저 당신의 친한 친구 4명을 친한 순으로 A, B, C, D로 하여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친한 친구가 4명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가 4명이 넘더라도 4명만 적어주십시오. 만약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문 4** 번으로 가 주십시오.

문 1 (1) A~D의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이름을 적는 이유는 응답할 때 혼동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A~D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아래의 모든 항목에 응답해주시시오.

	A (↓)	B (↓)	C (↓)	D (↓)
(1) 이 친구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이 친구와 관계 있는 것에 모두 √ 표 하십시오.	① 같은 학교 ② 같은 반 ③ 같은 동아리(취미 활동, 스포츠 등) ④ 같은 학원(과외공부, 입시준비) ⑤ 같은 종교 ⑥ 인터넷(채팅, 온라인게임) ⑦ 기타(_____)	① 같은 학교 ② 같은 반 ③ 같은 동아리(취미 활동, 스포츠 등) ④ 같은 학원(과외공부, 입시준비) ⑤ 같은 종교 ⑥ 인터넷(채팅, 온라인게임) ⑦ 기타(_____)	① 같은 학교 ② 같은 반 ③ 같은 동아리(취미 활동, 스포츠 등) ④ 같은 학원(과외공부, 입시준비) ⑤ 같은 종교 ⑥ 인터넷(채팅, 온라인게임) ⑦ 기타(_____)	① 같은 학교 ② 같은 반 ③ 같은 동아리(취미 활동, 스포츠 등) ④ 같은 학원(과외공부, 입시준비) ⑤ 같은 종교 ⑥ 인터넷(채팅, 온라인게임) ⑦ 기타(_____)
(3) 이 친구와 함께 보내는 장소에 모두 √ 표 하십시오	① 학교 ② 학원 ③ 교회, 성당, 절 등 ④ 동아리 ⑤ PC방 ⑥ 노래방 ⑦ 오락실 ⑧ 쇼핑몰 ⑨ 음식점 ⑩ 도서관 ⑪ 공원 ⑫ 기타(_____)	① 학교 ② 학원 ③ 교회, 성당, 절 등 ④ 동아리 ⑤ PC방 ⑥ 노래방 ⑦ 오락실 ⑧ 쇼핑몰 ⑨ 음식점 ⑩ 도서관 ⑪ 공원 ⑫ 기타(_____)	① 학교 ② 학원 ③ 교회, 성당, 절 등 ④ 동아리 ⑤ PC방 ⑥ 노래방 ⑦ 오락실 ⑧ 쇼핑몰 ⑨ 음식점 ⑩ 도서관 ⑪ 공원 ⑫ 기타(_____)	① 학교 ② 학원 ③ 교회, 성당, 절 등 ④ 동아리 ⑤ PC방 ⑥ 노래방 ⑦ 오락실 ⑧ 쇼핑몰 ⑨ 음식점 ⑩ 도서관 ⑪ 공원 ⑫ 기타(_____)
(4) 이 친구와 무슨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가? (해당하는 곳에 모두 √ 표 하십시오)	① 공부·진로 ② 가족생활 ③ 학교생활 ④ 취미 ⑤ 연예/스포츠이야기 ⑥ 이성친구 ⑦ 기타(_____)	① 공부·진로 ② 가족생활 ③ 학교생활 ④ 취미 ⑤ 연예/스포츠이야기 ⑥ 이성친구 ⑦ 기타(_____)	① 공부·진로 ② 가족생활 ③ 학교생활 ④ 취미 ⑤ 연예/스포츠이야기 ⑥ 이성친구 ⑦ 기타(_____)	① 공부·진로 ② 가족생활 ③ 학교생활 ④ 취미 ⑤ 연예/스포츠이야기 ⑥ 이성친구 ⑦ 기타(_____)
(5) 평일 수업이 외에 이 친구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한개만 골라 √ 표 하십시오)	① 1시간미만 ② 1~2시간미만 ③ 2~3시간미만 ④ 3~4시간미만 ⑤ 4시간이상			

문 2 **문 1**의 A~D는 서로 친구 사이입니까?

	잘 모르는 사이	알고 지내는 사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
(1) A와 B는 서로	①	②	③
(2) A와 C는 서로	①	②	③
(3) A와 D는 서로	①	②	③
(4) B와 C는 서로	①	②	③
(5) B와 D는 서로	①	②	③
(6) C와 D는 서로	①	②	③

문 3 **문 1**의 A~D 이외에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 표는 1개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11명 ⑫ 12명 ⑬ 13명 ⑭ 14명 ⑮ 15명 이상

문 4 당신은 직접 만나지 않고 이메일이나 문자, 채팅 등 온라인 상으로만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문 1** 로) ② 없다 (**문 5** 로)

문 1 **문 4**와 같은 친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 표는 1개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11명 ⑫ 12명 ⑬ 13명 ⑭ 14명 ⑮ 15명 이상

문 5 다른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거나 특별히 인기가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모두 골라 √ 표 해주십시오.)

- ① 얼굴이 예쁘고/잘생긴 친구
 ② 옷을 잘 입고 스타일이 세련된 친구
 ③ 성격이 좋은 친구
 ④ 리더십이 있는 친구
 ⑤ 공부를 잘 하는 친구
 ⑥ 화끈하게 잘 노는 친구

- ___ ⑦ 유머감각이 있는 재미있는 친구
- ___ ⑧ 잘 놀면서 공부도 잘하는 친구
- ___ ⑨ 돈 잘 쓰는 친구
- ___ ⑩ 부유한 친구
- ___ ⑪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친구
- ___ ⑫ 기타_____

문 6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외면당하는 친구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 √ 표 해주십시오.)

- ___ ① 못생긴 친구
- ___ ② 옷을 못 입거나 촌스러운 친구
- ___ ③ 성격이 안 좋은 친구
- ___ ④ 잘 사는 친구
- ___ ⑤ 잘 못 사는 친구
- ___ ⑥ 공부를 잘 하는 친구
- ___ ⑦ 공부 못하는 친구
- ___ ⑧ 선생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는 친구
- ___ ⑨ 잘난 척 하는 친구
- ___ ⑩ 눈치 없는 친구
- ___ ⑪ 이기적인 친구
- ___ ⑫ 기타_____

문 7 여러분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음 문항을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빈칸에 √ 표 해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친구에게 의견을 묻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이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 나는 내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고민이 있을 때 내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나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거리낌없이 말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6)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7) 내 친구들은 내가 나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18) 내 친구들은 내일에 대해 항상 걱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19) 내 친구들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0) 내 친구들은 내가 기분이 상했을 때 바로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21) 내 친구들은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2) 내 친구들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23) 내가 속상해 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24) 내 친구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게 짜증을 낼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5) 내 친구들은 어떤 일에 대해 의논할 때 내 의견을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26) 내 친구들은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27)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다.	①	②	③	④
(28)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	①	②	③	④
(29) 친한 친구라면 무엇이든 같이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0) 친한 친구 사이라도 지칠 것은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선생님과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8 당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___① 있다 (문8-1로 가시오) ___② 없다 (문9로 가시오)

문 8-1 선생님을 좋아(존경)하는 이유를 무엇인가요.(해당하는 곳에 모두 골라 √ 표 해주십시오.)

___① 학생들을 잘 이해해준다. ___⑤ 수업이 재밌다/유머가 있다.
 ___②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___⑥ 예쁘다/ 멋있다.
 ___③ 늘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신다. ___⑦ 인품이 훌륭하다.
 ___④ 실력이 있다. ___⑧ 기타_____

문 9 당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___① 있다 (문9-1로 가시오) ___② 없다 (문10로 가시오)

문 9-1 선생님을 싫어하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___① 학생들을 차별한다/ 불공평하다. ___⑤ 실력이 없다.
 ___② 학생들을 무시한다. ___⑥ 잘난 척 한다.
 ___③ 화를 잘 낸다/무섭다. ___⑦ 너무 차갑다/쌀쌀맞다.
 ___④ 수업이 재미없다/ 유머가 없다. ___⑧ 기타_____

문 10 다음은 현재 당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과 편안하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을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좋아(존경)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다정한 친구로 느껴지는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자상하고 친절하여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8)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하고도 대화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나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 11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와 일치하는 곳에 V 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반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친구에게 잘못 했을 때는 먼저 사과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우리반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로 하고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과 같이 친구들을 따돌린다	①	②	③	④
(6)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나는 자주 외로 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학교 친구와 먼저 의논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학교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학교 숙제 및 학습준비를 빠짐없이 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학교공부를 예습하고 복습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학교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장난 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모든 교과목의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시간이라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학교에서 정한 생활규칙을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학교에 있는 물건이나 시설을 아낀다	①	②	③	④
(17)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지킨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쓰레기통에 버린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학교의 각종 게시물, 방송 또는 안내에 주 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학교에 대한 일을 선생님들께 직접 건의 한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학교에 대한 일을 학생회의 등을 통해서 건의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2 다음 문항은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당신의 생각에 가까운 곳에 V표시를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스스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문 13 다음 문항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가까운 곳에 V 표시를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14 다음은 평상시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가까운 곳에 V표시를 하십시오.

	절대 용납 할수 없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1) 수업중에 휴대폰 사용하기, 열차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 하는 것	①	②	③	④
(2) 담배꽂초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기	①	②	③	④
(3) 시험 볼 때 컨닝하기	①	②	③	④
(4) 알고 싶다고 해서 남의 사생활에 개입하기	①	②	③	④
(5) 음식점이나 열차 안 등 공공장소에서 화장하기	①	②	③	④

문 15 당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가까운 곳에 V표시를 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가족끼리 화목하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3) 부모에게 외출장소를 알린다	①	②	③	④
(4) 가족끼리 서로의 고민을 털어 놓는다	①	②	③	④
(5)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도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장래 진로를 늘 생각하며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문 16 당신은 어디까지 교육받길 희망합니까? (√ 표시 1개만)

___① 중학교 ___② 고등학교 ___③ 전문대 ___④ 대학교 ___⑤ 대학원이상

문 17 **문 16**에 응답한 학교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 유학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___① 예 ___② 아니오

문 18 당신이 지금 하고 있거나 다니고 있는 곳에 모두 √ 표시 하시오.

- ___ ① 학원 ___ ② 과외공부 ___ ③ 교육방송 수업(인터넷 방송)
___ ④ 기타 _____

문 19 당신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공부하는 시간(학원이나 과외공부 시간 포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1) 평일 (학교수업이 있는 날)

--	--

 시간

--	--

 분
- (2)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놀토)

--	--

 시간

--	--

 분
- (3) 휴일 (학교수업이 없는 날)

--	--

 시간

--	--

 분

문 20 당신은 최근 1년간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V표시 1개만)

- ___ ① 늘 그렇다 ___ ② 종종 있다 ___ ③ 거의 없다 ___ ④ 전혀 없다

문 21 당신은 최근 1년 동안 아프거나 경제적인 문제 이외의 문제로 학교에 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V표시 1개만)

- ___ ① 없다 ___ ② 1주일 정도 ___ ③ 2주일 정도
___ ④ 3주일 정도 ___ ⑤ 4주일 이상

문 22 다음 문항은 당신과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표해 주십시오.(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와, 에게)				어머니는(와, 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공부와 성적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나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나의 친한 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23 당신은 (1)~(5)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V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만족스러운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2) 친구관계	①	②	③	④
(3) 교사와의관계	①	②	③	④
(4) 가정생활	①	②	③	④
(5) 생활전체	①	②	③	④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일본어 질문지

◎ 青少年の生活に関する調査 ◎

2007年 8 月

(調査企画)慶應義塾大学文学部 渡辺秀樹 研究室

(調査実施)社団法人 中央 調 査 社

支局 No.	地点 No.	対象 No.	点 検 者

①～⑦

質問回答に対するお願い

1. 質問の番号の順番に従って、お答えください。
2. 質問によっては、一部の方だけにお伺いする質問もあります。
各質問の指示 (例: 問2-1にお進みください など) に従ってお答えください。
3. 両親に関する質問のうち、両親がいない場合は保護者についてお答えください。
4. 質問によってはあてはまるものを全て回答する場合と回答は1つだけの場合がありますので、各質問の指示にご注意ください。
5. 「その他」を回答された場合は、その他 () の括弧の中にはなるべく詳細に書いてください。
6. 調査票の右欄の①や などの数字は集計上の記号です。お気になさらずお答えください。

まずあなた自身のことについて、お伺いします。

Sq1. あなたの性別を教えてください。(○は1つ)

- ① 男性 ② 女性

Sq2. あなたは何年生まれですか。西暦の下2ケタでお答えください。

19 年

Sq3. あなたはどの学校に通っていますか。(○は1つ)

- ① 中学校 ② 高校(普通科) ③ 高校(職業科)
④ 高校(単位制) ⑤ 高校(専門学科・総合学科)
⑥ 高校(定時制・通信制) ⑦ その他()

Sq4. あなたが通っている学校は、中高一貫校(中等教育学校を含む)ですか。
(○は1つ)

- ① はい ② いいえ

Sq5. あなたの出身学校はどれに当たりますか。(○は1つ)

- ① 私立 ② 国立 ③ 都道府県立 ④ 市町村立
⑤ その他()

Sq6. あなたは何年生ですか。(○は1つ)

- ① 中学2学年 ② 中学3学年 ③ 高校1学年 ④ 高校2年生
⑤ その他()

Sq7. あなたの成績はどの程度でしょうか。(○は1つ)

- ① 上 ② 中の上 ③ 中 ④ 中の下 ⑤ 下

次に、あなたのご両親についておうかがいします。

Sq8. 現在、あなたと一緒に住んでいる方を次の中からすべてお答えください。
(○はいくつでも)

兄弟姉妹や親戚の方、その他の人の場合は、その人数をご記入ください。

- 1 実の父親 7 祖父(母方)
2 実の母親 8 祖母(母方)
3 継父 9 男の兄弟(名)
4 継母 10 女の兄弟(名)
5 祖父(父方) 11 その他の親戚(名)
6 祖母(父方) 12 その他(名)(具体的に)

Sq9. あなたのご両親は、学校をどこまで卒業しましたか。(継父・継母と一緒に住んでいる場合は、継父・継母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は1つずつ)

	学校に通ったことはない	小学校卒業	中学校卒業	高校卒業	専門学校	短大 高専 卒業 (2、3 年制)	大学 卒業 (4年制)	大学院 以上	わからない
父親	1	2	3	4	5	6	7	8	9
母親	1	2	3	4	5	6	7	8	9

Sq10. あなたの父親は、どのようなお仕事をしていますか。最も近いものを1つだけ選んでください。
(継父と一緒に住んでいる場合には、継父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経営者・役員 ② 会社員(正規職) ③ 公務員 ④ 契約社員・委託社員・派遣社員 ⑤ アルバイト・パート・臨時職 ⑥ 自営業・自由業・家族従事者 ⑦ その他(具体的に)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⑧ 学生 ⑨ 専業主夫 ⑩ 無職 ⑪ よくわからない
---	---

→ Sq.11へ

→ 次のSq10-1は、①から⑦に答えた方がお答えください。

Sq10-1. その仕事を大きく分けると、次のどこに当てはまりますか。(○は1つ)

- ① 専門・技術系の職業
(医者 / 弁護士 / 教員 / エンジニア / 看護師 / 作家 / デザイナーなど)
- ② 管理職 (課長以上の管理職など)
- ③ 事務・営業職 (会社員 / 銀行員 / 国家・地方公務員など)
- ④ 販売・サービス職
(店員/販売員/美容・理容師/クリーニング業/清掃業/ホールスタッフなど)
- ⑤ 技能、労務、作業職
(工場労働者 / 建設作業員/運送業者/自動車整備士など)
- ⑥ 農業、林業、漁業職 (植木業、造園業を含む)
- ⑦ その他(具体的に)
- ⑧ よくわからない

Sq11. あなたの母親は、どのようなお仕事をしていますか。最も近いものを1つだけ選んでください。(継母と一緒に住んでいる場合には、継母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⑫ 経営者・役員 ⑬ 会社員（正規職） ⑭ 公務員 ⑮ 契約社員・委託社員・派遣社員 ⑯ アルバイト・パート・臨時職 ⑰ 自営業・自由業・家族従事者 ⑱ その他（具体的に ）	⑲ 学生 ⑳ 専業主婦 ① 無職 ② よくわからない
---	-------------------------------------

└──────────▶ Sq.12へ

▶ 次のSq11-1は、①から⑦に答えた方がお答えください。

Sq11-1. その仕事を大きく分けると、次のどこに当てはまりますか。（○は1つ）

- ① 専門・技術系の職業
(医者 / 弁護士 / 教員 / エンジニア / 看護師 / 作家 / デザイナーなど)
- ② 管理職（課長以上の管理職など）
- ③ 事務・営業職（会社員 / 銀行員 / 国家・地方公務員など）
- ④ 販売・サービス職
(店員/販売員/美容・理容師/クリーニング業/清掃業/ホールスタッフなど)
- ⑤ 技能、労務、作業職
(工場労働者 / 建設作業員/運送業者/自動車整備士など)
- ⑥ 農業、林業、漁業職（植木業、造園業を含む）
- ⑦ その他(具体的に)
- ⑧ よくわからない

Sq12. あなたのご家庭の生活水準は、次のどれにあたると思いますか。
(○は1つ)

最下層			中			最上層		よくわからな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次は、友人関係に関する質問です。

まず、あなたの友人を、親しい順に、Aさん、Bさん、Cさん、Dさんとして、以下の問にお答えください。4人いない方は、それよりも少なくても構いません。また、4人を超える場合は、4人まで書いてください。もし、1人もいない方は、問4へおすすみください。

問1. A～Dさんのお名前をご記入ください。お名前を記入する理由は、回答の時の混同を避けるためです。次にA～Dさんとの関係をお聞きする各項目の設問についてすべてお答えください。

	(Aさん) ↓	(Bさん) ↓	(Cさん) ↓	(Dさん) ↓
(1) この人の性別は?	1.男性 2.女性	1.男性 2.女性	1.男性 2.女性	1.男性 2.女性
(2) この人とどのようなかかわりがありますか。全て○をつけてください。	1. 同じ学校 2. 同じクラス 3. 同じ部活・サークル 4. 同じ塾 5. 同じ宗教 6. インターネット (ブログ、掲示板など) 7. その他 ()	1. 同じ学校 2. 同じクラス 3. 同じ部活・サークル 4. 同じ塾 5. 同じ宗教 6. インターネット (ブログ、掲示板など) 7. その他 ()	1. 同じ学校 2. 同じクラス 3. 同じ部活・サークル 4. 同じ塾 5. 同じ宗教 6. インターネット (ブログ、掲示板など) 7. その他 ()	1. 同じ学校 2. 同じクラス 3. 同じ部活・サークル 4. 同じ塾 5. 同じ宗教 6. インターネット (ブログ、掲示板など) 7. その他 ()
(3) この人と一緒に過ごす場所に、全て○をつけてください。	1. 学校 2. 学習塾・予備校 3. 教会、宗教施設など 4. 部活 5. インターネット・マンガ喫茶 6. カラオケボックス 7. ゲームセンター 8. ショッピングモール・百貨店 9. 飲食店 10. 図書館 11. 公園 12. その他 ()	1. 学校 2. 学習塾・予備校 3. 教会、宗教施設など 4. 部活 5. インターネット・マンガ喫茶 6. カラオケボックス 7. ゲームセンター 8. ショッピングモール・百貨店 9. 飲食店 10. 図書館 11. 公園 12. その他 ()	1. 学校 2. 学習塾・予備校 3. 教会、宗教施設など 4. 部活 5. インターネット・マンガ喫茶 6. カラオケボックス 7. ゲームセンター 8. ショッピングモール・百貨店 9. 飲食店 10. 図書館 11. 公園 12. その他 ()	1. 学校 2. 学習塾・予備校 3. 教会、宗教施設など 4. 部活 5. インターネット・マンガ喫茶 6. カラオケボックス 7. ゲームセンター 8. ショッピングモール・百貨店 9. 飲食店 10. 図書館 11. 公園 12. その他 ()
(4) この人とどんな話をすることが多いですか。全て○をつけてください。	1. 勉強・進路 2. 家族生活 3. 学校生活 4. 趣味 5. 芸能 / スポーツ 6. 異性の友人 7. その他 ()	1. 勉強・進路 2. 家族生活 3. 学校生活 4. 趣味 5. 芸能 / スポーツ 6. 異性の友人 7. その他 ()	1. 勉強・進路 2. 家族生活 3. 学校生活 4. 趣味 5. 芸能 / スポーツ 6. 異性の友人 7. その他 ()	1. 勉強・進路 2. 家族生活 3. 学校生活 4. 趣味 5. 芸能 / スポーツ 6. 異性の友人 7. その他 ()
(5) 授業以外で、平日、この人と何時間程度一緒にすごしますか。(○は1つ)	1. 1時間未満 2. 1～2時間未満 3. 2～3時間未満 4. 3～4時間未満 5. 4時間以上			

問6. 仲間外れやいじめの対象になりやすい友だちの特徴はどれですか。(○はいくつでも)

- ___ ① 顔がかわいくない/かっこよくない友だち
- ___ ② 洋服のセンスがよくない友だち
- ___ ③ 性格がよくない友だち
- ___ ④ 金持ちの友だち
- ___ ⑤ 貧しい友だち
- ___ ⑥ 勉強ができる友だち
- ___ ⑦ 勉強ができない友だち
- ___ ⑧ 先生から特別な関心を受けている友だち
- ___ ⑨ 自慢ばかりする友だち
- ___ ⑩ 気のきかない友だち
- ___ ⑪ 自分中心的な友だち
- ___ ⑫ その他 _____

問7. あなたと友だちの関係について、次の質問を読んで、全ての項目に答えてください。(それぞれ○は1つずつ)

		まっ た く そ う で は な い	ど ち ら か と い え ば 、 そ う で は な い	ど ち ら か と い え ば 、 そ う で あ る	ま っ た く そ う で あ る
1	私は、心配事がある時、友だちの意見を聞く	①	②	③	④
2	私は、友だちに個人的な問題に関して話す時、恥ずかしかったり、自分自身をおろかに思う	①	②	③	④
3	私は、自分の友だちが現在いる友だちではなく、他の友だちであればと思う	①	②	③	④
4	私は、友だちともっと頻繁に会って、連絡を取りたい	①	②	③	④
5	私と友人とは、よい友だち付き合いをしていると思う	①	②	③	④
6	私は、友だちと一緒にいる時にも寂しさを感じる	①	②	③	④
7	私は、友だちとの出会いを通じて自分自身をもっとよく理解できるようになった	①	②	③	④
8	私は友だちのせいで、腹が立つ時がある	①	②	③	④
9	私は悩みがある時、自分の友だちに頼ることができる	①	②	③	④
10	私は友だちのことを信じている	①	②	③	④
11	私は、友だちに個人的な問題や心配事について、遠慮しないで話をする事ができる	①	②	③	④
12	私は、現在付き合い合っている友だちと長く付き合いたい	①	②	③	④
13	私は、友だちと一緒にいると楽しい	①	②	③	④
14	私は、友だちと同じ考え方や感情をもつように努力するタイプだ	①	②	③	④
15	私は、私の友だちとの関係を大事にする	①	②	③	④
16	私が怒った時、友だちは私のことを理解しようと努力する	①	②	③	④

		ま っ た う そ う で は な い	ど ち ら か と い え ば 、 そ う で は な い	ど ち ら か と い え ば 、 そ う で あ る	ま っ た う そ う で あ る
17	私の友だちは、私の大変さを話せるように励ましてくれる	①	②	③	④
18	私の友だちは、私のことをいつも心配してくれる	①	②	③	④
19	私の友だちは、ありのままの私を受け入れてくれる	①	②	③	④
20	私の友だちは、私の気持ちが悪い時すぐ気づいてくれる	①	②	③	④
21	私の友だちは、最近私がどのように過ごしているのかわかる	①	②	③	④
22	私の友だちは、私の気持ちを尊重してくれる	①	②	③	④
23	私は腹が立った時、友だちは取るに足りないと思う傾向がある	①	②	③	④
24	私の友だちは何の理由もなく、私に八つ当たりする傾向がある	①	②	③	④
25	私の友だちは、あることを議論する時、私の意見を考えてくれる	①	②	③	④
26	私の友だちは、私に何かの問題がある時に、そのことを聞いてくれる	①	②	③	④
27	私の友だちは、私が言うことを耳に留めている	①	②	③	④
28	私の友だちは、私のことを理解していると思っている	①	②	③	④
29	親しい友だちであれば、何でも一緒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①	②	③	④
30	親しい友だちだとしても、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がある	①	②	③	④

次は先生との関係に対する質問です。

問8. あなたが現在通っている学校に、好きな先生や尊敬する先生はいますか。

(○は1つ)

___ ① いる(問8-1へ)

___ ② いない(問9へ)

問8-1. その先生が好きな理由(または尊敬する理由)は何ですか。(○はいくつでも)

- ___ ① 生徒のことをよく理解してくれる
- ___ ② 親切に教えてくれる
- ___ ③ いつも最善を尽くして教えてくれる
- ___ ④ 実力がある
- ___ ⑤ 授業面白い/ユーモアがある
- ___ ⑥ 綺麗/格好良い
- ___ ⑦ 人格がすばらしい
- ___ ⑧ その他 _____

問9. あなたが現在通っている学校に嫌いな先生がいますか。 (○は1つ)
 _____① いる(問9-1へ) _____② いない(問10へ)

問9-1. 先生が嫌いな理由は何ですか。 (○はいくつでも)

- ① 生徒を差別する/ 不公平である
- ② 生徒を無視する
- ③ よく怒る/怖い
- ④ 授業が面白くない/ ユーモアがない
- ⑤ 実力が無い
- ⑥ 偉そうな顔をする
- ⑦ つめたい
- ⑧ その他_____

問10. 次は現在あなたが通っている学校の先生に対する質問です。あなたの考え方と最も近いところに○をしてください。 (それぞれ○は1つずつ)

		まったく そうでは ない	どちら かとい えばそ うでは ない	どちらか といえ ばそう である	ま った く そ う で あ る
1	私は、学校の先生と気楽に話しをする	①	②	③	④
2	私は、学校の先生と道で会うと、喜んで挨拶をする	①	②	③	④
3	私は、学校の先生が好きだ (尊敬している)	①	②	③	④
4	私は、学校の先生をやさしい友だちとして感じる時がある	①	②	③	④
5	私は、安心して話ができる先生がいる	①	②	③	④
6	私は、学校の先生に感謝している	①	②	③	④
7	私の学校の先生たちは、優しく親切で、近く接しやすい	①	②	③	④
8	私の学校の先生たちは、私に愛情と関心をみせてくれる	①	②	③	④
9	私は、将来に先生のような人になりたい	①	②	③	④
10	私は、校長先生や教頭先生とも対話をする時がある	①	②	③	④
11	私には、私の悩みを相談できる先生がいる	①	②	③	④

次はあなたご自身についての質問です。

問12. 次の項目を読み、あなたの考え方に最も近いものに○をしてください。
（それぞれ○は1つずつ）

	まったく そうでは ない	どちらか といえは そうでは ない	どちらか といえは そうであ る	まったく そうであ る
1) 私は自分のことを人柄のよい人間だと思う	①	②	③	④
2) 私は自分のことを能力のある人間だと思う	①	②	③	④
3) 私は自分のことを価値のある人間だと思う	①	②	③	④
4) 私は時々自分のことを不要な人間だと思う	①	②	③	④
5) 私は時々自分のことを悪い人間だと思う	①	②	③	④
6) 私は大体自分を失敗した人間だと思う方である	①	②	③	④

問13. 次の項目は、あなたご自身に対する質問です。あなたの考え方に近いものに○をしてください。（それぞれ○は1つずつ）

	まったく そうでは ない	どちらか といえは そうでは ない	どちらか といえは そうであ る	まったく そうであ る
1) 私は自分の判断が信頼できる	①	②	③	④
2) 私は、私の問題を自ら解決できると信じている	①	②	③	④
3) 私は、自分の人生を主体的に過ごしている	①	②	③	④

問14. 日常生活の次のような出来事について、あなたの考え方に近いものに○をしてください。（それぞれ○は1つずつ）

	抵抗があ る	ある程度 抵抗があ る	あまり抵 抗はない	抵抗はな い
1) 授業中や電車、バスの車内で携帯電話を使用する	①	②	③	④
2) タバコやごみのポイ捨てをする	①	②	③	④
3) カンニングをすること	①	②	③	④
4) 自分が知りたいという目的で他人のプライバシーに介入すること	①	②	③	④
5) レストランや電車内など、公衆の面前で化粧をすること	①	②	③	④

問15. あなたの日常生活について、あなたの考え方に近いところに○をしてください。(それぞれ○は1つずつ)

	まったく そうでは ない	どちらか といえば そうでは ない	どちらか といえば そうである	まったく そうである
1) 私の家族の仲は良い	①	②	③	④
2) 両親のことを尊敬している	①	②	③	④
3) 親に外出先を報告している	①	②	③	④
4) 家族内でお互いの悩みを打ち明けられる	①	②	③	④
5) 学業も大事だが、アルバイトなどの経験も重要である	①	②	③	④
6) 将来の進路を常に考えて行動している	①	②	③	④
7) 学校の校則には不要なものが多い	①	②	③	④
8) 私の学校の校則はあまり厳しくなく、本人の自由に任せていることが多い	①	②	③	④
9) 先生は校内の風紀を保つため、行き届いた校則にもとづく指導を行うべきだ	①	②	③	④
10) 学校の中にいるよりも、学校の外での生活のほうが楽しい	①	②	③	④
11) 成績や進路について、親や先生の期待を重く感じている	①	②	③	④
12) 授業や学習で得た知識はいずれ将来の仕事や社会の役に立つと思っている	①	②	③	④
13) テストでは途中の考え方より、答えがあっていたかどうか気になる	①	②	③	④
14) テストや成績が良ければ、仲間や友人からよく尊敬されると思っている	①	②	③	④

問16. あなたはどこまで教育を受けることを望んでいますか。(○は1つ)

- ① 中学校 ② 高校 ③ 専門学校 ④ 短大・高専
 ⑤ 大学 ⑥ 大学院以上

問17. 問16に答えた学校まで勉強するため、外国留学をする考えも持っていますか。(○は1つ)

- ① はい ② いいえ

問18. あなたが次の学校以外の教育機関について、現在通っているところすべてに○をしてください。(○はいくつでも)

- ① 学習塾・予備校 ② 家庭教師・個別指導教室
 ③ 通信教育・添削指導
 ④ 教育放送の授業(インターネット放送)
 ⑤ その他 _____

問19. あなたが学校以外の場所で勉強する時間(塾や課外勉強の時間を含む)は、どのくらいですか。

(1) 平日(学校の授業がある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時間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分
(2) 学校に行かない土曜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時間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分
(3) 休日(学校の授業がない日)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時間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分

問20. あなたは最近の1年間、学校に行きたくないと思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は1つ)

- ① いつもあった ② ときどきあった
 ③ ほとんどなかった ④ まったくなかった

問21. あなたは、これまでの1年間で、病気や経済的な理由以外で、学校にいかなか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は1つ)

- ① 無かった ② 1週間程度 ③ 2週間程度
 ④ 3週間程度 ⑤ 4週間以上

問22. 次の質問は、あなたとあなたの両親との関係についての質問です。当てはまる番号に○をしてください。
 継父母と一緒に住んでいる場合は、継父母について答えてください。
 (それぞれ○は1つずつ)

	父親				母親			
	そうではない まったく	そうではない いえば どちらかと	そうである どちらか といえ	そうである まったく	そうではない まったく	そうではない いえば どちらかと	そうである いえば どちらかと	そうである まったく
(1) 私の心配や悩みを きいてくれる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勉強や成績について 話をする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私の友達のことについて 話をする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私の親しい友人の ことを知っている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問23. あなたは、(ア) から (オ) の点について、どれくらい満足していますか。(それぞれ○は1つずつ)

	とても 不満	どちらかと いえば不満	どちらかと いえば満足	とても満足
(ア) 学校生活について	①	②	③	④
(イ) 友人関係について	①	②	③	④
(ウ) 先生との関係について	①	②	③	④
(エ) 家庭生活について	①	②	③	④
(オ) 生活全体	①	②	③	④

3. 영어 질문지

A Study of Youth's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Life

Dear Students:

We invite you to participate in a research study being conducted by investigators from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of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and compare the changing peer relationships among teenager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eachers from five different countries: South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Sweden..

If you agree to participate, we would like you to read the questions that deal with your relationship with your friends and your teachers and your attitudes about related matters. For each question, you are asked to choose appropriate answers that apply to you most closely.

While you are working on this questionnaire, we expect you to answer all the questions in order, without skipping any of the question items. Certain questions are for the ones who give particular answers to the previous questions; in that case, go to the designated questions according to the directions (Example: go to Q2). In the questions about your parents, you can answer about your guardian(s) if you don't have parents. Some questions ask you to check all the items that apply to you or to choose two answers depending upon your priority. In Other questions, you are asked to check one answer only. Therefore we suggest that you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number of the answers you are supposed to give.

It will take approximately 30 minutes to finish the whole questionnaire.

Your answers will be handled electronically and purely for statistical analysis. We will not collect your name or any identifying information about you, except your age and gender. It will not be possible for anyone to link you to your responses. Your anonymity is further assured

SQ6 What is the highest education level that your parents have attained?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parents, provide a response about your stepparents.) Check the answer that fits best for each.

	No formal education	Complete elementary school	Complete middle school	Complete high school	Some college-level education	University-level education, with a degree	Graduate school or higher	I don't know
Father	(1)	(2)	(3)	(4)	(5)	(6)	(7)	(8)
Mother	(1)	(2)	(3)	(4)	(5)	(6)	(7)	(8)

SQ7 What is your father's state of employment? Check only one choice that applies to you closest.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father, provide a response about your stepfather.)

- (1) Employer/Executive
- (2) Company employee (regular)
- (3) Government employee
- (4) Contract-based employee/Dispatched employee (non-regular)
- (5) Part-timer/Temporary worker
- (6) Self-employed/Professional/Telecommuter
- (7) Other
- (8) Student
- (9) Homemaker
- (10) Unemployed
- (11) I don't know

Those who check among (1)-(7) go to SQ7-1.

SQ7-1 Which of the following specifically indicate your father's occupation? Check one answer only.

- (1) Professional (doctor/lawyer/teacher/engineer/nurse/writer/designer)
- (2) Administrator
(managerial position from a section chief and upward/legislator)
- (3) Clerical (office worker/sales worker/bank teller/civil servant)
- (4) Sales/Employee in Service industry
(proprietor/shop clerk/salesman/beautician/cleaner/waiter/receptionist/janitor)
- (5) Technician/Laborer
(factory worker/mechanic/construction worker/vehicle operator)
- (6) Agriculture/Forestry/Fishery (landscaper/forester)
- (7) Other (indicate specifically: _____)

- __ (8) I don't know
- SQ8 What is your mother's state of employment? Check only one choice that applies to you closest.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mother, provide a response about your stepmother.)
- __ (1) Employer/Executive
 __ (2) Company employee (regular)
 __ (3) Government employee
 __ (4) Contract-based employee/Dispatched employee (non-regular)
 __ (5) Part-timer/Temporary worker
 __ (6) Self-employed/Professional/Telecommuter
 __ (7) Other
 __ (8) Student
 __ (9) Homemaker
 __ (10) Unemployed
 __ (11) I don't know
- Those who check among (1)-(7) go to SQ8-1.

- SQ8-1 Which of the following specifically indicate your mother's occupation? Check one answer only.
- __ (1) Professional (doctor/lawyer/teacher/engineer/nurse/writer/designer)
 __ (2) Administrator
 (managerial position from a section chief and upward/legislator)
 __ (3) Clerical (office worker/sales worker/bank teller/civil servant)
 __ (4) Sales/Employee in Service industry
 (proprietor/shop clerk/salesman/beautician/cleaner/waiter/receptionist/janitor)
 __ (5) Technician/Laborer
 (factory worker/mechanic/construction worker/vehicle operator)
 __ (6) Agriculture/Forestry/Fishery (landscaper/forester)
 __ (7) Other (indicate specifically: _____)
 __ (8) I don't know

SQ9 What is your family's standard of living? Check one answer only.

Lower class		Middle class			Upper class		Don't know well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 The following questions deal with your relationship with your friends. Check the choices that fit in with you.

Please answer about your close friends. You may choose up to four of your best friends A, B, C, and D. If you don't have a best friend, go to Q4.

Q1 Write down the names of A, B, C, and D so that you may not get confused while responding. Read the following carefully and answer all the items below about your best friends A-D.

	A () ↓	B () ↓	C () ↓	D () ↓
(1) What is the gender of this friend?	① Male ② Female	① Male ② Female	① Male ② Female	① Male ② Female
(2) Check all the answers that apply to this friend.	① Same school ② Same class ③ Same extracurricular club ④ Same learning center ⑤ Same religion ⑥ The Internet(e.g. chatting, online games) ⑦ Other ()	① Same school ② Same class ③ Same extracurricular club ④ Same learning center ⑤ Same religion ⑥ The Internet(e.g. chatting, online games) ⑦ Other ()	① Same school ② Same class ③ Same extracurricular club ④ Same learning center ⑤ Same religion ⑥ The Internet(e.g. chatting, online games) ⑦ Other ()	① Same school ② Same class ③ Same extracurricular club ④ Same learning center ⑤ Same religion ⑥ The Internet(e.g. chatting, online games) ⑦ Other ()
(3) Check all the places where you spend time with this friend.	① School ② Learning center ③ Church, temple, or other place of worship ④ Extracurricular club ⑤ Internet cafes ⑥ Karaoke ⑦ Computer game rooms ⑧ Shopping malls ⑨ Restaurants ⑩ Libraries ⑪ Parks ⑫ Other ()	① School ② Learning center ③ Church, temple, or other place of worship ④ Extracurricular club ⑤ Internet cafes ⑥ Karaoke ⑦ Computer game rooms ⑧ Shopping malls ⑨ Restaurants ⑩ Libraries ⑪ Parks ⑫ Other ()	① School ② Learning center ③ Church, temple, or other place of worship ④ Extracurricular club ⑤ Internet cafes ⑥ Karaoke ⑦ Computer game rooms ⑧ Shopping malls ⑨ Restaurants ⑩ Libraries ⑪ Parks ⑫ Other ()	① School ② Learning center ③ Church, temple, or other place of worship ④ Extracurricular club ⑤ Internet cafes ⑥ Karaoke ⑦ Computer game rooms ⑧ Shopping malls ⑨ Restaurants ⑩ Libraries ⑪ Parks ⑫ Other ()
(4) Check all the topics which you discuss frequently with this friend	① Grades/future career path ② Family life ③ School life ④ Hobbies ⑤ Showbiz/ sports ⑥ Boyfriends/ girlfriends ⑦ Other ()	① Grades/future career path ② Family life ③ School life ④ Hobbies ⑤ Showbiz/ sports ⑥ Boyfriends/ girlfriends ⑦ Other ()	① Grades/future career path ② Family life ③ School life ④ Hobbies ⑤ Showbiz/ sports ⑥ Boyfriends/ girlfriends ⑦ Other ()	① Grades/future career path ② Family life ③ School life ④ Hobbies ⑤ Showbiz/ sports ⑥ Boyfriends/ girlfriends ⑦ Other ()
(5) How much time do you spend with this friend besides weekday classes (check one answer only).	① Less than 1 hour ② Less than 1-2 hours ③ Less than 2-3 hours ④ Less than 3-4 hours ⑤ More than 4 hours	① Less than 1 hour ② Less than 1-2 hours ③ Less than 2-3 hours ④ Less than 3-4 hours ⑤ More than 4 hours	① Less than 1 hour ② Less than 1-2 hours ③ Less than 2-3 hours ④ Less than 3-4 hours ⑤ More than 4 hours	① Less than 1 hour ② Less than 1-2 hours ③ Less than 2-3 hours ④ Less than 3-4 hours ⑤ More than 4 hours

Q2 Are A-D in Q1 friends to each other? Check the number that best fits their relationship.

	Don't know each other	Know each other	Are close to each other
A and B	①	②	③
A and C	①	②	③
A and D	①	②	③
B and C	①	②	③
B and D	①	②	③
C and D	①	②	③

Q3 What other close friends do you have other than A-D from Q1? Check the number. Be sure to give only one answer.

- __ (1) One
- __ (2) Two
- __ (3) Three
- __ (4) Four
- __ (5) Five
- __ (6) Six
- __ (7) Seven
- __ (8) Eight
- __ (9) Nine
- __ (10) Ten
- __ (11) Eleven
- __ (12) Twelve
- __ (13) Thirteen
- __ (14) Fourteen
- __ (15) Fifteen
- __ (16) More than fifteen

Q4 Do you have friends that you meet only on-line, for example, only through e-mail, text message, or chatting?

- __ (1) Yes (go to Q4-1)
- __ (2) No (go to Q5)

Q4-1 If you have friends meeting only on-line, how many are there? Check the number. Be sure to give only one answer to items 1-16.

- __ (1) One
- __ (2) Two
- __ (3) Three
- __ (4) Four

- (5) Five
- (6) Six
- (7) Seven
- (8) Eight
- (9) Nine
- (10) Ten
- (11) Eleven
- (12) Twelve
- (13) Thirteen
- (14) Fourteen
- (15) Fifteen
- (16) More than fifteen

Q5 Check all the characteristics of boys or girls who you believe are extremely popular or likely to be the objects of envy.

- (1) Good looks
- (2) Sophisticated sense of fashion
- (3) Good personality
- (4) Leadership
- (5) High academic standing
- (6) Playing enthusiastically
- (7) Good sense of humor
- (8) High academic achievement accompanied with playfulness
- (9) Spending lots of money
- (10) Wealth
- (11) Kindness/Caring
- (12) Other _____

Q6 Check all the characteristics of boys or girls who you believe are likely to be ostracized.

- (1) Plain looks
- (2) Poor sense of fashion
- (3) Bad personality
- (4) Wealth
- (5) Poverty
- (6) High academic standing
- (7) Low academic standing
- (8) Getting special notice from teachers
- (9) Arrogance
- (10) Lacking awareness of what is going on around

__(11) Selfishness

__(12) Other _____

Q7 How do you get along with your friends? Read the questions carefully and check the number that best fits you. Be sure to answer all the items 1-30 below.

	Questions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I consult with my friends when I have concerns.	①	②	③	④
(2)	I feel ashamed or foolish whenever I talk to my friends about my problems.	①	②	③	④
(3)	I wish I could have different friends from the ones that I have now.	①	②	③	④
(4)	I want to meet or get in touch with my friends more frequently.	①	②	③	④
(5)	I think my friends are good people.	①	②	③	④
(6)	I feel lonely even when I am with my friends.	①	②	③	④
(7)	I could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myself thanks to my relationships with friends.	①	②	③	④
(8)	I often get angry because of my friends.	①	②	③	④
(9)	I can count on my friends when I have concerns.	①	②	③	④
(10)	I trust my friends.	①	②	③	④
(11)	I discuss my concerns and problems with my friends without reserve.	①	②	③	④
(12)	I hope to maintain my relationships with friends as long as possible.	①	②	③	④
(13)	I feel happy when I am with my friends.	①	②	③	④
(14)	I try to have the same opinions or feelings as my friends.	①	②	③	④
(15)	I put lots of value on my relationship with friends.	①	②	③	④
(16)	When I am angry for some reason, my friends try to understand me.	①	②	③	④
(17)	My friends encourage me to discuss my difficulties with them..	①	②	③	④
(18)	My friends are always concerned about my personal matters.	①	②	③	④
(19)	My friends take me as I am.	①	②	③	④
(20)	My friends recognize instantaneously when I feel hurt.	①	②	③	④
(21)	My friends have no idea of how I am getting along.	①	②	③	④
(22)	My friends respect my emotions.	①	②	③	④
(23)	My friends tend to have little regard for my feelings when I am upset.	①	②	③	④

	Questions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24)	My friends often show temper to me without reason.	①	②	③	④
(25)	My friends take my opinions into consideration when they discuss things.	①	②	③	④
(26)	My friends ask me first about my problems when I seem to have any.	①	②	③	④
(27)	My friends listen to what I say.	①	②	③	④
(28)	My friends understand me.	①	②	③	④
(29)	Whatever you do, you should do it together with your friends if you are close enough.	①	②	③	④
(30)	You should respect each other's individual ways even if you are close friends.	①	②	③	④

※ The following questions deal with your relationship with your teachers.

Q8 Is there a teacher that you like or respect in the school you are attending now?

- (1) Yes (go to Q8-1) (2) No (go to Q9)

Q8-1 Check all the reasons that you like/respect the teacher.

The teacher

- __ (1) Understands students well
 __ (2) Is kind when teaching
 __ (3) Does his/her best when teaching
 __ (4) Has a good knowledge of the area he/she is teaching
 __ (5) Is humorous/His or her class is fun
 __ (6) Has good looks
 __ (7) Has a good personality
 __ (8) Other (_____)

Q9 Is there a teacher that you dislike in the school you are attending now?

- (1) Yes (go to Q9-1) (2) No (go to Q10)

Q9-1 Check all the reasons you dislike the teacher.

The teacher

- __ (1) Treats students with partiality
 __ (2) Pays little attention to students
 __ (3) Gets angry with students easily
 __ (4) Lacks humor -his/her class is dull
 __ (5) Has a poor knowledge of the area he/she is teaching

- __ (6) Is arrogant
 __ (7) Treat students stiffly
 __ (8) Other (_____)

Q10 The following questions deal with the teachers at the school you are currently attending. Read the questions carefully and check the number that is closest to your opinion.

	Questions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I am comfortable speaking with my teachers.	①	②	③	④
(2)	I say hello or wave to my teachers when I come across them on the street.	①	②	③	④
(3)	I like/respect my teachers.	①	②	③	④
(4)	Teachers are often viewed as if they were my good friends.	①	②	③	④
(5)	I've got a few teachers with whom I can discuss anything heart to heart.	①	②	③	④
(6)	I am grateful to the teachers at my school.	①	②	③	④
(7)	The teachers at my school are so gentle and caring that I feel at ease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m.	①	②	③	④
(8)	The teachers show caring and interest in me.	①	②	③	④
(9)	I would like to follow my teacher's example.	①	②	③	④
(10)	I often speak with the principal or the vice-principal.	①	②	③	④
(11)	I've got a few teachers with whom I can consult my concerns.	①	②	③	④

※ The following questions deal with your school life.

Q11 Read the following items 1-22 carefully and check the number that best fits your school life.

	Questions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I get along well with everyone in my class.	①	②	③	④

	Questions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2)	I apologize first when I make mistakes or do something wrong to my classmates.	①	②	③	④
(3)	There are many classmates that understand me.	①	②	③	④
(4)	I help my classmates when they are in trouble.	①	②	③	④
(5)	I take part in the ostracizing of the classmates many others find unlikable.	①	②	③	④
(6)	Although there are many students at school, I often feel lonely.	①	②	③	④
(7)	I consult with my friends first when I have concerns.	①	②	③	④
(8)	Learning and studying are interesting.	①	②	③	④
(9)	I always do assignments and prepare lessons.	①	②	③	④
(10)	I mostly understand what I learn in class.	①	②	③	④
(11)	I preview and review what I learn.	①	②	③	④
(12)	I hardly ever play or become lost in other thoughts during class.	①	②	③	④
(13)	I am doing my best in all subjects.	①	②	③	④
(14)	I believe classes to be the most important thing at school.	①	②	③	④
(15)	I observe the school rules, for example, in the hallways or on staircases.	①	②	③	④
(16)	I am careful when using school facilities.	①	②	③	④
(17)	I wait in line in the bathroom or at the fountain.	①	②	③	④
(18)	I always throw trash into the trash bin.	①	②	③	④
(19)	I am interested in all kinds of school events and participate in them actively.	①	②	③	④
(20)	I always take notice of new postings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school homepage, intramural broadcasting, or all kinds of notifications from school.	①	②	③	④
(21)	I propose my ideas about school matters directly to teachers.	①	②	③	④
(22)	I propose my ideas about school matters through the student government.	①	②	③	④

※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bout yourself.

Q12 Read the items on the left column carefully. Check one answer for each item that applies to you.

Questions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I feel that I am a good person.	①	②	③	④
(2)	I feel that I am a capable person.	①	②	③	④
(3)	I feel that I am a valuable person.	①	②	③	④
(4)	I feel useless at times.	①	②	③	④
(5)	I feel that I am a bad person at times.	①	②	③	④
(6)	I feel that I am a loser at times.	①	②	③	④

Q13 The following items are the questions about yourself. Read the items on the left column carefully and check one answer for each item that applies to you.

Questions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disagree
(1)	I trust myself and take responsibilities for my decisions.	①	②	③	④
(2)	I believe I can handle my problems on my own.	①	②	③	④
(3)	I feel that I am in charge of my life.	①	②	③	④

Q14 The following items deal with your daily life. Check the number that is closest to your opinion.

Questions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It is all right to use a cell phone in class or in public places such as a train or a bus.	①	②	③	④
(2)	It is all right to throw trash or cigarettes onto the street.	①	②	③	④
(3)	It is all right to cheat on examinations.	①	②	③	④

(4)	It is all right to interfere in another person's personal life if I am interested in it.	①	②	③	④
(5)	It is all right to put on makeup on a train or in a restaurant.	①	②	③	④

Q15 The following items are about your daily life. Check the number that closest to your opinion.

	Questions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Family life in my home is harmonious.	①	②	③	④
(2)	I respect my parents.	①	②	③	④
(3)	I let my parents know where I am when I am away from home.	①	②	③	④
(4)	My family members discuss their problems and concerns with each other.	①	②	③	④
(5)	Part-time work or other experience outside of school is as important as studying.	①	②	③	④
(6)	I always act while bearing my future career path in mind.	①	②	③	④

Q16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you wish to attain? Check one answer only.

- (1) Middle school/Junior high
- (2) High school
- (3) Community or Junior college
- (4) University
- (5) Graduate school or higher

Q17 Do you wish to study abroad to attain the level of education you answered in Q16?

- (1) Yes (2) No

Q18 Check all kinds of study support, or out-of-school hours learning you are currently taking.

- (1) Classes at a learning center
- (2) Private lessons
- (3) E-learning or Online education
- (4) Other (_____)

Q19 How many hours do you spend on studying out of school including a learning center or private lessons per day?

(1) On weekdays (when there are classes at school) __ hours __ minutes

(2) On Saturdays (when there is no class) __ hours __ minutes

(3) On Sundays and public holidays __ hours __ minutes

Q20 In the past year, have you felt that you wanted to stop attending school? Check one answer only.

__(1) Always __(2) Often __(3) Hardly

__(4) Never

Q21 In the past year, have you had to stop attending school due to some problems **other than** financial/health problems? Check one answer only.

__(1) Never __(2) For one week

__(3) For two weeks __(4) For three weeks

__(5) More than four weeks

Q22 The following items deal with your relationships with your parents. Check the number that best fits you. (If you are living with your stepparents, provide the response about your stepparents.)

	Father				Mother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Slightly Agree	Strongly Agree
(1) Listens to my concerns and problem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I discuss my grades with him/h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I tell him/her about my friend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Knows about my close friends.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23 How much are you satisfied with the items (1)-(5)? Check the answer that applies to you.

	Very dissatisfied	Rather dissatisfied	Rather satisfied	Very satisfied
(1) School life	①	②	③	④
(2) Relationships with friends	①	②	③	④
(3) Relationships with teachers	①	②	③	④
(4) Family life	①	②	③	④
(5) Life at large	①	②	③	④

Thank you for your time in filling out this questionnaire!

4. 스웨덴어 질문지

En Studie Om Relationer Mellan Ungdomar Samt om Ungdomars Skolgång.

Kära elever:

Vi inbjuder er till att delta i en undersökning som genomförs av ett forskningsprojekt vid Södertörns högskola. Syftet med studien är att undersöka och jämföra ungdomars relationer sinsemellan och deras relationer till lärare i fem olika länder: Sverige, Japan, Sydkorea, Tyskland, och USA.

Om du väljer att delta, vill vi be dig att läsa igenom frågorna som handlar om relationer mellan vänner och till lärare samt om attityder kring detta. Till varje fråga ombeds du att svara med det eller de svarsalternativ som passar dig bäst.

När du svarar på denna enkät är vi tacksamma om du svarar på frågorna i ordning, utan att hoppa över några frågor. Vissa frågor vänder sig till de som gav ett visst svar på frågan innan; om så är fallet, gå till den fråga du hänvisas till (Exempel: gå till fråga Q2). För frågor gällande föräldrar, för uppväxtförhållanden utan föräldrar går det bra att ersätta med vårdnadshavare eller förmyndare. Vissa frågor ber vi dig att kryssa i samtliga svar som passar i ditt fall, eller att välja två svar som visar hur du prioriterar. I andra frågor ombeds du att endast ge ett svar. Vi ber dig därför vara extra uppmärksam på antalet svarsalternativ vid de olika frågorna.

Enkäten kommer att ta uppskattningsvis 30 minuter att fylla i.

Svaren kommer att behandlas elektroniskt och enbart användas för statistiska analyser. Förutom ålder och kön, behöver vi ingen ytterligare identifierande information. Det är omöjligt att sammanlänka svar med identitet. Din anonymitet är ytterligare säkrad genom att vi kommer att insamla liknande data från ytterligare etthundra studenter i samma ålder och med samma kön som dig.

Om du har några frågor om vilka rättigheter man har som undersökningsobjekt, dvs. du som svarar på frågorna, vänligen kontakta, Yonhyok Choe, 08-608 4225 eller yonhyok.choe@sh.se

Vi vill tacka dig för att du medverkar i vår forskningsstudie.

SQ6 Vad har dina föräldrar för utbildning? (Om du bor med styvföräldrar, fyll i deras utbildningsnivå.)

	Ingen utbildning	Lågstadie- utbildning	Mellan- och högstadie utbildning	Gymnasie- utbildning	Yrkesskola eller utbildning, ex. kurser, men utan en komplett examen	Universitets- utbildning , med examen	Akademisk examen och över, ex. Forskarutbildning, doktorand, master.	Vet inte
Far	(1)	(2)	(3)	(4)	(5)	(6)	(7)	(8)
Mor	(1)	(2)	(3)	(4)	(5)	(6)	(7)	(8)

SQ7 Vad har din pappa för yrke? Fyll i det svarsalternativ som passar bäst. (Om du bor med din styv pappa, fyll i hans yrke.)

- __ (1) Arbetsgivare/chef
- __ (2) Arbetar för ett företag
- __ (3) Statligt anställd
- __ (4) Kontraktanställd (ej fast anställd, ex. uppdrag för bemanningsfirma)
- __ (5) Tillsvidareanställd
- __ (6) Egenföretagare
- __ (7) Annat
- __ (8) Student
- __ (9) Hemmaman
- __ (10) Arbetslös
- __ (11) Vet ej.

Om du fyllt i svarsalternativ 1-7 kan du fortsätta med fråga SQ 7-1, om du fyllt i svarsalternativ 8-10 kan du gå till fråga SQ 8.

SQ 7-1 Vilka av följande svarsalternativ specificerar din pappas yrke? Fyll endast i ett svarsalternativ.

- (1) Yrkesman(doktor, advokat, lärare, ingenjör, sjuksköterska, författare, designer)
- (2) Administratör, förvaltare(exempelvis avdelningschef och uppåt)
- (3) Kontorist(kontorsanställd/innesäljare/bankir/statstjänsteman)
- (4) Säljare/Anställd inom service sektorn
(affärsanställd/skönhetsexpert/städare/servitör/receptionist/vaktmästare)
- (5) Tekniker/grovarbetare(fabriksanställd/mechaniker/byggarbetare/maskinist)
- (6) Jordbrukare/skogsbrukare/fiskare (landskapsarkitekt/skogvaktare)
- (7) Annat (: _____)
- (8) Vet inte

SQ8 Vad har din mamma för yrke? Fyll i det svarsalternativ som passar bäst.

(Om du bor med din styvmamma, fyll i hennes yrke.)

- (1) Arbetsgivare/chef
- (2) Arbetar för ett företag
- (3) Statligt anställd
- (4) Kontrakts anställd (ej fast anställd, ex uppdrag för bemanningsfirma)
- (5) Tillsvidareanställd
- (6) Egenföretagare
- (7) Annat
- (8) Student
- (9) Hemmafru
- (10) Arbetslös
- (11) Vet ej

Om du fyllt i svarsalternativ 1-7 kan du fortsätta med fråga SQ8-1, om du fyllt i svarsalternativ 8-10 kan du gå till fråga SQ 9.

SQ 8-1 Vilka av följande svarsalternativ specificerar din mammas yrke? Fyll endast i ett svarsalternativ.

- (1) Yrkesman(doktor, advokat, lärare, ingenjör, sjuksköterska, författare, designer)
- (2) Administratör, förvaltare(exempelvis avdelningschef och uppåt)
- (3) Kontorist (kontorsanställd/säljare/bankir/statstjänsteman)
- (4) Säljare/Anställd inom service sektorn
(affärsanställd/skönhetsexpert/städare/servitör/receptionist/vaktmästare)
- (5) Tekniker/grovarbetare(fabriksanställd/mechaniker/byggarbetare/maskinist)
- (6) Jordbrukare/skogsbrukare/fiskare (landskapsarkitekt/skogvaktare)
- (7) Annat (: _____)
- (8) Vet inte

SQ9 Vad har din familj för levnadsstandard? Kryssa endast i en ruta.

Underklass		Medelklass			Överklass		Vet inte
(1)	(2)	(3)	(4)	(5)	(6)	(7)	(8)

※ Följande frågor handlar om din relation till dina vänner. Kryssa i de alternativ som passar dig bäst.

Vänligen svara på frågor om dina närmaste vänner. Rangordna dina vänner från A till D efter hur pass nära de står dig. Självklart behöver du inte fylla i fyra stycken om du känner att du inte har så många nära vänner. Om du känner att du inte har någon nära vän, vänligen gå till fråga Q4.

Q1 Skriv gärna ner namnen på dina vänner A, B, C, D, så att du inte blandar ihop dem. Läs igenom texten noga och fyll i alla svar om dina vänner A-D.

	A() ↓	B() ↓	C() ↓	D() ↓
(1) Vad har den här vännen för kön?	__① Man __② Kvinna	__① Man __② Kvinna	__① Man __② Kvinna	__① Man __② Kvinna
(2) Kryssa i de svarsalternativ som stämmer in på din vän.	__① Går i samma skola __② Går i samma klass __③ Brukar engagera sig i klubbar, aktiviteter anordnade av skolan, ex skoltidningen som jag också är med i. __④ Brukar studera tillsammans med mig efter skolan __⑤ Har samma religion __⑥ Internet(ex. chatting, online spel) __⑦ Annat ()	__① Går i samma skola __② Går i samma klass __③ Brukar engagera sig i klubbar, aktiviteter anordnade av skolan, ex skoltidningen som jag också är med i. __④ Brukar studera tillsammans med mig efter skolan __⑤ Har samma religion __⑥ Internet(ex. chatting, online spel) __⑦ Annat ()	__① Går i samma skola __② Går i samma klass __③ Brukar engagera sig i klubbar, aktiviteter anordnade av skolan, ex skoltidningen som jag också är med i. __④ Brukar studera tillsammans med mig efter skolan __⑤ Har samma religion __⑥ Internet(ex. chatting, online spel) __⑦ Annat ()	__① Går i samma skola __② Går i samma klass __③ Brukar engagera sig i klubbar, aktiviteter anordnade av skolan, ex skoltidningen som jag också är med i. __④ Brukar studera tillsammans med mig efter skolan __⑤ Har samma religion __⑥ Internet(ex. chatting, online spel) __⑦ Annat ()
(3) Kryssa i samtligade platser där du brukar umgås med din vän.	__① Skolan __② På ex. kvällskurser __③ Kyrkan, eller andra religiösa platser	__① Skolan __② På ex. kvällskurser __③ Kyrkan, eller andra religiösa platser	__① Skolan __② På ex. kvällskurser __③ Kyrkan, eller andra religiösa platser	__① Skolan __② På ex. kvällskurser __③ Kyrkan, eller andra religiösa platser

	__④ I skolföreningar, ex skoltidning __⑤ Internet cafeer __⑥ Cafээр __⑦ Spelhallar (datorer) __⑧ Köpcentrum __⑨ Restauranger __⑩ Bibliotek __⑪ Parker __⑫ Annat (_____)	__④ I skolföreningar,ex skoltidning __⑤ Internet cafээр __⑥ Cafээр __⑦ Spelhallar (datorer) __⑧ Köpcentrum __⑨ Restauranger __⑩ Bibliotek __⑪ Parker __⑫ Annat (_____)	__④ I skolföreningar, ex skoltidning __⑤ Internet caféer __⑥ Cafээр __⑦ Spelhallar (datorer) __⑧ Köpcentrum __⑨ Restauranger __⑩ Bibliotek __⑪ Parker __⑫ Annat (_____)	__④ I skolföreningar, ex skoltidning __⑤ Internet caféer __⑥ Cafээр __⑦ Spelhallar (datorer) __⑧ Köpcentrum __⑨ Restauranger __⑩ Bibliotek __⑪ Parker __⑫ Annat (_____)
(4) Kryssa i de ämnen du och din vän brukar tala om.	__① Betyg/ framtida karriär __② Familjeliv __③ Skolan __④ Hobbys __⑤ Nöjen/sport __⑥ Pojkvänner/ Flickvänner __⑦ Annat (_____)	__① Betyg/ framtida karriär __② Familjeliv __③ Skolan __④ Hobbys __⑤ Nöjen/sport __⑥ Pojkvänner/ Flickvänner __⑦ Annat (_____)	__① Betyg/ framtida karriär __② Familjeliv __③ Skolan __④ Hobbys __⑤ Nöjen/sport __⑥ Pojkvänner / Flickvänner __⑦ Annat (_____)	__① Betyg/ framtida karriär __② Familjeliv __③ Skolan __④ Hobbys __⑤ Nöjen/sport __⑥ Pojkvänner/ Flickvänner __⑦ Annat (_____)
(5) Hur mycket brukar du och din vän umgås på vardagar, förutom då ni har gemensamm a lektioner (kryssa endast i en ruta).	__① Mindre än 1 h __② Mindre än 1-2 h __③ Mindre än 2-3 h __④ Mindre än 3-4 h __⑤ Mer än 4 h	__① Mindre än 1 h __② Mindre än 1-2 h __③ Mindre än 2-3 h __④ Mindre än 3-4 h __⑤ Mer än 4 h	__① Mindre än 1 h __② Mindre än 1-2 h __③ Mindre än 2-3 h __④ Mindre än 3-4 h __⑤ Mer än 4 h	__① Mindre än 1 h __② Mindre än 1-2 h __③ Mindre än 2-3 h __④ Mindre än 3-4 h __⑤ Mer än 4 h

Q2 Är personerna A-D i fråga Q1 vänner? Kryssa i det nummer som bäst beskriver deras relation.

	Dom känner inte varann	Dom känner varann	Är nära vänner
A och B	①	②	③
A och C	①	②	③
A och D	①	②	③
B och C	①	②	③
B och D	①	②	③
C och D	①	②	③

Q3 Har du fler vänner än A-D som du nämnt i fråga Q1? Fyll i antal. Kryssa endast i ett svarsalternativ.

- __ (1) En __ (2) Två __ (3) Tre __ (4) Fyra
 __ (5) Fem __ (6) Sex __ (7) Sju __ (8) Åtta
 __ (9) Nio __ (10) Tio __ (11) Elva __ (12) Tolv
 __ (13) Tretton __ (14) Fjorton __ (15) Femton __ (16) Mer än femton

Q4 Har du vänner som du bara träffar on-line, till exempel via e-mail, sms, eller chatt?

- __ (1) Ja (Gå till fråga Q4-1) __ (2) Nej (Gå till fråga Q5)

Q4-1 Om du har vänner som du bara träffar on-line, hur många är det? Fyll endast i ett svarsalternativ.

- __ (1) En __ (2) Två __ (3) Tre __ (4) Fyra
 __ (5) Fem __ (6) Sex __ (7) Sju __ (8) Åtta
 __ (9) Nio __ (10) Tio __ (11) Elva __ (12) Tolv
 __ (13) Tretton __ (14) Fjorton __ (15) Femton __ (16) Mer än femton

Q5 Kryssa i de egenskaper som du tror gör en pojke eller flicka populär, eller som gör många avundsjuka på honom/henne.

- __ (1) Bra utseende
 __ (2) En sofistikerad smak gällande mode
 __ (3) En bra personlighet

- (4) Ledarskap
- (5) Bra studieresultat
- (6) Skämtsamhet
- (7) Bra sinne för humor
- (8) Bra studieresultat i kombination med att vara skämtsam
- (9) Spendera mycket med pengar
- (10) Rikedom, förmögenhet
- (11) Vänlighet/Omtanke
- (12) Annat _____

Q6 Kryssa i de egenskaper som du tror kan bidra till att någon hamnar utanför gemenskapen.

- (1) Alldagligt utseende
- (2) Omoderna kläder
- (3) Dålig personlighet
- (4) Rikedom, förmögenhet
- (5) Fattigdom
- (6) Bra studieresultat
- (7) Dåliga studieresultat
- (8) Att få extra uppmärksamhet från lärare
- (9) Arrogans
- (10) Att inte vara medveten om omgivningen
- (11) Att vara självisk
- (12) Annat _____

Q7 Hur bra/dåligt kommer du överrens med dina vänner? Läs frågorna noggrannt och kryssa i de alternativ som stämmer bäst. Kom ihåg att svara på samtliga frågor!

	Frågor	Absol 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Håller fullstä ndigt med
(1)	Jag rådfrågar mina vänner då något bekymrar mig.	①	②	③	④
(2)	Jag skäms eller känner mig dum då jag talar med mina vänner om mina problem.	①	②	③	④
(3)	Jag önskar att jag kunde ha andra vänner än de jag har.	①	②	③	④
(4)	Jag skulle vilja träffa och komma i kontakt med mina vänner mer än vad jag gör.	①	②	③	④
(5)	Jag tycker att mina vänner är bra människor.	①	②	③	④
(6)	Jag känner mig ensam även då jag är med mina vänner.	①	②	③	④
(7)	Jag har bättre självinsikt/förståelse för mig själv tack vare mina vänner.	①	②	③	④
(8)	Ofta när jag blir arg beror det på mina vänner.	①	②	③	④
(9)	Jag kan räkna med mina vänner då jag har bekymmer.	①	②	③	④
(10)	Jag kan lita på mina vänner.	①	②	③	④
(11)	Jag kan prata om mina problem och bekymmer obehindrat med mina vänner.	①	②	③	④
(12)	Jag hoppas kunna hålla kontakten med mina vänner så länge som möjligt.	①	②	③	④
(13)	Jag känner mig glad då jag är med mina vänner.	①	②	③	④
(14)	Jag försöker att tänka och tycka som mina vänner.	①	②	③	④
(15)	Jag värderar vänskapen med mina vänner högt.	①	②	③	④
(16)	Då jag av någon anledning är arg försöker alltid mina vänner att förstå mig.	①	②	③	④
(17)	Mina vänner uppmuntrar mig att tala om mina problem med dem.	①	②	③	④
(18)	Mina vänner bryr sig alltid om mina personliga bekymmer.	①	②	③	④
(19)	Mina vänner tar mig för den jag är.	①	②	③	④

(20)	Mina vänner ser på en gång om jag känner mig sårad.	①	②	③	④
(21)	Mina vänner har inte en aning om hur jag har det.	①	②	③	④
(22)	Mina vänner respekterar mina känslor.	①	②	③	④
(23)	Mina vänner brukar inte bry sig om mina känslor då jag är upprörd.	①	②	③	④
(24)	Mina vänner brukar bli arga på mig utan någon speciell anledning.	①	②	③	④
(25)	Mina vänner brukar lyssna till mina åsikter väl då vi diskuterar.	①	②	③	④
(26)	Mina vänner är de som först frågar mig om mina problem när jag verkar ha sådana.	①	②	③	④
(27)	Mina vänner lyssnar till vad jag har att säga.	①	②	③	④
(28)	Mina vänner förstår mig.	①	②	③	④
(29)	Vad man än gör, så ska man göra det tillsammans med sina vänner, bara man känner varann tillräckligt väl.	①	②	③	④
(30)	Man bör respektera varandras enskilda åsikter och sätt att vara även om man är nära vänner.	①	②	③	④

※ Följande frågor handlar om elev-lärare relationer.

Q8 Finns det någon lärare som du respekterar eller tycker om i din skola?

(1) Ja (gå till fråga Q8-1)

(2) Nej (gå till fråga Q9)

Q8-1 Kryssa i de svar som stämmer in på varför du respekterar/tycker om den läraren.

Läraren

__ (1) Förstår sig bra på eleverna

__ (2) Är snäll när han/hon undervisar

__ (3) Gör sitt bästa då han/hon undervisar

__ (4) Har mycket bra kunskap om det område han/hon undervisar i

- (5) Har rolig humor/hans/hennes lektioner är roliga
- (6) Ser bra ut
- (7) Har en bra personlighet
- (8) Annat (_____)

Q9 Finns det någon lärare som du inte tycker om i din skola?

- (1) Ja (gå till fråga Q9-1) (2) Nej (gå till fråga Q10)

Q9-1 Kryssa i alla de svarsalternativ som beskriver varför du inte tycker om den läraren.

Läraren:

- (1) Favoriserar vissa elever
- (2) Lyssnar inte till eleverna
- (3) Blir lätt arg på elever
- (4) Saknar humor/hans/hennes lektioner är tråkiga
- (5) Har dålig kunskap om de områden han/hon undervisar
- (6) Är arrogant
- (7) Har en stel attityd gentemot eleverna
- (8) Annat (_____)

Q10 Följande frågor handlar om lärarna på den skola du går i just nu. Läs frågorna noggrant och kryssa i det nummer som passar in bäst.

	Frågor	Absolut 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Håller fullstä ndigt med
(1)	Jag har lätt för att tala med mina lärare.	①	②	③	④
(2)	Jag brukar hälsa extra artigt på mina lärare då jag träffar dem.	①	②	③	④
(3)	Jag tycker om och respekterar mina lärare.	①	②	③	④
(4)	Det känns som att en del lärare vore nära vänner till mig.	①	②	③	④
(5)	Jag har några lärare som jag verkligen kan öppna mig inför.	①	②	③	④
(6)	Jag är tacksam för de lärare vi har på skolan.	①	②	③	④
(7)	Lärarna på skolan visar sådan omtanke så att det känns naturligt att ha en nära relation med dem.	①	②	③	④
(8)	Lärarna visar omtanke och intresse för mig.	①	②	③	④
(9)	Jag skulle vilja bli som mina lärare.	①	②	③	④
(10)	Jag talar ofta med rektorn eller studierektorn.				
(11)	Det finns ett par lärare på skolan som jag kan diskutera problem med.	①	②	③	④

※ Följande frågor handlar om din/er skolgång.

Q11 Läs frågorna noggrant och kryssa i de rutor som bäst beskriver din skolgång.

	Frågor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Håller fullstä ndigt med
(1)	Jag kommer bra överrens med alla i min klass.	①	②	③	④
(2)	Jag är den som först ber om ursäkt då jag gör ett	①	②	③	④

Frågor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Håller fullständigt med
(3) Jag har många klasskamrater som förstår mig på ett bra sätt.	①	②	③	④
(4) Jag hjälper mina klasskamrater då de har problem.	①	②	③	④
(5) Jag tar del i att få en del att känna sig utanför.	①	②	③	④
(6) Även om det finns många elever på skolan, så känner jag mig ofta ensam.	①	②	③	④
(7) Mina vänner är de första jag vänder mig till då jag har problem.	①	②	③	④
(8) Att lära sig och studera är intressant.	①	②	③	④
(9) Jag brukar alltid göra läxorna och vara väl förberedd inför lektionerna.	①	②	③	④
(10) Jag brukar förstå det mesta av vad som undervisas på lektionerna.	①	②	③	④
(11) Det jag lär mig ögnar jag först igenom och repeterar det sedan.	①	②	③	④
(12) Jag brukar nästan aldrig leka eller tänka på annat under lektionerna.	①	②	③	④
(13) Jag gör det bästa möjliga ifrån mig i alla ämnen.	①	②	③	④
(14) Jag tycker att lektionerna är det viktigaste i skolan.	①	②	③	④
(15) Jag är medveten om skolans regler.	①	②	③	④
(16) Jag är försiktig när jag använder skolans faciliteter.	①	②	③	④
(17) Jag brukar ställa mig i kö(om det finns någon) för att gå på toaletten eller för att få dricka.	①	②	③	④
(18) Jag brukar kasta skräp i papperskorgen.	①	②	③	④

	Frågor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Håller fullständigt med
(19)	Jag intresserar mig för skolans aktiviteter och brukar delta i dem.	①	②	③	④
(20)	Jag brukar vara uppmärksam på nya meddelande på skolans anslagstavla, eller på skolans hemsida, eller på meddelanden från skolan överlag.	①	②	③	④
(21)	De förslag jag har om skolan brukar jag vända mig till lärare direkt med.	①	②	③	④
(22)	De förslag jag har om skolan brukar jag ta upp i elevrådet.	①	②	③	④

※ Följande frågor handlar om dig/er själva.

Q12 Läs frågorna i de vänstra kolumnerna noggrannt. Kryssa i ett svar för varje fråga.

	Frågor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Håller fullständigt med
(1)	Jag tycker att jag är en bra person	①	②	③	④
(2)	Jag tycker att jag är duktig, skicklig	①	②	③	④
(3)	Jag känner att jag är värdefull	①	②	③	④
(4)	Ibland känner jag mig värdelös	①	②	③	④
(5)	Ibland känner jag mig som en dålig människa	①	②	③	④
(6)	Ibland känner jag mig som en förlorare	①	②	③	④

Q13 Följande frågor handlar om dig/er. Läs frågorna i de vänstra kolumnerna noggrant. Kryssa i ett svar för varje fråga.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Håller fullständigt med
(1) Jag kan lita på mig själv och ta ansvar för mitt handlande.	①	②	③	④
(2) Jag klarar av att ta hand om mina problem själv.	①	②	③	④
(3) Jag känner att det är jag själv som bestämmer över mitt liv.	①	②	③	④

Q14 Följande frågor handlar om det vardagliga livet. Kryssa i det nummer som ligger närmst din egen åsikt.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Håller fullständigt med
(1) Det är okej att använda mobiltelefon på lektioner eller på allmänna platser såsom på bussen eller tåget.	①	②	③	④
(2) Det är okej att slänga skräp eller cigaretter på gatan.	①	②	③	④
(3) Det är okej att fuska på prov.	①	②	③	④
(4) Det är okej att lägga sig i andra personers privatliv om det intresserar mig.	①	②	③	④
(5) Det är okej att sminka sig på tåget eller på restaurangen.	①	②	③	④

Q15 Följande frågor handlar om det vardagliga livet. Kryssa i det nummer som ligger närmst din egen åsikt.

		Abso lut inte	Håler inte med	Håller med	Håller fullständ igt med
(1)	I mitt hem är familjelivet harmoniskt och lugnt.	①	②	③	④
(2)	Jag respekterar mina föräldrar.	①	②	③	④
(3)	Jag informerar mina föräldrar om vart jag är någonstans då jag inte är hemma.	①	②	③	④
(4)	Mina familjemedlemmar brukar prata om sina problem och bekymmer med varandra.	①	②	③	④
(5)	Extrajobb eller annan aktivitet utanför skolan är lika viktigt som att studera.	①	②	③	④
(6)	När jag gör saker har jag min framtida karriär i åtanke.	①	②	③	④

Q16 Vilken är den högsta utbildningen du önskar skaffa dig? Kryssa endast i ett svarsalternativ.

__ (1) Låg och mellanstadium

__ (2) Högstadium

__ (3) Yrkeskola eller universitetsutbildning utan examen

__ (4) Universitetsutbildning

__ (5) Forskarutbildning, doktorandtjänst, master utbildning eller högre.

Q17 Önskar du studera utomlands för att uppnå den utbildning du fyllt i fråga Q16?

__ (1) Ja

__ (2) Nej

Q18 Kryssa i den studiehjälp du får, eller de extralektioner du tar.

__ (1) Studiestuga

__ (2) Privatlektioner

__ (3) Internetkurser, E-learning eller Online utbildningar

__ (4) Annat(_____)

Q19 Hur många timmar per dag inklusive exempelvis privatlektioner studerar du utanför skolan?

(1) På veckodagarna (då vi har lektioner under dagtid)

_____ timmar _____ minuter

(2) På lördagarna (då det för det mesta inte är någon skola)

_____ timmar _____ minuter

(3) På söndagar och helgdagar

_____ timmar _____ minuter

Q20 Har du någon gång under det senaste året känt att du velat hoppa av skolan? Kryssa bara i ett svarsalternativ.

__ (1) Alltid __ (2) Ofta __ (3) Nästan aldrig __ (4) Aldrig

Q21 Har du någon gång under det senaste året varit tvungen att vara ifrån skolan på grund av **andra orsaker** än ekonomiska problem eller av hälsoskäl? Kryssa bara i ett svar.

__ (1) Nej, aldrig __ (2) I en vecka __ (3) I två veckor

__ (4) I tre veckor __ (5) Mer än fyra veckor

Q22 Följande frågor handlar om din relation till dina föräldrar. Kryssa i det nummer som passar bäst. (Om du bor med styvföräldrar, svara för dem.)

	Pappa				Mamma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Håller fullständigt med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Håller fullständigt med
(1) Lyssnar till mina bekymmer och problem.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Jag diskuterar mina betyg med honom/henn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Jag berättar om mina vänner för honom/henn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Känner till mina närmsta vänn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Q23 Hur pass nöjd är du med punkterna (1)-(5) nedan? Kryssa i det svar som passar dig bäst.

	Väldigt missnöjd	Ganska missnöjd	Ganska nöjd	Väldigt nöjd
(1) Skolgång	①	②	③	④
(2) Vänskapsrelationer	①	②	③	④
(3) Lärarrelationer	①	②	③	④
(4) Familjeliv	①	②	③	④
(5) Livet i allmänhet	①	②	③	④

Tack för att du tagit dig tid att fylla i denna enkät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이교선	인하대학교 · 교수
이장익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수
문성모	세종대학교 공학교육센터 · 책임연구원
김수영	문학과지성사 · 편집부장
김정규	계명대학교 · 교수
조경진	한국디지털대학교 · 교수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 발달 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산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 발달 지표 결과부문 / 김산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II - 청소년인권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체제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홍식·정익중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k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한민족 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연구 / 김태기 · 임영언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기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9-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저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장근영·김남정·박정배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서정아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오성배·양계민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임희진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연구철·이교봉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강홍렬·고원·김민·
김은경·김지선·김현주·나의순·미경희·손승영·손유미·우명숙·이승현·임천순·전상진·
주용국·진미석·채재은·최규종·최순종·최화영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고원·강홍렬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김기현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이창호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김경준·
백혜정·강진구·김태희·송미경·이유미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조혜영·이춘화·김경준·김현철·김기현·임희진·
임지연·길은배·김민·유홍식·전명기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김은정·백원근·허병두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황진구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송병국·오홍석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장근영·김호순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김승규·송순재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김기현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백혜정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백혜정·김형주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이경상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오해섭·이혜연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1.23~24)
07-S02 「Internation Conference on Changing Fama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4.20)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5.12)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1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경성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 978-89-7816-703-1 (93330)